

신의 손

굿모닝서울산 창간일지

신의 손

굿뉴스울산 창간일지

이금희 · 박정관 공저

신의 손

굿뉴스울산 창간일지

인쇄일 2017년 6월 22일

발행일 2017년 6월 27일

지은이_ 이금희

펴낸이_ 박정관

펴낸곳_ 도서출판 굿뉴스

등 록 제369-2017000011호(2017. 5. 2)

주 소_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1길 2

전 화_ 052)294-8484

디자인 표지 김애령/ 내지 구본일

제작대행 세줄기획(02.2265.3749)

영업(총판) 일오삼(민태근)

전 화_ 02. 964.6993 팩스 2208.0153

값 15,000 원

ISBN 979-11-960995-0-3 03230

©2017, 이금희 · 박정관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책의 주문 및 영업에 대한 문의는 영업대행으로 해주십시오.

도서출판 **굿뉴스**

지금 이 시대는 넘치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홍수 속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듯 저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롭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빈곤으로 가득 차있는 물질만능시대가 되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한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차량들이 쏜살 같이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거짓말처럼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차에 치여 비명횡사하고 말겠구나 생각하는 극적인 그 순간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외마디 비명 같은 서원을 내뱉었고, 바로 그때 발이 떼져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언약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지역의 서너 군데 교회와 연합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를 돕는 전도팀과 더불어 수요일마다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며 순회하며 교회끼리 힘을 합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일 년 동안 연합하며 영적인 일들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보아스에 발에 우연히 닿은 룻의 발자취처럼 개척교회에서 굿뉴스울산을 창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전부터 책을 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받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책을 내라고 격려하는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나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요일2:17)는 천상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의 제단에 그저 감사의 언어를 봉헌해 올릴 뿐입니다. 그간 취재현장의 기사와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의 벽돌을 모아 「신의 손」이라는 작은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主後 2017年 5月 9日

이금희 목사

추천사 1

이 책의 저자 이금희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경북기독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였습니다. 마침 울산의 군부대에 새로 생긴 ‘은창교회 헌당식’이 있어서 취재도 해갔고, 교계행사에서 더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굿뉴스울산이라는 신문을 창간하는데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퇴하는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려 하고 있었기에 사양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굿뉴스울산을 발행하며 저자가 울산해비타트 모임, 은목교회 행사, 구치소위문현장, 헌당예배 및 임직식 등 많은 취재현장을 지켜내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고발하고 잘못을 캐내기보다 농아교회·시각장애인선교회 등 소외된 곳을 취재해 비추어왔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들이 드러나길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취재현장의 내용들과 따뜻한 감성으로 적은 삶의 에세이를 엮어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니 이사장으로서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독자들의 손에 전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풍성한 읽을거리를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主後 2017년 5월 31일

장현서 장로(굿뉴스울산 이사장)

추천사 2

제가 부흥강사로 전국을 다녔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되며 잘 되는 곳은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파괴하는 언어를 말하는 곳은 부흥이 정체되고 퇴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저는 말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말·흥하는 말·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 비결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을 지녔기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자 이금희 목사는 울산에서 개척교회 서너 곳이 매주 수요일마다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하다가 굿뉴스울산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단한 문서선교사역을 5년 동안 꾸준히 감당해오며 이번엔 책으로 발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개척교회에서 시작된 굿뉴스울산의 창간 배경과 취재현장의 탐방기사와 인터뷰를 포함한 교계의 좋은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취재현장을 지켜내려고 애쓴 저자의 미덕은 비리를 고발하고 부정적인 글로 난도질한 내용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으로 교계의 크고 작은 좋은 기사를 발굴해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조각(彫琢)해 세상에 선보이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꽃향기처럼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主後 2017년 5월 25일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추천사 3

글은 참 무섭다. 용케 잔피를 부려도 어느 한곳에서 글 쓴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 어설퍼도 분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게 나은 이유다. 온갖 치장을 한 문맥은 그 자체로 비속함을 드러낼 뿐이다. 글은 또 글자로 새겨져 나중에 사실여부를 밝히는 단초가 된다.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 혼쭐이 빠지도록 욕을 먹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분수 넘게 함부로 글을 쓰선 안 되는 이유다.

그의 글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어수룩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진솔하다. 글 속에서 그의 삶과 생각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착한 심성과 孝가 두드러진다. 글 쓰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바탕을 갖췄기에 여러 개의 글을 한 데 모아 묶어 봐도 책이 돋보인다.

이금희 목사의 글은 종교적인 색깔을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 평범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소재를 찾고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옮겨 적는다. 그런 그가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지금까지 해 냈다. 그의 글모음에 큰 치하(致賀)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다.

2017. 5. 12

정종식 편집국장(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추천사 4

굿뉴스울산은 창간초부터 수많은 어려움속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낮은 곳에 찾아가 이제는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목사는 번창하던 옷장사를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해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왔습니다. 박정관 전도사는 중앙일간지 판매와 국민일보 문서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언약의 교회에 와서 이금희 목사를 만났고, 무일푼으로 굿뉴스울산을 창간했습니다. 첫 걸음과 재정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리자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듯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이금희 목사와 박정관 전도사가 함께 비오나 눈오나 바람오나 신발을 닦도록 울산지역교회소식을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이 책에는 재미와 감동 넘치는 각양각색 좋은 소식을 모았습니다. 5년전 에바다 농아교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버릇처럼 ‘농아인목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창작한 ‘신의 손’을 통해 희망을 주고 성공을 북돋아주는 이 일이 과연 놀라운 일이 아닌지요?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은혜로운 체험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기에 추천의 말을 남깁니다.

主後 2017년 5월 10일

박종화 목사(울산에바다농아교회)

목차 | 目次

- 004 ● 권두언
- 006 ● 추천사 1 | 장현서 장로
- 007 ● 추천사 2 | 김문훈 목사
- 008 ● 추천사 3 | 정종식 편집국장
- 009 ● 추천사 4 | 박종화 목사
- 015 ● 신의 손, 굿뉴스울산 창간일지(創刊日誌)
- 026 ● 굿뉴스울산(기독신문) 장현서 이사장 취임사
- 028 ● 굿뉴스울산 김문훈 목사 초청집회
- 030 ● 525 회개의 날 준비모임 현장
- 032 ● 텔런트 이영후 장로 울산에바다농아교회 간증집회
- 037 ● 가수 장혜리 집사 울산에바다농아교회 초청 사랑의 음악회
- 041 ● 가수 김종찬 목사 초청음악회, 산돌교회에서 열려
- 044 ● 김정직 전도사 간증집회 탐방후기
- 047 ● 김기현 울산시장 명사초청강연 취재현장
- 050 ● 故 방지일 목사님을 추모하며
- 053 ● 김영삼 前 대통령을 추념하며
- 055 ● 역사는 흐른다(울산제일일보 칼럼)
- 058 ● 굿뉴스울산 창간일지(언약의 교회 7년간의 여정)
- 061 ● 애완견 해피와 봄이와 겨울이

- 064 ● 이기풍 선교기념관 탐방후기
- 069 ● 새끼 고양이 미미(美美) 구조작전
- 072 ● 부모님 효도관광의 짧았던 하루
- 075 ●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탐방후기
- 078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탐방후기
- 080 ● 감천문화마을을 다녀와서
- 083 ● 욕망의 바벨탑(발행인 칼럼)
- 086 ● 바이블탐침(에텐동산)
- 088 ● 복 있는 사람(시편 1:1~6)
- 090 ● 바이블탐침(엘리아의 하나님, 열왕기상18:30~40)
- 092 ● 바이블탐침(고레스황제(Cyrus 皇帝))
- 095 ● 바이블탐침(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097 ● 바이블시론(마귀의 사람, 성령의 사람)
- 100 ● 다윗의 전리품(굿뉴스울산 20호 편집후기)
- 105 ● 베테랑(veteran)을 떠나보내며
- 108 ● 영화 “암살” 관람후기
- 111 ● 아날로그의 낭만이 그리운 디지털시대
- 114 ● 자동차 극장의 낭만(浪漫)
- 117 ● 여름의 끝을 잡고 낚시여행
- 120 ● 울산대교 전망대를 다녀오며
- 122 ● 축복과 믿음의 여정
- 126 ● 일천번제 축복의 주인공 장현서 장로
- 130 ● 이사랑 목사를 응원하며
- 133 ● 이명박 前 대통령 초청, 제39차 극동포럼 현장스케치

138 ●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현장스케치
 141 ● 백년지성(百年知性), 김형석 교수의 강연을 듣다
 144 ● 은혜와 열정의 비전메이커 김문훈 목사, 금요철야집회
 147 ●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긍정에너지
 150 ● 홍진영의 멋진 무대매너(2016 울산고래축제)
 153 ● 한가위에 찾아든 불청객
 156 ● 울산 포항 고속도로 완전개통의 의미
 159 ●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식 현장스케치
 162 ● 재난현장의 언론과 빛나는 영웅들
 165 ● 울산항만선교회 선원휴게소 개축 감사예배
 169 ● 제3울산교회 김두삼 목사 위임감사예배
 172 ● 장생포 원조 고래빵
 175 ● 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 토요예배 현장스케치
 179 ● 탤런트 이광기 집사 간증집회
 183 ● 굿뉴스울산 기독교신문 장현서 이사장 취임예배
 187 ● 김문훈 목사 울산 남구청 특강
 189 ● 새터민들의 신앙과 자립 돕는 예사랑교회 탐방후기
 193 ● 민들레의 이름으로
 194 ●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97 ● 기회의 화살
 200 ● 글 · 사진 · 동영상, 현대판 신언서판(身言書判)
 203 ● 찾아가는 서비스(발행인 칼럼)
 206 ● 먼저 남을 대접하라
 209 ● 사랑 후에 남은 상처

212 ● 목회자 이중직 논란에 대한 소회
 215 ● 검색의 시대(발행인 칼럼)
 218 ● 아름다운 카리스마- 굿뉴스워십단장 김은희 집사
 222 ● 건강이 주는 축복
 225 ●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탐방후기
 228 ● 고래바다여행선 승선후기
 231 ● 굿뉴스울산 24호 편집후기-힘겹게, 버겁게, 어렵게
 23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8 · 15 구국기도회
 238 ● 나사렛 예수의 부활사건
 241 ● 따뜻한 카리스마
 244 ● 섬김과 나눔의 자선행사 2題
 247 ● 시골 목회자의 어르신 사랑
 250 ●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탐험,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253 ● 그리스도의 향기-울산시민교회 김창호 집사
 258 ● 제11회 호영남성시화한마음대회 성황리 막 내려
 261 ● 상처와 치유의 손(이금희 목사 신앙간증)
 265 ● 한 곳 차이
 268 ● 한 회원의 언론인홀리클럽 태동과 관련한 간증
 273 ● 화보



신의 손, 굿뉴스울산 창간일지(創刊日誌)

여성목회자로서 언약의 교회 담임한 13년간의 여정(旅程),
개척교회 연합해 전도할 때 시작된 굿뉴스울산 창간 간증

〈언약의 교회와의 첫 만남〉

벌써 10년의 세월이 과거로 흘렀다. 국민일보 문서선교사로 5년간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 잠시 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려 받으니 동아일보 북산지국장의 전화였다. 그래서 티코를 타고 태화강을 건너 북산지국에 도착했다. 홍 국장이 건넨 커피믹스 한 잔을 받아들고 마주앉았다. 홍 국장은 “아까 교회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흥회 전단지를 돌린다고 하더군. 박 전도사 자네가 가야 그 일이 처리될 거 같아 내가 불렀네. 자네가 알다시피 나야 동아일보 지국장이지 국민일보야 내가 잘 알 턱이 있나. 국민일보야 자네가 전문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알겠어요. 내가 가보죠.”하고 홍국장이 가르쳐준 언약의 교회로 차를 몰았다.

성신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우측으로 핸들을 꺾고 조금 나가니 언약의 교회 종탑이 보였다. 차를 주차하고 2층으로 올라가 교회 문을 노크하니 안에서 두 명의 여자 분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두 분의 환대를 받으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다. 상가교회는 40 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였고, 나는 장의자에 앉아 먼저 기

도를 드리고 나서 두 분을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반가와요.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금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 분은 안명숙 집사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관 전도사라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전단지를 돌리신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후 목사님이 보여준 전단지를 받아 보았다. 거기에는 2주 뒤에 언약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인쇄돼 있었다. 두 분은 8000부 인쇄해 둔 부흥회 전단지를 가가호호 돌려야 하는지 신문에 삽지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 전화한 거였다. 그래서 나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린 후 전단지와 삽지비용을 받아와서 언약의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의 몇 군데 국민일보 지국에 배부하며 잘 삽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을 때 불현듯 언약의 교회 부흥회가 어찌 됐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오전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 30여 명의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불렀다. 집회가 시작되자 부흥강사는 힘찬 설교를 이어갔고, 참석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설교가 끝나고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다함께 치유를 위해 합심기도 했고, 상담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사와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집회 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려 할 때 이금희 목사는 “곧 강사 목사님과 식사하러 가야하니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하면서 요청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참석자들은 모두 돌아가

고 강사 목사, 이금희 목사, 식사 대접하는 안명숙 집사 등 3명이 남았다. 그런데 언약의 교회에는 차량이 없었다. 이 목사는 지체장애 5급이라 차를 운전할 수 없고, 안 집사는 면허증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정차라 줘왔지만 네 사람이 타자마자 티코는 정자 바닷가로 내달렸다. 그때 강사 목사가 툭 던진 말이 걸작이었다. “내가 부흥강사로 전국을 다니는데 현대자동차가 있는 이 울산에서 티코를 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하면서 껄껄 웃었다. 작은 티코는 바람을 가르며 확확 내달려 정자바닷가에 도착했다. 일행들은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강사를 숙소로 모셔드려야 했기에 티코로 모셔드렸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남은 집회 시간에 차량봉사로 자원해 섬기게 되었다.

마침내 언약의 교회 부흥집회 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하루는 이금희 목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전도사님, 지난 번 부흥회에 차량봉사로 섬겨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시간 내서 한 번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교회에 도착했더니 이 목사는 손수 삼계탕을 끓여 대접했다. “목사님, 작은 교회를 이끄신다고 갖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얻어먹을 염치가 없습니다.” “아뇨,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에는 작은 봉사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내게 수고했다고 구두 한 결례를 선물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봉사자가 절실합니다. 언약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래서 나는 선물 받은 그 구두를 신고 언약의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섬겨오고 있다.

〈언약의 교회 10년간 섬긴 믿음의 여정과 개인적 발자취〉

내가 이 곳 언약의 교회에서 10년간 여정에서 겪은 발자취를 서술 하면 소설책 서너 권 분량은 될 것이다. 그러나 〈신앙계 창간 50주년 기념 신앙수기〉에 입각해 “굿뉴스울산 창간일지”라는 내용으로 축약하고 첨삭해야한다. 그 보다 먼저 나의 간증을 간단히 첨부해야 주제가 더 선연히 드러날 것이기에 부끄럽지만 내 개인사를 잠시 언급한다. 한편 이 수기공모를 보면서 내가 내심 놀란 것은 ‘감사의 50년, 영광의 50년’이라는 신앙계의 슬로건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딱 50인데 ‘감사의 50년, 영광의 50년’ 이라고 나이테가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은 허물 많고 부족해 부끄러운 고백에 다름없다.

울산공업지구가 들어서던 1962년 무렵 우리 부모는 경북 영천서 가까운 임포에서 울산으로 이주했고, 5남매를 낳으며 맞벌이를 했다. 1968년 울산에서 막내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배움은 적은 없었다. 6.25전쟁 후여서 나보다 한 세대 위인 부모들이 고생했지만 우리 세대에는 어릴 때 조금 어려웠으나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맛보며 별 탈 없이 잘 자랐다.

한편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울산고 2학년 때 친구 유승곤의 전도를 받고 울산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했다. 나는 학생회와 주일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 집사였던 박광자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애정 어린 관심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교회 집회 중에 방언을 받은 나는 등하교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올

렸다. 그 무렵 문화적 환경이 풍요롭지 못한 탓에 성탄절 같은 교회의 문화 행사는 당연히 고급하게 여겨졌고,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하면 친구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기가 쉬웠다. 한 마디로 세상 문화를 주도했던 교회문화였던 것이다.

아쉬운 고교시절을 뒤로 하고 나는 지인의 권유로 서울 홍은동에 있던 총회신학교(합동보수)에 1987년도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왔다. 군대를 전역한 후 어린 시절부터 신문배달을 했던 나는 조선일보 수암지국의 총무로 사회에 첫발을 들였다. 학자금을 모아 서울의 신학교에 다시 진학한다고 계획했던 나의 길은 그 길로 계속 신문지국의 생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급기야 울산에서 경상일보라는 지역신문 지국장도 2년 가량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신문판촉까지 10년 정도 일했다. 그 사이 세월이 빠르게 흘러 내 나이 30살이 넘었다. 이러다가 신학교는 영영 가지도 못하고 졸업도 못하겠다고 생각할 무렵 울산신학교라는 곳에 편입해 야간에 공부했다.

그때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최소한의 생활비가 될 거 같아 나는 국민일보 문서선교사에 지원 서류를 접수했다. 그래서 합격됐다는 통보를 받고 티코를 직접 운전해 국민일보 본사에서 치러진 임명장 수여식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그때 국민일보를 창간했던 조용기 목사가 직접 설교했고, 임명장을 수여해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울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에 출발해 국민일보 부산지사에서 아침 직원예배를 같이 드렸고, 울산과 전국적으로 다니며 문서선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방송채널이 많지 않았고, 인터넷도

활발히 보급되지 않아 신문시장은 한창 성장세였다. 또 그만큼의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으며 후발주자였던 국민일보도 판매신장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나는 국민일보 대구지사에 출근해 경주를 비롯한 포항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소개를 받아 부수확장에 애썼다.

나는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집회에 6개월가량 따라다니며 참석했다. 그래서 목사님의 후의로 포도원교회에서 문서선교사로 2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그 당시 김문훈 목사 집회에 운전비서로 섬기며 전라도, 경기도를 비롯 속초시 연합집회, 홍천시 연합집회 등 부흥회 때 국민일보를 많이 소개받았다. 또 목사님의 배려로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총회신학교(합동개혁)에 다닐 수 있었다. 이렇듯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는 잠언 16장 9절을 곱새겨보게 된다. 내가 불신가정에서 자라서 비신자들의 삶의 풍경과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십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굿뉴스울산의 편집장이 되어 이렇게 수기까지 적고 있으니 ‘문서선교의 길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굿뉴스울산 창간배경과 이금희 목사〉

이제 “굿뉴스울산 창간일지”에 대해 말할 차례다. 우선 굿뉴스울산의 창간배경과 발행인 이금희 목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굿뉴스울산 발행인 이금희 목사는 서울예고, 계명대 미대를 졸업하고 옷 장사를 하면서 한 달 수입만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장사에 수완이 뛰어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길 정도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우연히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로 열심히 주를 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솔한 부르심에도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량들이 쏟아져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거짓말처럼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차에 치여 비명횡사하고 말겠구나 생각하는 극적인 그 순간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외마디 비명 같은 서원을 내뱉었다. 바로 그때 발이 떴고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언약의 교회를 담임하게 된 이금희 목사는 10여 년 전 목회초기에 중직자들을 비롯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건축을 해야 한다는 쪽과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성도들은 양분돼 서로 갈등했다. 결국 사람들과의 갈등 끝에 목회를 그만둔다고 마음먹은 이 목사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가라고 선포해 버렸다. 그때부터 노숙자, 알콜중독자, 결혼 못한 청년들이 들어와 예배를 마치고 교제시간에 들어가는 식대만 해도 수 백 만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지난한 세월이 또 화살처럼 흘러갔다. 그러던 중 5년 전 나는 경북기독신문 울산주재기자로 10개월 간 일했던 적이 있다. 그때 대판 12면의 지면 중에서 2개면에 울산지역 교계뉴스를 전했고, 지대(紙代)로 매월 100만 원의 문서선교비를 지불했다. 그때 광고가 채워지지 않아 모자라는 금액을 자진해 회사(喜捨)한 사람이 이금희 목사다. 개척교회에서 무모하다는 소리도 제법 들었던 10개월의 과정을 거치자 하나님은 굿뉴스울산을 창간하라고 명하셨다. 이금희 목사는 “하나님,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신문을 창간하라는 것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이것을 명하시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금희 목사에게 “내가 교회의 부흥을 약속해줄 테니 신문을 창간해 문서선교의 향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언약의 교회라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굿뉴스울산이 창간되었다.

굿뉴스울산을 창간하기 전, 언약의 교회는 지역의 서너 군데 교회와 연합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다. 개척교회 전도를 돕는 전도팀과 더불어 수요일마다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며 순회하며 교회끼리 힘을 합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일 년 동안 연합하며 영적인 일들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굿뉴스울산을 창간하게 됐다.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권사 한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신다며 300만 원을 현금해 그 돈이 창간의 종자돈이 됐다. 이런 형편이었기에 모두 다 무모한 도전이라 여겼고, 신문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조차 때로 힘겨워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럴 때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위로와 은총을 베풀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이 일을 계속하도록 채근하셨다.

휴먼시아장로교회를 빌려 2013년 1월 13일 드렸던 창간예배는 군중 감 출신의 이원호 목사(대련남산교회)가 설교를 했고, 김상식 목사가 색소폰 연주를 하는 등 뜻있는 사람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그 다음해 1주년 감사예배는 2014년에는 북울산순복음교회를 빌려 김정호 목사

(북부교회, 본지고문)가 설교를 했고, 본지 전속 블레스워십팀과 에바다동아교회의 수화찬양도 봉헌됐다. 2주년 감사예배는 북부교회를 빌려 김정호 목사가 설교를 했고, 여러 워십찬양팀들의 몸 찬양이 봉헌됐는데 탈북민 사역을 하는 포항주찬양교회 이사랑 목사에게 쌀을 후원받아 지원했다.

이사랑 목사는 축사를 하러 왔다가 봉고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여만 원의 수리비를 본지 발행인이 지불하며 주안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했다. 한편 이사랑 목사는 10여 년간 탈북민 목회 전문사역을 하면서 식당 일을 비롯한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언론인홀리클럽을 비롯한 교계의 매스컴을 타며 기사화돼 전국 각지의 후원을 받았다. 특히 남서울교회의 전세지원금을 받아 번듯한 예배당을 마련해 포항지역의 탈북민 교회사역의 대모로 지역교계와 한국교회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교계의 도움으로 승합차량도 새 차를 기증받았다고 한다.

2016년 정초에는 3주년 감사예배가 아름다운교회에서 드려졌는데 기독교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의 소개로 탤런트 이영후 장로를 강사로 초빙해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굿뉴스울산은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발행인 이금희 목사는 빛을 내가면서까지 이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6일에는 굿뉴스울산에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교계에 지대한 헌신을 하며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명망 있는 장현서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서울산순복음교회에서 이사장 취임에

배를 개최했다. 장현서 이사장의 추대와 더불어 본지는 지면쇄신과 대판 12면 7000부를 매월 발행하면서 교계의 정론지로서 발돋움해나가고 있다.

한편 굿뉴스울산은 홈페이지를 비롯한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사를 게재하고 공유하면서 복음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또한 1600여 개의 동영상에서는 교계행사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나 알찬 행사의 기사와 사진과 동영상도 탑재하며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굿뉴스울산 창간초기 부산 포도원교회를 담임하는 김문훈 목사는 짝 짜인 집회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1일과 2일 이틀 저녁 본지 초청 부흥성회를 인도하며 본지의 문서선교의 향해에 격려의 힘을 보태어주었다.

또 굿뉴스울산은 수 년 간 포항지역에 발행 때마다 발행인과 편집장이 취재차량으로 직접 1000부씩을 배부했다. 그것은 포항에서 시작된 언론인홀리클럽의 기사가 본지에 꾸준히 게재됐기 때문이었다. 인터넷판과 아울러 종이지면에도 언론인홀리클럽의 기사가 게재되었거니와 검색하면 수 천 건의 기사와 관련 사진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이금희 발행인과 박정관 편집장은 언론인홀리클럽 회원으로 등록해 정기총회와 월례회와 회원 산행 등 자체행사에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은 4년 간 문서선교의 현장에서 체득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축약해 책의 발간을 준비했고, 지금 원고를 쓰 나가고 있는 것이다.

창간 4주년 감사예배는 1월 7일 오후 6시 예문순복음교회를 빌려 백운학 기자의 사회로 미주신학교 한국분교장 오영석 목사가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마하나임 워십찬양단과 마라나타워십선교단이 천상의 춤사위를 봉헌했다. 축사는 장은옥 영남신학원울산분원장과 예문순복음교회 서정애 목사가 맡았고, 갈릴리교회 김형환 목사는 특송을 봉헌했고, 권혜진 권사는 시낭송으로 자리를 빛냈다. 배기용 사진부장은 사진촬영을 도왔고, 창우영상 이창우 대표는 영상촬영으로 협찬했다. 에바다농아교회 박종화 목사와 변애경 사모는 굿뉴스울산 23호에 게재된 성탄축하그림을 기증했다. 발행인 이금희 목사는 창간 4주년을 맞은 감사의 인사말을 남겼다. “지금껏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질 때 우상숭배척결 등 개인적인 성결이 우선됐고, 더불어 그들이 합심기도를 드릴 때 블레셋의 침략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도자 사무엘에게 믿음으로 의탁하자 하나님은 우레를 발해 블레셋에 혼란을 일으켰고, 블레셋이 어지럽게 도망가자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해 그들을 초토화시켰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웠고, 그 돌로 된 기념비를 에벤에셀 기념비라고 명명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굿뉴스울산은 여태껏 문서선교를 감당해 온 발자취가 에벤에셀의 기념비처럼 하나님께 가납되기를 희구한다. 오늘 드린 4주년감사예배 또한 그런 발자취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굿뉴스울산(기독신문) 장현서 이사장 취임사

낙타는 무거운 짐을 받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받는다고 한다.

이 종과 굿뉴스울산 임직원들은 항상 무릎 꿇는 자세로 열심을 다해서 교계에 관심 있는 신문,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신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은 70부터라고 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미 고인이 된 황수관 박사는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였지만...내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가며 왕성하게 주님 일에 매진했던 때가 60세에서 70세 사이가 아니던가 반추해본다. 개인적으로 명함에 다 채우지도 못할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굿뉴스울산 박정관 전도사를 만난 것도 4년이 넘었으며 만날 때마다 신문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하고 제의하였지만 번번이 거절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70세가 넘어서 큰 보탬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종교지도자나 교인들을 보면 어느 단체에 이름 석 자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든 이름을 올렸다면 속한 단체에 윤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본인도 현재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맡은 모든 사역은 후임자에

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역을 차츰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은혜(건강, 물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너는 주님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영광 돌린 제물이 있는가?' 자문자답하게 되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고,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 황수관 박사의 유지를 받은 기독교문화선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바람 전도축제에 일조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굿뉴스울산에 서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하며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소망이라면 굿뉴스울산이 장현서 장로가 이사장이 되고부터 더욱 왕성한 교계의 정론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신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문, 각 교계에서 관심을 갖는 신문, 우리교회에도 그 신문을 보내 달라는 신문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세상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떠한 일에도 독불장군은 없지 않은가. 반드시 상부상조하는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받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받는다고 한다. 이 종과 굿뉴스울산 임직원들은 항상 무릎 꿇는 자세로 열심을 다해서 교계에 관심 있는 신문,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신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굿뉴스울산 김문훈 목사 초청집회 (주후 2013년 4월 1일~2일)

부산 포도원 교회(예장 고신)를 담임하는 김문훈牧사는 은혜와 열정의 비전메이커로서 현재 그는 지구촌을 돌며 불확실성의 시대, 우울한 현대인과 성도들에게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부조리한 일상을 믿음으로 견어차라고 역설하며 생기 넘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는 수천명을 넘어 만 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의 담임 목회자이다.

또한 부흥사로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귀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그의 설교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잰 듯 이 시대의 정확한 실생활적 용어로 풀어내는 탁월함에서는 자타공인 따를 자가 없으며, 그 자신 스스로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자로서 역전승의 인생에 승부수를 걸라고 주문한다.

전능자의 위로의 손수건만이 인생의 눈물과 땀을 닦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고단한 삶에 희망의 무지개를 다시 그리게 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는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에서 부흥과 은혜의 발전소로서 포도원 교회를 롤모델로 제 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기 있는 부흥강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심방하듯 순회전도자로서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웠을 때의 초심과 부흥의 조건을 잃지 않으려고 지독할 만큼 애쓰고 있다.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거부하고 주 앞에서 닳아 없어지길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성경책 한 권과 함께 사명자의 길, 하늘의 부르심의 길을 걸으며 쓰임 받는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굿뉴스울산 창간 초기 김문훈 목사는 뽀뽀한 집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려 시간을 할애해 본지 초청집회를 다녀갔고, 미약한 시작에 창대하기를 기대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었다.)

박정관 기자



선암호수공원 호수교회 성탄트리

525 회개의 날 준비모임 현장, 수영로교회를 다녀와서

해운대성령대집회 준비모임의 현장, 수영로교회를 다녀와서란 제목으로 글을 쓰는 지금 새삼 만감의 교차를 경험한다. 딱 일 년 전 신문 창간 초기인 작년 주후 2013년 5월에 수영로교회 5층에서 거룩한 영적각성(The Great Awakening) 성회에 첫 발 들인 기억이 새롭다. 더불어 수많은 징검다리 모임이 시행될 때 되도록 현장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일전의 울산제일교회에서 개최된 바 있는 통회기도회 모임에도 이런 연유로 동참했고, 사진과 영상의 기록물을 홈페이지와 카페에 남겼었다.

특히 지난 달 4월의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린 목사장로 통회기도회는 아마 남은 생애에서 두고두고 잊을 수없는 뼈아픈 교훈과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4월 16일 바로 그날 부산으로 가는 도중 세월호 소식을 속보로 들었기 때문이다.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행사를 진행하는 홍보와 기도의 순서에서 “희생자가 없게 해 주시고 모두 무사 귀환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로 한국교회가 간절하고 절절하게 눈물 뿌려 드린 기도는 일체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 극악무도한 선장과 선원들이 살았고, 최초의 생존자들만 살아 돌아왔을 뿐이다.

어제 집회의 현장에서도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는 세월호의 침몰이 정확히 한 달이라고 계수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펼쳐지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침몰로 빗대 경고하며 강력한 회개의 권면을 펼쳤다. 필요적절한 지당한 말씀이고 작금 우리가 새겨야할 당연한 메시지였다.

“많이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회하는 진정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중요하다. 진심어린 회개의 자세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공화로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회개의 결실이 따라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각성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정직하지 못했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해야 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 불법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세월호 참사는 부정과 비리를 애써 무시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적당주의와 이기주의, 무사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구조의 현장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과 단체들의 보신주의와 함께 중구난방으로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말하기 답답한 이런 불편한 진실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환경과 너무 닮은꼴이지 않은가 말이다. 마치 쌍둥이처럼.

반세기 전 625 사변의 풍전등화 조국의 위기에서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이 금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다. 그 기도는 이 나라를 살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별거벗은 영혼으로 애오라지 기도하는 것뿐이다.

뉴스룸에서 박정관 기자

탤런트 이영후 장로, 울산에바다농아교회 간증집회

하나님께 감사, 강사에게 고마움 전한 성도들
변애경 사모, 손수 이영후 장로 캐리커처 선물

재작년 기독교문화선교회(서정형 대표) 주최로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와 서유석 집사의 집회가 부산 반여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배 전도사는 오전예배를 마치고 돌아갔고, 서 대표는 오후예배 집회의 강사 서유석 집사를 모시고 나타났다. 나는 목양실에서 담임목사와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서유석 집사의 사진 몇 컷을 찍었다.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과 기독교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는 그곳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약정서를 서로 교환하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작년 초 굿뉴스울산 3주년 창간감사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서정형 대표가 갑자기 내올(來蔚)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서 대표는 창간예배의 강사로 기독교문화선교회 강사를 제안하며 이영후 장로를 추천했다. 그런 인연이 깊어져 본지 장현서 이사장 또한 현재 기독교문화선교회의 강사로 추대됐다. 그래서 본지 취재팀과 창우영상 대표는 지난 번 안산에서 열린 장현서 장로 간증집회를 찾아 취재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굿뉴스울산 창간예배 강사로 왔던 이영후 장로는 따님께 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바 현재 시카고에서 방송출연과 더불어 미주 중앙일보 칼럼기고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는 안부인사편지를 적었고, 그것을 지역신문에 칼럼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 차에 장로님이 한국에 입국해 2월 5일 간증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영후 장로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63년 MBC 문화방송 성우로 출발, 196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백범 김구 역을 많이 연기했고, 1990년에 야망의 세월에서 현대의 왕회장 정주영을 맡아 울산과도 인연이 깊다. 또 기독교문화선교회 출범 초기부터 15년 간 강사진으로 활동한바 인생의 발자취와 연기생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왔다.

작년 창간예배를 다녀간 후 염려하며 늘 기도해주던 이영후 장로는 집회를 앞두고 시카고에서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런데 직접 내한해 울산에서 간증집회를 통한 은혜의 자리에서 뵈 수 있어 감사가 더해졌다.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드디어 2월 5일 주일 아침이 밝아 울산역에 마중을 나갔다.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한 후 곧바로 이영후 장로와 기독교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를 승용차로 모시고 오전 집회 장소인 울산에바다농아교회로 향하면서 그간의 소식을 환담으로 나누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짹’ 하고 나타나 반가운 소회를 표시하는 사이에 어느새 승용차는 교회에 닿았다.

울산에바다농아교회(중구 내항 10길 51)에서 박종화 목사와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한 후 드디어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됐다. 박종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예배에서 김은수 집사는 대표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영후 장로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라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에바다 찬양단은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를 수화찬송으로 봉헌했다. 또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정명희 청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위십찬양을, 신세희 선교무용단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위십찬양을 하늘제단에 아낌없이 봉헌했다.

박종화 목사는 “굿뉴스울산에서 이영후 장로 간증집회를 주선했을 때 처음에 놀랐다.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신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영후 장로는 단상에 나서서 “미국 시카고에 가서 기도할 때 굿뉴스울산 이금희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오늘 이 자리를 주선해 줄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나보다”라고 첫 일성을 뿜었다. 이 장로는 “내가 수많은 집회를 다녔지만 오늘 이 자리처럼 은혜로운 자리는 드물었다. 바벨탑 사건은 소통부재의 상징적 사건인데 오늘 이 곳에서 수화로 의사전달을 하지만 이곳에는 마음에서 마음이 통하는 참 행복한 자리인 것에 감사한다”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의 진리를

믿음이 어릴 때는 몰랐다. 살아감에 있어 온갖 직업이 있고 각양 모습으로 인생들이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행복한 어부라는 것을 알았다.”

이 장로는 간증을 이어갔다. “정주영 회장은 창조적 자화상을 그렸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정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세울 때 모두 안 된다고 손사래 칠 때 뒷면에 거북이가 새겨진 500백 원짜리 지폐를 갖고 이명박 사장을 데리고 영국에 갔다. 정 회장이 로이드 बैं크에 가서 신용장도 없이 돈을 빌릴 때 굉장히 힘들었고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를 찾아갔다. 큰 인물은 큰 사람을 알아보는 법, 마침내 정 회장은 오나시스에게 신용장을 받았다. 그래서 정 회장이 영국은행에서 용자를 받아 황무지 같은 현대중공업을 세웠고,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업 초기 일본기술자들의 기술 또한 4년 만에 마스터해서 독자적인 기술력도 확보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왕 회장처럼 창조적인 믿음과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선불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 장로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재능을 발견해 은사를 활용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편 장애인그림그리기대회 대상 경력의 변애경 사모는 손수그린 이영후 장로의 인물화를 증정했다. 이 장로는 변 사모의 그림선물에 “세상에...세상에...”하면서 감격스런 소회를 감추지 못했다. 빠듯한 일정임에도 변 사모는 이영후 장로의 캐리커처와 인물화 두 점

의 작품을 선물했고, 이영후 장로의 스케치에는 직접 사인을 받았다.
이영후 장로는 예배 후 매직으로 정성껏 자신의 사인과 “NOTHING
VENTURE, NOTHING WIN”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전부 모여 이영후 장로 초청간
증집회의 플래카드 아래서 기념촬영을 했다. 또 삼삼오오 가족 간, 동
료 간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그렇게 축복된 시간이 켜켜이 쌓여갔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편집장



간절곶 풍차

가수 장혜리 집사, 울산에바다농아교회 초청 사랑의 음악회

대중가수에서 명품 찬양가수로 거듭난 천상의 소리꾼 장혜리 집사
굴곡진 인생 여정, 진리 발견하고 어둠의 커튼 걷어낸 신앙고백을
진솔된 간증으로 남기며 찬양으로 성도들 위무(慰撫)하며 격려해

세상에 들리는 소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을 농인이
라 한다. 경북기독신문 울산 주재기자 시절부터 울산에바다농아교회
를 알게 됐으니 햇수로 5년여의 시간이 과거로 지난다. 굿뉴스울산을
창간하고 본지의 창간예배 때나 굵직한 기획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면
박종화 목사는 언제나 흔쾌히 우리와 협력하며 동행했다. 장애를 가지
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청인들보다 울산
에바다농아교회 박종화 목사의 믿음이 독실하며, 매사 부정적인 것보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려 있다. 이번 장혜리집사 초청 집회 사랑의
음악회도 그래서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

박종화 목사의 목회를 돕는 변애경 사모는 장애인 그림 그리기대회
에서 대상 및 동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변 사
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은사로 활용해 교회를 찾는 외부 방문
객들에게 그림을 증정해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건네는데 일

가견이 있다. 또한 이곳의 성도들도 각종예배와 주일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정성을 봉헌해 올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표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울산에바다농아교회에 4월 9일 주일을 맞아 천상의 소리꾼 찬양사역자 장혜리 집사가 나타났다. 장혜리 집사 내외는 박종화 목사가 인도하는 울산에바다농아교회의 주일예배를 위해 예배당에 들어섰다. 장 집사와 동행한 남편 고정훈 집사가 손수 운전해온 차량에는 마이크를 비롯한 음향장비들이 들어있고, 고 집사는 항상 집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아내를 위해 미리 준비를 마친다.

에바다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일예배를 봉헌해 올릴 차례가 돼 박종화 목사의 사회로 모든 사람들은 함께 묵상기도를 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찬양을 불렀다. 양승남 집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했다. 에바다성가대의 수화찬양에 이어 온양교회 김은희 집사(굿뉴스울산전속 워십단장)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워십찬양을 올려드렸다.

이제 대중가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소리꾼 찬양사역자 장혜리 집사가 등장할 차례가 됐다. 장 집사는 인사말에 이어 자신의 간증을 이어갔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세상에서 노래 불렀던 때는 인기와 명예가 중요했다. 그러나 혼자일 때는 외롭고 초라한 마음이 들었다. 자책과 비관이 심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마음이 아플 때 온 집안을 깜깜하게 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술에 잔뜩 취했었다.

마침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될 그 찰나, 그 마지막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 장 집사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믿음생활을 시작, 이제는 낮고 소외된 곳을 찾아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믿음으로 어둠의 커튼을 찢히자 쏟아지는 햇볕 한 줌에도 감사하게 됐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사랑하기 위한 존재”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오늘 이곳에 오는 길, 벚꽃이 눈처럼 황홀하게 날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 저절로 찬양이 흘러 나왔다”고 했다.

장 집사는 ‘천 번을 불러도’를 첫 곡으로 찬양의 선율을 전했다. “네가 꽃보다 아름답다” “네 안에 나 있다”는 하나님의 속삭임도 나누었다. 세상의 돈, 노래, 명예, 인기는 사라졌으나 천상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며 매순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은 나의 힘, 자랑, 스포트라이트!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 전했다. 때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 실족하며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소생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울림도 전했다.

장 집사는 10여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여목사님이 있는 곳에 집회를 다녀왔다. 여 목사님은 계란 8개를 선물로 주었다. “기르는 닭이 하루 계란 2개씩을 낳아 10개를 채워 전해주고 싶었지만 두 개가 모자란다”며 계란을 건넸다고 한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다. 그 감사의 눈물... 집에 돌아와 계란 하나씩을 아껴 먹으며 극진한 감사를 드린 일화를 말했다.

장 집사는 ‘예수가 좋다오’ ‘나의 남은 생애는’을 들려줬고 마지막으로 대중가수 시절 불렀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를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직전 선물증정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변애정 사모가 이번 집회 일정이 잡힌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성들여 손수 그린 그림이었다. 장혜리 집사의 캐리커처 한 점과 장혜리 고경훈 부부의 수채화 한 점이었는데 예상외의 선물에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물 받은 그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 집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일이 즐거운 기념촬영을 이어갔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영상촬영협찬-창우영상) 2017.4.9.



갈대바다(선암호수공원)

가수 김종찬 목사, 초청음악회, 산돌교회에서 열려

울산극동방송 게시판에서 가수 김종찬 목사 초청음악회가 산돌교회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돌교회 전화번호를 누르니 마침 문신효 담임목사가 전화를 받았고, 취재를 가겠다고 하니 흔쾌히 오라고 답했다. 울산 남구의 선암호수공원 초입에 위치한 산돌교회는 그림 속 풍경 같은 전원교회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으며, 이번 음악회는 두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베스트를 위해서 마련됐다.

이 날 주일 낮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새로 초청받아 오는 베스트를 위해서 성탄트리를 미리 설치해 저녁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성탄시즌을 알리며 운치를 더했다. 동절기를 맞아 황혼이 빠르고 6시 즈음이면 벌써 어두워지는데 7시가 가까워지자 교회 정문에는 삼삼오오 성도들과 초대받아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울리고 사람들은 계속 빈자리에 들어와 앉았다.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찰 즈음 문신효 목사가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사말을 전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마이크가 김종찬 목사에게 넘겨지자 김 목사는 먼저 인사말을 전했고, 이내 찬양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성도들도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합창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숲속음악회는 무르익어 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이 예배당 가득 들어찼고, 김 목사는 성도들 사이를 다니며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기도 하며, 작은 포옹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다. 음악회가 하프타임을 지날 무렵 그는 20여 분간 간증을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희로애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으며 절절한 신앙고백을 쏟아놓았다.

그는 가수로 데뷔하고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치며 화려한 조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가수 김종찬은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환호했다. 대단한 성공을 획득한 그는 유명해질수록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기에 골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업에 손을 댔고, 그것이 잘못돼 급기야 감옥까지 가게 됐다. 6개월간의 감방생활 속에 그는 처음에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땅을 쳤다.

단조롭고 답답한 일상 가운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유심히 자신을 살펴보던 교도관 한 사람은 개인 면담 시간에 차를 대접하며 신앙을 권유하자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책을 16번이나 정독하게 됐고, 서서히 신앙인으로 변모해갔다.

마침내 출소하게 된 그는 기도원에서 40일 작정 금식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기도원에 찾아가 30일간 금식기도를 드렸다. 애오라지 하늘만 바라보고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했던 그는 7년간의 신학공부를 통해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종, 목사의

이름을 얻게 됐다. 지금도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에게 쉬지 않고 콜을 해오지만 아예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고 한다.

하루 낮밤 와서 노래를 부르면 수천만 원의 개런티를 주겠다는 곳이 많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비록 그에 비하면 적은 사례이지만 교회의 행사는 모두 받아들여 바쁜 스케줄에도 분주하게 다닌다고 했다. 초청집회를 다닌 것만 벌써 5000번이나 계수할 만큼 그는 가수 김종찬이라는 자연인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세상의 것과 시시분분초초마다 과감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사역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는 오히려 참석자들에게 반문했다. 이런 절절한 간증을 쏟아놓고 부르는 그의 찬양에 함께 따라 부르는 성도들의 얼굴은 행복해보였다. 그리고 새로 온 베스트들도 나름 신앙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산돌교회에서 열린 가수 김종찬 목사 초청음악회는 그렇게 늦가을 주일 밤을 은혜로 물들이며 갈무리됐다. 한편 산돌교회는 이 날 새로 온 분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와 남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커피의 귀공자 블루마운틴 한 병씩을 선물해 들려 보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6.11.14.)

김정직 전도사 간증집회 탐방후기

(울산광역시매일 이금희 목사칼럼)

3월 29일 오후 2시, 울산남산교회(정동진 담임목사)에서 김정직 전도사 간증집회가 열려 탐방을 갔다. 김정직 전도사는 3남 2녀의 북한 출신으로 제법 번듯한 고위직이었지만 1996년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탈북했다고 한다. 그 당시 출근길 기차를 타러 가면 50미터 100미터를 두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군대는 최소한의 배급이 이뤄졌으나 그때는 군인들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급기야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담을 넘어 쌀이나 고추장 된장 등을 몰수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 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다. 김 전도사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전갈을 받고 면회를 갔다. 중국에 사업차 간다고 했던 부친은 그곳에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다. 보위부의 눈치를 보느라 면회 당시에는 상세한 말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크리스천이 돼 있었던 것이었다. 부친은 그 일 이후 곧바로 돌아가셨지만 시체도 돌려받지 못했다.

중국의 누구를 찾아가면 맡겨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은 결국 유언이 됐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돈을 찾아와서 요긴하게 쓰라는 목표로 김전도사는 중국에 가게 됐다. 아버지가 머물던 곳의 교회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들려준 뒤 당시로는 상당한 부친의 돈을 찾았지

만 공안에게 들켜 강제 복송된 뒤 감옥에 갇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김전도사는 다시 탈북해 중국에 갔다. 그곳에서 시골 외진 곳의 교회에 갔는데 그곳의 담당자가 포항 주찬양교회 이사랑 목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됐던 것이다. 이사랑 목사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분을 잘 모셔라. 그 분은 김익두 목사의 증손자니 귀한 분이다. 내가 곧 그곳으로 가겠다.” 얼마 후 이사랑 목사는 중국 현지에서 김전도사와 반갑게 조우했다. 그곳에서 하루 네 번 예배를 드리며 북한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 한다. 또 김전도사에게 신앙에 입문하게 하고 집중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김전도사는 어느 날 부친의 돈에 욕심난 사람이 중국 공안에게 아버지를 밀고한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항상 칼을 품고 다녔다.

김 전도사는 이사랑 목사의 집회 도중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제 때 당신의 증조부는 일찍이 사서삼경을 떼고 총명하여 수재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조실부모하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친구의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고, 자포자기 신세한탄에 술고래가 됐다. 김익두가 떴다하면 평양 장터가 시끄러웠다. 그렇게 망나니요 강패였는데 그 분이 선교사의 전도에 감화를 받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됐으며,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 일제 때 김익두 목사의 집회에는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자주 일어나 진짜인가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회자된다. 김정직씨 당신에게는 이처럼 증조부의 신앙이 흐르고 있고, 그 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예수를 잘 믿고 새사람이 돼

야 하지 않겠는가.” 김일성 숭배와 공산주의 북한의 세뇌교육으로 이런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던 김 전도사에게 이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개안(開眼)이었다. 그렇게 연결된 이사랑 목사와의 도움으로 김전도사는 남한에 들어오게 됐다고 지난날을 술회하며 간증했다. 김정직 전도사의 간증에는 ‘상처뿐인 영광’인 질곡의 현대사와 분단 상황의 아픈 현실이 오롯이 맨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나사렛 예수 기적

나사렛 예수
33년 생애동안
세 번의 부활

야이로의 어린 딸
라부의 외아들
죽은 나사로

죽음의 순간
생명의 순간
살아난 사람들.

불가능을 넘은 성취
나사렛 예수 기적

김기현 울산시장, 명사초청강연 취재현장

울산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주최 명사초청강연이 11월 29일 저녁 7시 30분 대암교회(배광식 담임목사) 3층 본당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후 3선의 국회의원을 거친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날 ‘시대정신, 공정과 소통 그리고 리더십’이란 제하(題下)의 강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는 SOC(사회간접자본)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썼고, 1980년대는 세계적인 추세가 방만한 중앙정부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은 민관협치로 흐름이 이어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가 현안을 처리할 때 각자의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공정한 법치주의라는 룰이 필요하고, 소통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으로서 발 벗고 나서고 노력해도 현장에서 나가보면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낀다.”

그는 시정의 에피소드 한 장면도 소개했다. “한번은 외부 시찰중일 때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시청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소동을 벌이던 사람이 나타나 직원들이 겨우 진정시켜 돌려보냈다. 그리

고 나중에 시장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독도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였다. ‘그것은 경북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항인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더니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강연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갈등도 하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며 마침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결국 정의로운 법질서가 우선되어야 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대정신의 수레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그는 또 정조의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이어가며 “정조는 원수였던 고모 화안옹주(和緩翁主)에게 노년에 사면해 은혜를 베풀었고, 심환지와 개인적으로 299통의 어찰(御札)을 주고받으며 정사를 논하기도 했다.”고 역사적 일화를 소개했다. 또 미국 대통령 링컨과 독재자 히틀러를 비교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적장까지 끌어안는 용단을 내려 통합의 지도자가 된 반면 히틀러는 독재자로 악명을 날리며 전쟁을 일으켜 독일패망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연의 말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정치적인 위기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고 권위를 아예 무시한다면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 다음 정권에서도 지도자의 리더십은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엄정히 물으면

서 최소한의 권위만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오늘의 현실도 진단했다.

그는 학창시절에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묵상했던 일화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든 상황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과거사의 장면도 애잔하게 추억한다고 했다. 사법고시를 치르면서 어려웠을 때 성경을 읽던 중 구약성경 욥기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성구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젊은 날 미래의 기로를 결정할 때 신학자가 될지 정치가가 될지를 놓고 고심하다가 존경받는 정치인을 꿈꾸어왔고, 이후 이 일에 일평생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면 시대의 부름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연을 갈무리했다. 안개 속 같은 어지러운 난국에 시의적절한 강연을 듣게 된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故 방지일 목사님을 추모하며

올해 초 1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호계교회 신년축복성회의 강사로 오셨던 방지일 목사님을 뵈었다. 103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와 지팡이를 의지한 채 강단에 올라서서 “자고로 신앙인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그리고 감사할 것 밖에 없다며 부르시던 찬송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 “참 아름다워라/주님의 세계는/저 솔로몬의 옷보다/더 고운 백합화/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내 아버지의 지으신/그 솜씨 깊도다.” 강단 모서리를 꼭 쥔 채 힘주어 설교하며 찬양하던 목사님의 모습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메라로 찍으며 필자는 남모를 행복감을 진득하게 맛보았다.

방 목사님은 서기 1911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방효원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극에 달할 무렵을 온몸으로 살았다. 부친으로부터 민족의 불운을 신앙으로 맞서야 이 땅의 광복과 번영이 주어지리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사셨다. 그 후 193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부친의 대를 이어 총회 파송 선교사로 중국 산둥으로 떠나 무려 21년간이나 선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어 엄청난 종교적 탄압을 가해오자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방 목사님은 유일하게 남아서 중국의 성도들과 고락을 함께 했다. 마침내 이 사실이 유엔에 알려졌다. 결국

유엔의 중재로 홍콩으로 추방, 1957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휴전을 맞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현장에서 방 목사님은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한국교계와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목회자의 삶을 충실하며 헌신적으로 사셨다. 1958년부터 1979년까지 영등포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했고 1979년 은퇴했다.

방 목사님은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을 찾아가며 복음전파에 매진하였다. 식민지배의 처참함과 전후세대 민족의 번영을 모두 목도했던 목사님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쳤다. “100년 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를 열 때마다 꼭 성경 통독 사경회를 열었다.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향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기도도, 설교도, 나눔도 성경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앙관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교계의 큰 어른이면서 한국교회 산 증인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이 10일 고대안 암병원에서 노환으로 소천했다. 장례예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주관 ‘한국기독교회장’으로 치러졌다.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다수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으며, 천국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경주했던 삶의 자세에 존경을 표했다. 유가족으로 홀로 생존해 있는 아들 방선주 박사는 인사자리에 나와 “일평생 목회자로 귀한 쓰임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장수의 축복을 더하시고 이제 편안히 하

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한다.”고 말했다. 130년 한국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을 이 늦가을에 애잔히 추념하면서.

뉴스룸에서 朴正寬 기자(2014. 10. 23. 울산제일일보 칼럼)

별

반짝인다고 다 별이 아니다.
구름에 가려져도
낮에 종재가 가려져도
별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별이다.
별은 애써 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지 않아도
별은 오늘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하늘의 뜻에 맡기고
사명이라 여기고
하늘에 궤적을 남긴다.

김영삼 前 대통령을 추념하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곧 앞둔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게 1994년이였다. 당시만 해도 대우가 괜찮았던 신문사 판촉요원들과 다방에 앉아있을 때였다. 텔레비전 화면에 속보라며 전하는 뉴스가 있었다. 그게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이였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조성되던 국면에 지미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었는데, 아쉽게도 불발되고 말았다. 그랬던 것이 이어져 차기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의 신문배달에 깊숙이 관여해 반 평생을 지나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군사정권부터 신문을 배달했으니 3김 시대의 배달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때는 나이가 적어서 기사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던 것이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가까우니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승부사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압박에도 23일간 죽음을 불사한 단식투쟁은 유명한 일화다. 그리고 군사정권에 이은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으로서 신한국 건설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과감한 개혁과 군부의 핵심세력 하나회를 해체하는 등 저력을 보였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참모들의 충

언에도 불구하고 소통령이라 불리던 아들 김현철을 너무 두둔해 화를 키운 것이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잘못됐다기보다 아들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전철이 반복되는 것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에 신뢰의 관계가 돈독한데서 비롯된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의 형, 이명박 대통령의 형들이 그런 예일 것이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는 가랑비에 옷젖듯 알게 모르게 독버섯처럼 은연중 자라나 한순간에 터지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시절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일필휘지의 붓글씨를 적었을 때 휘둥그레 놀라면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3김시대의 김종필 전 총리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으로 신한국 건설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문민정부의 첫 수혜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고를 접한다. 대도무문의 끝에서 영생의 길에 접어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잔히 추념한다.

박정관 기자

역사는 흐른다

(울산제일일보 칼럼)

중앙일보에 한국 근현대사를 멋진 필치로 선보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이부답(笑而不答)' 회고록 연재가 끝났다. 일전에 구순의 생일을 맞은 노정객의 '소이부답' 시리즈에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포성이 지축을 뒤흔드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정보장교로 활동하면서 '큰 일 났구나'를 직감하는 그의 뇌리에 파고든 판단은 정확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거치며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좌우익의 이념대립은 결국 6.25사변이란 파국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전후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사혁명을 결단한다. 역사의 판단은 군사 쿠데타로 규정됐지만 그 거사가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로 남겨지게 됐다.

또 그의 서술은 이어진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저격사건이 전개된다. 서울 한복판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 도중에 문세광이 쏜 총탄에 피격당한 것이다. 그의 총탄은 박 대통령을 노렸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대통령의 슬픔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조국 근대화의 기치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최측근에 의해 대통령은 생의 결말에 다다른다. 예고도 없던 일이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처럼 역사는 대하드라마로 전개되며 파란만장하게 흐른다. JP는 김대중 납치 암살사건을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후락 전 정보부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증언했다. 매스컴에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의 진실이었다. 3김으로 불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정(聯政)을 펼쳤던 그는 과거의 빚진 시간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화해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에게 박 전 대통령의 소개로 60년 동안 같이했던 부인과의 사별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

작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문하면서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꼭 그 러진 채 묵념하는 JP의 사진 한 장의 무게는 다 헤아릴 수 없이 진중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꼭 들어맞았다. 3김 시대는 막을 내려가지만 그만큼 격동의 세월 앞에 그 만큼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어릴 때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와 월간지의 단골메뉴였던 3김 시대가 서서히 이율고 있으니, 역사의 물결은 도도히 흐른다.

YS의 집권시절,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이 신문에 대서특필 돼 전국이 떠들썩하고 부산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김일성의 사망소식에 모두 김이 빠지고 말았다. 그 후 신문 1면에 광고도 없이 통으로 기사가 나간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편으로 남겨졌다. 그때 두 사람의 얼싸안음에 곧

통일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흥분하고 난리가 났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단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증오와 대결로만 치닫고 있었는데 수십 년 만에 두 지도자의 극적인 상봉과 포옹에 이산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이 평화통일의 도래를 바랐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시절,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정상회담도 극적이었지만 긴장감은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정상회담 한번으로 골이 깊은 남북한의 존망이 걸린 대치를 단번에 해소할 수 없다는 학습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김정은이 지시한바 그저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전개됐다. 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응했다. 휴전선에는 대북확성기도 다시 등장했다. 역사는 흐른다. 다시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를 기억하자. 특히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문단속을 든든히 잘 해야 할 때다.

박정관 기자

굿뉴스울산 창간일지

(언약의 교회 7년간의 여정)

작금 대한민국의 정서는 개척교회로서 10년 버티기가 힘든 현실임을 두 눈으로 목도한다. 언약의 교회(대신 남서울노회) 이금희 목사 또한 개척교회의 척박한 한계를 이겨 나왔다. 남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꾸려왔지만 야곱의 인생 말년 고백처럼 쉬운 세월은 아니었다. 여성 목회자의 신분에 더하여 불편한 장애의 몸으로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 틀림없다. 특기할 것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데 끈질기다는 것과 충성하는 여종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구에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바로 주님께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온 결과이다. 결혼 가정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누님처럼 그들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목회자들에게 식사 대접한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가 총재였던 21세기 부흥협의회에서도 실무회장과 회계를 맡아 서울에 한 달 한번 이상 왕래하곤 했다. 서울 예고를 나와 음악과 악기에 능하며, 대구 계명대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 서울 강남신학교 신학연구원(M.Div)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언약의 교회 개척 7년의 스토리는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교회 문 닫고 목회를 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해도 결국 사명자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에는 마치 물같이 하듯 10여 명의 주일학생들과 10여 명의 청년들 또 한 모두 교회를 떠났다.

그 때 절친한 안집사로부터 전갈이 왔다. 여호수아 전도팀을 결성하여 개척교회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석하는 한신교회(기장)에서 전도특공대로 섬기며, 작년 3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언약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연합예배와 현장 전도로 섬기게 된 것이다. 그 즈음 주님은 작은 일への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케 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충성에는 반드시 상장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다.

전도팀이 왔을 때 언약의 교회는 새로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쇄소 사장님은 친구를 소개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기증받게 해 주었다. 회사에 납품하는 것인데 겨울잠바 352벌과 겨울조끼 170벌을 기증받게 되었다. 그 의류를 곳곳에 나누어 주었다. 울산의 노숙자 사역 목사님 20벌, 국민일보 대구지사와 부산지사 각 30벌,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20벌, 주찬양 교회 20벌, 영광교회 30벌, 부산동구 장애인 협회 30벌, 기타 등등.....

그래서 선행기사 보도를 요청했지만 일반 신문과 기독교 매체로부터도 거절을 당했다. 그때 대구경북기독신문 배운길 사장에게 연락이 닿

았다. 자초지종의 설명들은 바 그대로 기사화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신문의 울산 지면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10개월 가까이 그 신문의 울산취재본부 기자로 일한 사람이 본지의 편집총괄국장인 박정관 기자이며, 이금희 목사는 그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글을 써왔다. 개척교회의 현실에서 매월 100만원 넘게 문서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끝을 알고 싶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의 손에 배부된 굿뉴스 울산이 그것이다. 개척교회를 통한 기독교 매체의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박정관 기자



경주 황성공원 후투티의 눈물겨운 모성애

애완견 해피와 봄이와 겨울이

댄스그룹 클론의 구준엽과 강원래는 끈끈한 우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강원래는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됐다. 춤도 노래도 할 수 없는 댄스가수의 처지가 어떨겠는가. 강원래는 자살까지 결심하고 힘든 세월도 보냈지만 김송이라는 좋은 아내를 만나 극적으로 재기하게 됐다. 지난 번 TV에 출연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다. 10여년 키워왔고 함께했던 애완견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마지막 이별여행을 하는 동안 강아지는 병들어 죽고 말았다. 애완견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가족이라도 죽은 듯 어지간히 눈물을 쏟았다.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절망의 나락에서 따뜻한 시선과 귀여운 몸짓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음이 틀림없으리라. 그 눈물의 의미는 이별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추념의 뜻이리라. 누구보다도 난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나도 해피와 그 동생 봄이와 겨울이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한 세월이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귀여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동이일보 복산지국장에게 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문 배달 업무와 수금, 판촉이 지국장의 역할이다. 그러다보니 부지런히 구역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터인데, 어느 날 동네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했다. “어이 지국장 양반,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가져가서 키우시게 나. 이번에 새끼를 네 마리나 낳았네 그려.” 그래서 분양받은 강아지에게 정성을 들이게 되었다. 이름은 그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소문난 7

공주'에서 따온 땡칠이로 정했다. 제법 자란 땡칠이는 어느 날부터 지국장의 새벽 배달 길에 동반자가 되었다. 몇 달 지나자 영특한 땡칠이는 지국장 보다 앞서 나아갔다. 신문 구독자의 대문 앞에서 빨리 신문을 넣어주라는 신호였다. 땡칠이는 그렇게 복산동, 반구동 일대의 지리를 네비게이션처럼 숙지하게 되었다. 땡칠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였다. 애인(?)이 무려 열 마리에 이르렀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땡칠이의 배가 불러왔다. 눈 맞은 애인과 사랑을 나눈 결과였다. 두 달 지나 땡칠이의 해산이 다가왔고, 지국장은 신문과 담요를 깔아주고 오토바이 안전모에 땡칠이 새끼들을 담아 두었다. 젖을 땔 무렵부터 한 마리씩 나눠줘 결국 땡칠이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땡칠이는 임신과 해산을 거듭해 새끼들의 총합이 30마리가 넘게 된 사연을 들었다.

하루는 커피를 마시러 자주 드나들던 그 곳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다. 새끼 여러 마리 중 그놈만 눈에 속 들어왔다. 그 강아지를 분양받아 이름을 해피로 정하고 친해졌다. 샴푸로 자주 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피부병이 생겨 동물병원에 간 일, 엄마 땡칠이랑 같이 묶어두고 외출했다오니 두 세 시간 줄에 꼬꼬 다리가 묶였던 해프닝, 정자 바닷가와 선암호수공원 산책했던 추억들도 아련히 떠오르는 오늘이다. 해피는 집 옆의 공원에 놀러오는 아이들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피라고 이름 지었는데, 해피는 6개월의 짧은 호흡을 끝으로 삶을 마감했다. 한동안 해피 생각에 많이 우울해 있던 차에 지국장은 땡칠이를 부탁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국을 넘기고 가게 되었으

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땡칠이와 함께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땡칠이가 또 임신을 해 버렸다. 그렇게 만나게 된 강아지들이 바로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문제는 도시주변 환경이다. 마당 넓은 시골집이 아닌 다음에야 강아지 몇 마리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수 없이 지인의 손에 부탁해 땡칠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사계절의 이름을 딴 강아지들도 커갈수록 감당이 어려웠다. 만이 여름이는 성격이 착하고 겁이 많았다. 잘 생긴 그 녀석을 기르고 싶었지만 분양받는 사람이 하도 졸라서 부득이 헤어지게 됐고, 암컷 가을이는 정들 틈도 없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남겨진 두 마리 강아지가 봄이 · 겨울이다. 그 녀석들과 어느덧 10년 세월을 함께했다. 녀석들은 주인이 외출준비만 해도 금세 시무룩한 표정이고, 귀가하는 발소리만 들려도 반갑다고 킁킁 짓고 난리브루스를 추어대니 어찌 반기지 않을 텐가. 쓰다듬어주는 손길 한 번에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한 녀석들,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이란 이름을 넘어 반려견(伴侶犬)이라 부르나보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

이기풍 선교기념관 탐방후기

3박4일 제주도 여행과 선교기념관 탐방후기

난생처음 제주도 땅을 밟았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다소 급하게 3박 4일 일정으로 꾸려졌다. 그 과정에서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정보라 당황했다. 울산공항에서 직항으로 제주도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한 주에 3일만 운항한다는 것도 알았고, 비수기라도 며칠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가대교를 둘러보고, 통영의 동피랑을 거쳐 전주한옥 마을로 자동차로 일주하는 계획이었는데 필자를 잘 아는 측근 한 사람은 “그렇게 가고 싶던 제주도를 이참에 꼭 다녀와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변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3박 4일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게 됐던바 직항로가 없어 예상치 못했던 하루치의 손실분은 을숙도생태공원과 부산 감천문화마을 탐방과 자갈치 시장에서 곰장어양념구이를 저녁으로 먹으며 메꾸었다. 울산과 가까운 거리의 부산이어서 평소 친숙했지만 일박하면서 바라본 부산의 바닷가야경은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와 느낌이 색달랐다.

김해공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아직 두터운 외투가 필요했고, 승용차도 히터를 켜야 했다. 공항 인근의 도로변으로 막 피어나는 목련은 이제 개화해서 절정으로 치달으며 만개할

것이다. 오전 6시인데도 공항 주차장은 빈자리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공항에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타고 가는 승객들로 붐비었다. 모든 수속을 끝내고 일행과 함께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자 곧이어 미니어처처럼 작게 보이는 거가대교가 스쳐 지났고, 다도해의 섬들이 보였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지나며 한 시간을 비행 후 제주공항에 안착했다.

제주도를 가는 우리 일행은 이기풍선교기념관이 취재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자유여행이었다. 미리 취재한다고 알리지 않았어도 20여 년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무국장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에 차라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고, 기념관을 둘러보며 취재거리를 만들었다. 현장탐방의 장점은 아무리 인터넷으로 검색해 뒤져보고 책을 봐도 몰랐거나 놓쳤던 자료를 수북이 채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코스 중에 고운 모래알 입자를 자랑하며 고즈넉한 이호테우해변 풍경도 좋았거니와 그 곳을 조금 지나 제주극동방송국을 끼고도는 애월해변도로의 풍경이 압권이었다. 그래서 “제주도, 제주도!”라 하는구나 싶었다. 제주도의 특징은 화산폭발로 검은 현무암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것이고 바람 많고 날씨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연적인 배경 속에 애월해변을 끼고 수년 전부터 조성된 커피숍들은 천양지차로 건축물의 모습이 달라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 상권의 횃집을 비롯한 식당가와 호텔들과 펜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도로와 연하는 자전거 길도 잘 조성돼 외국인 연인들도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여행의 낭만을 즐기는 중이었고, 엄마와 함께 무개차 스포츠카를 타고 나온 딸도 도로를 신나게 질주했다.

바람 많은 제주 바다는 푸른빛이 독특했다. 필자는 울산이 고향이라 바다의 풍경은 수도 없이 봐왔지만 바닷물이 맑고 투명하고 푸른 색깔이었다. 서해바다보다는 이곳이 너무 좋다는 관광객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또 애월읍에 있는 괭지과물해변도 절경이었고, 그곳의 한 커피숍은 안산인해를 이루었다. 필자가 빌린 렌트가 업체의 책자에 실린 할인쿠폰은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아쉬웠지만 갯 구운 향긋한 빵 맛을 제공하는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제주특산품 한라봉으로 만든 주스는 신선한 맛이 일품이었다. 그 좋은 해안풍경을 배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일대기와 선교기념관〉

다음날 날이 밝자 우리는 이기풍 목사 선교기념관을 찾아갔다. 이기풍 목사의 출생 시기는 약간 엇갈려 1865년인지 1868년 정확하지 않다. 그는 어릴 때 명민했고, 한학에 뛰어났지만 외세의 침략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기풍은 마펏(마포삼열, Samuel Austin Moffet) 선교사의 집에 몰래 불량배들을 끌고 가 돌덩이를 투척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마펏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울분에 차서 돌을 쥐고 턱을 정통으로 가격하고 출행량쳤다.

이기풍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원산으로 피난을 했다. 원산에서도

그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등 못된 짓을 골라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 의 은혜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스왈렌 선교사를 통해 1894년 기독교에 입교했고, 후에 마펏 선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 그 후 그는 마펏 선교사의 권유로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그가 졸업하던 해에 독노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서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송린서 등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졸업 후 이기풍牧사는 총회선교회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기풍 목사가 목숨을 걸고 들어간 당시의 제주도는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지역주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기도로 복음을 전했고, 그 헌신의 열매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제주,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의 교인은 410명, 예배당 3개, 기도회 처소가 5곳, 매주 모이는 남녀가 3백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는 모두가 이기풍 목사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였다. 그 후 1918년 광주 북문안교회(北門內敎會) 초대목사로 부임했고, 1920년 전라노회장, 장로회총회 부회장, 그 다음해 총회장에 피선되었다. 2년간의 병고로 휴양한 다음 1923년 전라남도 순천교회, 1924년 고흥교회, 1927년 다시 제주도 성내교회에서, 1934년에는 일흔의 나이에 여수의 남면 우학리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의 말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되어 (1938년) 심한 고문을 당하고 보석되었으나 후유증으로 1942년 6월 20일 우학리교회에서 별세하였다. 1994년에는 제주 성안교회에 이기풍 목사 선교기념비가, 1998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이기풍 목사 선교기념관이 세워졌다.

제주도는 거대한 섬으로 천혜의 자연적인 경치를 자랑한다. 용암분출로 새까만 현무암이 지천에 널려 있고, 바다를 끼고 있어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고, 관광지로 개발돼 탁월한 여행지임에 틀림없다. 중국 사람들도 제주에 관심이 많아 땅을 많이 사들이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눈이 아니라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의 순교신앙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술꾼이 지나간 자리는 역한 술 냄새가 나지만 전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교회가 생긴다. 짧은 제주여행을 다녀오며 100년 전의 사람, 이기풍 목사를 존경하며 추념하는 글을 쓴다. 이기풍 선교기념관 064)782-6969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7. 4. 20.)

새끼 고양이 미미(美美) 구조작전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도 다 있을까. 지난 10월 3일 낮에 덕하 인근에 이사장 취임예배 초대장을 전하고 시내로 되돌아오는 길이였다. 마침 회사원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려 정체가 빚어졌고 덕하시장도로변도 막히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밀려든 차량들은 거북이걸음으로 엉금엉금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이렇게 차가 밀리는 좁은 도로 한 가운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차를 운전하던 전도사는 “목사님, 아무래도 저 녀석 그냥 두면 차에 치일 텐데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급히 내려 큰소리를 질러대며 길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더니 그 녀석은 차량 밑으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그런데 그 녀석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동안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차량을 몰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데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유난스레 이어졌다. 간헐적인 소리가 신경 쓰여 나가보면 소리는 그치고 안에 들어오면 다시 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몇 차례 고양이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한 뒤 마침내 차량 엔진 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

고 이내 우리 일행은 ‘고양이 구조작전’을 펼치게 됐다. 하지만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더니 필요한 장비가 없어 출동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에 전화해 출동을 요청했더니 “가만있으면 지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라고 했다. “타이어펑크 나서 접수하는 걸로 빨리 좀 와 달라. 아니면 출동 안했다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소연했더니 그제야 ‘곧바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사이 전도사가 도로 갓길 보도블록 위에 차량 두 바퀴를 걸쳐 놓고 비스듬한 차량 밑에 들어가 살펴봤지만 ‘야옹야옹’ 소리만 들리고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현장에 막 도착한 출동기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기사 아저씨도 “내가 지금껏 수많은 출동을 해 봤지만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차량정비소는 대부분 퇴근했을 시간이고 새끼고양이가 이 상태로 밤을 새면 자칫 생명을 잃지 않을까 걱정됐다. 이렇게 잠시 서로 머리를 맞대다 기사 아저씨가 보닛을 열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보닛을 열었더니 우측 비상등 바로 옆에 새끼고양이가 숨바꼭질하듯 꼭꼭 숨어있는 게 아닌가.

새끼 고양이는 아직 생후 두 달은 안 되고 겨우 한 달은 지난 것 같았다. 어미고양이가 도로에서 갑자기 사고로 죽어 혼자 도로 한 가운데서 서성거렸는지, 아니면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곁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 새끼 고양이는 비록 어려도 야성에

서 자란 상태인지라 자기방어 기세가 강했다. 조금만 위험성이 보여도 고양이가 특유의 경계소리를 내며 자그만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다음 날 마트에서 난생처음 고양이 사료와 고양이용 간식 캔 한 통을 구입했다. 아직은 어려서 사료를 부숴줘야 하고, 우유와 물과 간식을 챙겨줘야 한다. 이런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자 그 새끼 고양이는 이제 경계심을 많이 풀었다. 나는 조그만 요 녀석에게 미미(美美)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주었다. “좋은 친구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거라” 무릇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축복받은 존재가 아닐까.

첨언(添言)-그 후 한 달 동안 고양이 미미를 길러주다가 주홍가든이라는 웅촌의 오리전문점에 분양하게 됐고, 미미는 그곳에서 새 주인을 만나 잘 자라고 있다. 이제 어엿한 성묘(成猫)가 된 미미는 자유 시간에 마당을 활보하며,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금희 발행인

부모님 효도관광의 짧았던 하루

지난 1일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두 분 다 80세가 넘었는데 어머니는 평소 소식하는 식습관 덕분인지 그나마 건강하신 상태다. 아버지는 몇 가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울산 관광에 함께 나서게 되었다. 대구에서 울산은 지근거리라 연중행사로 가까운 곳을 관광차 바람을 식어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질 않아 두 분을 함께 모시는 기회가 잘 없었다.

그 날은 새벽부터 울산을 출발해 부리나케 대구에서 두 분을 모시고 와서 울산대교를 구경시켜드리고 장생포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함께 점심을 했다. 식후에는 장생포 옛마을을 쪽 둘러봤다. 70년대를 그대로 재현한 그곳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태화강 전망대에 들렀다.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을 굽어보며 카페에서 십리대밭을 배경으로 부모님 사진을 담고 차를 마시며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친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6.25사변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전장에 나섰었다. 그 당시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그림자처럼 늘 따라 다녔다고 한다. 1951년 5월 27일 육군 간부후보생 훈련을 시작으로 육군 항공대 조종사 11기를 수료했고, 육군 39사단 병기참모와 육군 8사단 병기참모, 백마부대로 유명한 육군 9사단 병기참모(중령)로 군무를 담

당했다.

월남참전 용사 대구지회장 시절 ‘월남참전 용사 기념행사’를 주최했던 부친의 기념사진에는 故 채명신 장군과 박세직 88올림픽조직위원장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함께 서 있다. 먹을 것도 없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군인들은 부국강병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는 사실만은 젊은 세대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부친은 이제 위암과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여러 병명을 전리품처럼 지니고 있는 86세의 노병이 돼버렸다.

군생활을 오래하신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20여 차례 이사를 다니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깊은 우물을 길으려면 스무 번이나 줄을 당겨야 겨우 한 바가지 얻었다고 푸념하면서도 아련한 추억이 그리운 표정이다. 또 아버지의 잦은 전출은 어머니의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를 남긴 눈치다. 낯선 곳에 찾아와 사람들을 사귀고 이제 정들만 하면 떠나야 하니 정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어머니, 중국에는 물건에 집착하는 몸에 밴 습관이 생겨버렸다.

예쁜 옷은 물론이거니와 핸드백이나 지갑, 액세서리 같은 것에 아주 관심이 크다. 어머니 방에는 갖가지 색깔의 의류가 한 방 가득 차지해 연예인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이제 그 어머니도 고령이 돼 치매 초기 증세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어떤 날은 반나절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웃이 물어보니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자존심이 세서 남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부친은 군대에서 운전 배워 55년간이나 운전을 했던 베테랑이다.

전후 지프차를 타고 집에 올 때면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많이 태워드렸다고 한다. 그 부친이 몇 년 전 운전이 서툴러 다른 운전자에게 엄청난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만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숙하던 습관이 하나씩 사라질 때의 상실감을 어찌 다 표현하랴.

사실 6년 전만 해도 두 분은 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일 20여 명의 국밥까지 직접 사가지고 고속버스 편으로 울산까지 가지고 왔던 전례도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을 필요 없이 다녔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TV프로그램 제목처럼 인생이란 강물을 흘러가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 참 살아가는 것 별짓 없다는 거다. 인생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묘사됐는데 어찌 그리 정확한지. 쓸쓸함과 우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오죽하면 온갖 부귀영화의 절정을 맛봤던 솔로몬도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는 헛된 바람 잡는 것이 인생이라 비탄했을까.

어린 시절 부모님은 존재만으로도 뿌리 깊었던 얼마나 큰 나무였는가. 바람 불면 숨을 수 있고, 비 오면 가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노년의 두 분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하루 날 잡아 함께 여행하는 동안 진한 가족애를 느끼며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계기가 됐다.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2015.7.15.)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탐방후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미국 포드사와 제휴를 맺을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 계약조건을 파기하려 했다. 그때 포드사에서는 ‘우리 와 계약해서 겨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텐데 독자적으로 자체생산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왕 회장이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결심했고 담당자에게 지시했을 때 당사자는 안주머니에 항상 사직서를 넣어 다녀야 할 만큼 지난한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현대자동차는 마침내 1976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생산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886년 독일의 카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내연기관이 달린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고, 1895년에는 프랑스의 미쉐린 형제가 공기압 타이어를 발명해 편안한 승차감과 일정속도 확보 및 정비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다. 또 1908년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생산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런 환경은 자동차 생산 방식의 일대전환을 가져왔고, 근대적 자동차의 탄생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예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봉화를 피어 올렸고, 파발마를 띄워 전령이 급한 소식을 알렸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나 전보를 통해 속보를 알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의 개막으로 속보경쟁은 무의미해졌고, 대신 보안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

차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이어졌다. 언감생심 일반 사람들은 소유는커녕 타보지도 못했던 자가용은 대량생산으로 인해 이제 극빈층이 아닌 경우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자동차 메이커가 생겨났고, 독자생산이나 외국 업체와의 제휴를 비롯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일전에 3박4일의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다녀왔고, 렌터카를 빌려 이곳저곳 둘러봤다. 그때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네거리에 위치한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2008년 4월 개관한 자동차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최남단 환상의 섬 마라도가 한 눈에 펼쳐지는 이색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시아 최초의 개인소장 박물관이라는 것이다. 30년 넘게 사업일선에 있었던 김영락 회장은 해외여행을 할 때 미국 비행기박물관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60년 넘어서야 구경하는 것을 6살 어린이가 직접 구경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2002년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기획 및 자동차 수집에 들어갔고, 2008년 4월 개관하게 됐다. 세계의 명차를 수집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기념물로 전시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될 것이라는 말에 소유주들이 공감해줬다고 한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동차를 들여와 자체 정비소에서 수개월 간 정비를 하고 새로 꾸며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다. 이곳에는 이런 과정을 거친 벤츠, 폭스바겐, 포드, 롤스로이스, 페라리, 올즈

모빌,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등 세계적인 클래식카 90여대가 전시돼 있다. 또 어린이들이 직접 시운전을 해볼 수 있는 미니 자동차 체험관과 전 세계의 모형 미니카를 구입할 수 있는 자체매장과 커피숍도 마련돼 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자동차는 이제 이곳에서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역사의 상징으로 남아 기념되어지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길에서 대나무처럼 매듭을 짓는 일이라면 이것이 인생의 황혼녘에서 마지막 매듭일 것이라는 김영락 회장. 그의 소신이 담겨있는 제주자동차박물관은 ‘인생이라는 길 위의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슨 의미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울산광역매일 박정관 칼럼(2017. 3. 25.)



고래광장 뒤로 울산대교 주탑이 보인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탐방후기

(한국관광 100선 선정)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다녀왔다. 이곳은 ‘2017년 한국관광 100선’에 통영을 대표하는 곳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곳이다. ‘동피랑’이라는 말은 동쪽에 난 비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벽화마을 맨 위 꼭대기에 올라가면 파수를 담당했던 동포루가 발견돼 복원돼 있어 저만치 아래의 강구안과 중앙시장을 굽어보고 있다.

강구안은 바다가 육지까지 들어온 것을 말하는바 강구안에는 한산대첩의 전승지 통영을 기리는 세 척의 거북선들이 도열해 있으며 승선체험도 할 수 있다. 동피랑은 한때 동포루의 복원과 공원조성사업으로 철거될 낙후지역이었지만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 재생사업으로 마침내 벽화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그려진 그림들과 강구안 풍경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시의 명소가 되었고, 2008 민관포럼 최우수상, 2008전국 마을만들기 대회 우수상 등을 받았다.

옛날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담장을 쌓았던 돌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망루에 서면 충무공 이순신과 그 시대 사람들의 충성스런 기개가 짐작이 된다. 동포루 바로 아래의 카페에 들어서면 벽화마을의 생생한 산 증인인 주인아주머니가 맛있는 커피를 타주며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11년 전에 허물어져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그

림이 그려져 벽화가 좋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벽화마을이 됐지. 이 가게도 지붕을 고쳐 가게를 꾸려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수입이 생기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 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지.”

커피숍에 같이 들어선 포토샵에는 휴대폰으로 벽화그림에서 찍은 사진을 소나무 액자에 바로 인화해 기념품을 만들어준다. 젊은 사장님은 “지금도 서울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두 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현상해주는데 주말에는 엄청 바쁘다”고 말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골목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2년마다 그림들은 새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다.

동피랑 벽화마을과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특징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풍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의 소외된 곳이었지만 그것이 도로 방문객들에게는 정감어린 풍경이라는 장점으로 다가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들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협조도 지대하다. 벽화마을 곳곳에는 “이곳은 현지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자”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필자도 동행한 지인들과 사진을 찍을 때 “아이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노. 사진을 하도 찍어대니 길을 다닐 수가 없다 아이가.”하는 아저씨 한 분의 푸념을 들었다. 하긴 수많은 사람들은 잠시 좋다고 다녀가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외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박정관 기자

감천문화마을을 다녀와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은 벽화마을로 소문나 있다. 그래서 2017년 한국인이 꼭 찾아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있을 정도다. 사실 필자는 벽화마을로 소문나봐야 그 정도까지 유명하겠나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 그저께 우연히 부산을 방문했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곳을 탐방했다. 노을이 감천문화마을의 뒷산에 걸리는 석양 무렵이라 두 시간 남짓한 시간밖에는 둘러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괜한 허세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홍보가 돼야 하는바 필자가 느낀 소감은 이렇다.

먼저, 감천동은 도심의 외판 섬처럼 낙후된 이미지의 단점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어우러져 마천루가 들어서고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천동은 낙후됐고 개발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다. 더구나 차타고 올라가도 한참이나 올라가는 언덕 꼭대기의 마을이라 후졌고 도심의 빛바랜 얼굴이었다. 그러나 벽화마을로 거듭날 때 감천동의 이런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됐다. 도심 속의 외판 섬을 찾으러 작년 한 해 국내외에서 186만 명이나 찾았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벽화만 아니라 도심재생의 슬로건을 걸고 지자체와 주민협의회와 예술가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반영됐기 때문에 빛을 발했다. 낙후됐다는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된 좋은 사례이다.

둘째,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란 정서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테마파크나 명물거리처럼 인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삶의 발자취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고, 누군가의 표현처럼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문화마을 특유의 독특함을 보여준다. 감천문화마을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노고가 크다 하겠다. 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주차문제, 소음, 인산인해의 사람들을 헤치고 도로를 오가려면 주민들은 어찌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주민협의체와 더불어 공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작은 마을공동체가 전국의 관광명소가 됐다니 경하할 일임에 틀림없다.

셋째,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알찬 기획이 꾸려졌다는 것이다. 그저 단순히 벽화만 그려진 마을이 아니라 갖가지 공방이나 도자기나 만들기 체험에 직접 참여해 관심을 유도했다. 또 그림엽서의 경우 손글씨를 직접 써서 보내면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당시의 장면을 또 한 번 떠오르게 해준다. 게다가 갖가지 먹거리나 아기자기한 생활용품도 판매해 2~3만 원의 소액을 투자해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옥탑방카페와 옥상카페 등의 이름을 붙인 쉼터에서 커피와 음료를 마시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친구들의 칭찬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니 재미있는 탐방이 되는 것이다.

감천문화마을에서 바라보면 저만치 아래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의 경관이 운치가 있다. 마을 안 언덕배기에 어린왕자가 걸터앉아 항구를 바라보는 뒷모습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긴 줄을 서서 족히 30분은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온다. 필자가 짧은 시간에 감천문화마을을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울산에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꼭 한 번 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금희 발행인

주님 당신은

성하(盛夏)의 계절 불멸무더위 식혀주는
나뭇그늘로 당신을 오십니다.

욕망이 이글거리는 함옥의 도시
생명(生命)의 습터로 당신을 오십니다.

치치고 힘든 나그네 여정에
영원한 안식처 삼으라고

주님 당신은 오십니다.

욕망의 바벨탑 (발행인 칼럼)

구약성경의 목록에서 첫 번째로 창세기를 만나게 된다. 창세기 11장을 펼치면 무신론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이름은 바벨시티이며, 마천루가 하늘 뚫을 듯이 치솟아 오르고 있으니 그 거대한 탑이 바로 바벨탑이다. 휘황찬란한 건축물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모든 인생이 그 대단한 위세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신적 권능으로 그것을 모래성으로 바꾸어버렸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린 바벨탑의 사건이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바벨탑 사건은 무질서의 극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이 바벨시티를 여행한다면 이 욕망의 도시의 사람들 표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번득이는 눈빛은 마치 맹수의 그것과도 같아 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또 머릿속에 들어 있는 계산기의 빠른 연산으로 조금의 손해도 용납지 않고, 내 이익에는 당장에 목청 돋우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은 바쁘다는 핑계와 관망하는 태도로 애써 외면한다. 살아가는 데는 이 도시를 능가할 곳이 없다. 가장 빠른 뉴스가 생성되고, 신기술은 모두 이곳의 과학자와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 유통되는 첨단 도시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형태를 갖춘 곳이 이 바벨시티이며 그 군주의 이름은 니므롯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린 니므롯의 이름 뜻은 원어로 살피면 ‘난폭한 지배자’와 같은 말이다. 그는 사냥감만 잘 낚아채는 것만 아니라 인생들을 또한 그 사냥감으로 삼았던 독재자였다. 포악한 지배자 니므롯의 야망이 반영된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 곳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과거의 전무후무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 들어도 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무서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안전지대가 필요했다. 게다가 이왕지사 돈 조금 더 들여 자신들의 명성도 떨치고, 이름도 날릴 건축물을 만든다 하니 자신들의 욕망도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위세도 부릴 겸 십시일반 동참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 바벨시티가 왜 한순간 폐허로 변해버렸을까? 바벨시티는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됐고, 거대한 갈등의 요소가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가 판치는 도시였기에 파멸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꿈을 짓은 소통의 부재이다. 하나님께서 바벨시티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그들이 늘 쓰고 있는 일상의 용어를 혼잡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그들에게 첨단의 벽돌 굽는 기술도 소용없고, 찬란한 과학 기술도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만사가 불통하게 됐다. 이처럼 인간심리 밑바닥에 파리 틀고 있는 서로간의 양보하지 않는 탐욕과

욕망이 무서운 것이다. 그 칼날에 찢리면 견뎌낼 사람이 없게 된다. 개인·집단·국가끼리 탐욕의 바벨탑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하게 되는 것이다.

100년 전 일본은 한반도를 짓밟고, 군대를 동원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이 군국주의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 보이’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원자폭탄 투하가 서너 개였다면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한반도가 광복과 6.25전쟁을 겪는 동안 쓰러졌던 일본은 재빠르게 일어섰고 견고해졌다.

남북분단의 한반도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기국면인데도 국회는 정쟁으로 치닫고, 날선 이념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나라 곳곳에 넘쳐난다. 우리 안의 내분과 소통의 부재가 부르는 파열음으로 귀청이 따가울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비극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혼잡이라는 바벨의 벽돌을 쌓는 사람인지, 피스메이커가 되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지 조용히 자문해 볼 때다.

바이블탐험 (에덴동산)

1. 피조물의 으뜸

인생이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죽음으로 버려지는 일회용 삶이 아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낭비되는 삶이 아니다.

본연의 삶은 피조물의 의품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인생의 위치이며 좌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숙명이다.

2.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는 창조적 인간으로 지어졌다.

지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 쓰면 쇠망하고,

자유의지를 주님을 위해 쓰면 부흥한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며 역사의 증명이다.

3. 순종과 불순종

순종함으로 따르는 모든 축복을 내팽개치고

불순종을 선택한 그들에게 실락원의 드라마가 전개됐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다.

그들이 택한 불순종은 원죄가 됐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마귀의 하수인과 죄의 종이 됐고, 사망과 지옥을 불러들였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기되고, 둘째로 인간관계가 절단나버렸다.

4. 구원과 회복

두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에덴동산을 펼치셨다.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천국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덴동산이 회복된다.

에덴동산의 원형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획득된다.

에덴동산을 잃고 실락원의 비참한 처지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4:17)

복 있는 사람

(시편 1:1~6)

복 있는 사람은 사명(使命)의 사람이다. 복(福)이란 글자를 해자(解字)하면 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즉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맡은 사명은 그 동산을 잘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지된 선악과를 명심해야 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 실낙원의 시간이 펼쳐지게 됐고, 그는 모든 축복을 잃게 됐다. 축복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으로 튕겨져 버렸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차단돼 버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합석하지 않는다. 그는 애오라지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읊조린다. 약을 삼키듯이 말씀을 삼켜 자기 영혼에 작용하게 한다. 그는 다윗처럼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분 위한 시어(詩語)를 고르며 행복한 봉헌(奉獻)을 올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함으로 사철 푸른 사람이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는 고진감래의 표상 요셉 같고, 생명보다 신앙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낮은 것 같지만 높으며, 멍청한듯하지만 가장 지혜롭다. 악인들은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혹 날아가고 만다. 곧 들이닥치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악인들은 망하는 것이 필연이고 망하는 운명으로 정해졌다.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찬연히 운행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은 한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으로써 귀하다. 그보다 귀한 것은 사명의 삶으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은 주님의 입술의 증언이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 인생 본연의 임무이고 사명이니 않은가.



경주 엑스포공원 야생화

바이블탐험

(엘리아의 하나님, 열왕기상 18:30~40)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아는 탁월한 영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살아간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내려간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활하며 살아간다. 그 후 시돈 땅으로 내려가서 과부의 마지막 한 끼를 내놓으라고 요청한다. 과부는 마지막 끼니를 선지자를 위해 내놓게 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다. 그녀를 비롯한 식구들과 엘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찬을 흥년이 끝나고 비가 오기까지 계속 먹게 된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로 아이를 다시 살릴 만큼 하나님의 신임을 얻던 예언자였다.

B,C 9세기 솔로몬 왕의 성전건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은 최고를 구가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0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극치를 이룬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심한 우상숭배를 거국적이며 공개적으로 자행했다. 그의 아내 왕후 이세벨은 영적으로 가장 악독한 왕후로서 살았을 때는 가장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우상숭배를 대놓고 저질렀다. 그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 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참 신이 누구인가를 놓고 엘리아와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공개적인 대결을 벌인다.

엘리아는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찬연한 태양처럼 빛나는 여호와와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일뿐이다. 너희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언제까지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대느냐? 참 신을 따를지니 불로 응답하신 아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엘리아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친 엘리아에게 로렘나무라는 쉼을 제공하시며 다시 사역하게 하시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꽃향기처럼 좋으신 분이시다. 그가 다시 힘내어 사역하고 다음세대를 잇는 엘리사에게 후계를 물려주는데 하나님은 엘리아를 아끼셔서 그에게는 죽음조차 건너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이블탐험 고레스황제(Cyrus 皇帝)

고레스(Cyrus, B.C.559~530년) 황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을 무찌르고 자신을 해방자로 자처했다. 그는 바벨론에 남겨두었던 신상들을 원래 있던 성읍들로 되돌려 보냈으며, 포로 된 사람들을 귀향시키는 박애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권면했다.(에스라1장 1절~6절)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구와 의논하거나 책사의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은 전능자시며, 절대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을 사용해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택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며, 그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에스라서를 펼쳐보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없는 것 같은 현실의 전개다.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멸문지화를 당해 고국을 떠나 천리타향에 내팽개쳐져 있으며,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을 쓸쓸히 지키는 사람은 노숙자들 수준이다. 그 땅을 점령한 이방인들은 자기들 배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며, 풍찬노숙 하는 유대의 남은 자들은 자기들 앞가림하기에도 벅찰 지경이다.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으로서는 끝장 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신다. 그 뿐 아니라 전세를 일순간에 역전시키신다. 그 책임을 맡은 자는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이방인 고레스 왕이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우리는 끝장나도 하나님은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에스라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니며,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 분이 세우신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며, 드라마틱한 스토리인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할 뿐이다.

둘째로 70년의 시간을 살펴보자. 그 시간의 분량은 허탄한 우상숭배의 거품이 빠지고, 깎스한 교만한 목을 치료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과 후손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며, 숨죽여 찬송하며, 남 몰래 울며 기도한 세월이다. 그들이 심취했던 우상은 전연 도움과 구원을 주지 못하며,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돕지 못했다. 예술·철학·사상·금전 등 그들이 추구하고 소유했던 어떤 것도 소용없었다.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임을 깨닫는데 7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찾을 분도, 구할 분도, 섬겨야 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절절히 체험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

했고, 그 곳에서 후일을 도모했다. 그렇게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은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했다.

그는 긴 포로 생활의 유대인에게 귀환과 성전건축을 명령했다. 예물과 탈취한 금은보화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니 천사에 다름없지 않은가. 고레스 황제가 원했던 것은 기도였다. 축복이었다. 무사히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막는 자는 멸문시키라고 명령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황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던 것이다.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 대왕고래

바이블탐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본문-마가복음16:9~20

1. 막달라 마리아와 가롯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 안식 후 첫 날 이른 아침에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주검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으나 그녀가 만나 것은 주님의 부재였다. 마리아는 그때까지 부활을 까마득히 몰랐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다른 곳에 옮긴 줄 알았다. 그렇게 주님의 죽음은 마리아만 아니라 그 당시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존귀해지며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명의 초라한 여인네일뿐더러 귀신들려 인간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순수한 영혼이었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다. 그 사랑의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뵈게 한 것이었다. 반면, 12제자의 일원이었고 재정출납을 맡을 만큼 똑똑했던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다.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목메어죽는 자살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롯유다는 이미 죽은 뒤였다.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2. 주님의 꾸짖음

제자들은 여러 정황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완악한 심령으로 현실에 주저앉은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주님의 부재는 그들을 혼돈에 빠뜨리기 충분했으며, 그들은 이제 어찌할지 몰라 안절부절 해답 없는 인생이 돼 버렸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

3.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대단해도, 이쁘고 잘 생겨도, 젊다고 해도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 인생은 무력한 존재인 것이다.

부활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부활로 증명되고 남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며 절대적 복음인 것이다. 굿뉴스 메신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다.

바이블시론 「마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달콤함의 끝에 독약이 있고,
사탕발림 뒤엔 저주가 있다.

남 위하는 척 가식적 행동,
겸손한 척 하는 끝에 위선,
보암직, 먹음직, 듣직함의
선악과로 속인다.

보이스 피싱의 명수,
사망과 저주의 다른 이름,
마귀는 천사로 가장한다.
양의 탈 안에 이리가 숨어 있다.

원초적 악한 본능을
지독하게 추구한다.
사로잡히면 헤어 나올 수 없다.

무저갱으로 인생을 낚아채는데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푸줏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희망 없는 절망의 인생이 된다.

심판의 날 지옥 형벌 받는
가룟 유다의 판박이가 되고 만다.

성령의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

예수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분열과 영적무감각을
가장 아파한다.

썩은 씨앗, 돌밭의 씨앗이 아닌
겨자씨처럼 부흥 성장을 이룬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방황하는 영혼 잡아주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영이라
사랑과 겸손, 온유와 절제
은혜와 축복으로 이끈다.

미움과 저주 쏟던 입술이
남의 허물 덮어주고
찬송과 감사가 흐르게 한다.

한 달 다짐, 일 년 결단이 아닌
소명과 사명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 혼자 전하는
고독한 주자가 아니라
역사의 질주에서 믿음의 대물림 남기는 은혜의 증거자 되게 한다.

성령의 사람은
심판의 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에서
무궁한 영생의 꽃이 된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전리품 (굿뉴스울산 20호 편집후기)

커피믹서를 털어 넣은 노란 잔을 정수기에 들이대며 적당량의 온수를 채운다. 그리고 커피향을 음미하는 새벽 2시 20분, 또 하나의 편집후기를 기록한다. 이 잔은 6월 30일 포항울산고속도로 완전개통 첫 날 포항 홈플러스에서 사은품으로 얻은 것이다. 이제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이 성큼 가까워졌다. 지난 주 언론인홀리클럽 모임이 열린 포항중앙교회 까지 한 시간에 주파했다. 남포항으로 되돌아오는 길도 한결 수월했다.

5년 전 경북기독신문 울산주재기자로 활동하면서 수습기자 딱지를 뒀다. 일 년 정도 그 신문사에 근무하며 활동하니 수군대는 소리도 더러 들렸다. 개척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울산에서 경북지역의 신문을 취재하고 배부한다고 하릴없는 사람들의 수군대는 뒷말이 생겨난 모양이었다. 그 신문사에 일정 부분 지대를 감당하며 지면을 임대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한 달 한 번씩 발행될 때마다 꼬박꼬박 포항 본사에 가서 신문을 받아왔다.

터미널에서 택배로 받으면 오후에 찾을 수 있겠지만 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택배로 부치라고 말 한 적도 없었다. 그 신문의 2개 지면에 게재된 울산 기독교 소식에 감사하며 500부 가량 받

아왔다. 또 울산의 기사만 따로 추려 4000부 가량의 타블로이드 지면으로 인쇄했다. 개척교회 현실에서 매달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해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감당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꼭 채워질 무렵 굿뉴스울산을 자체 힘으로 창간하게 된 것이다.

나는 조선일보가 12면도 발행되지 않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달을 했다. 흰 비닐에 쌓인 신문다발을 뜯어내면 노란 포장지가 한 장씩 테두리에 둘러져 있었다. 그 포장지에 배달할 신문 부수를 세고는 옆구리에 꼭 끼운다. 그리고 야음시장 인근 지역을 새벽부터 배달했다. 그 당시 울산에서 석간으로 나오는 한국일보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3단 엔진의 88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사 총무를 하며 신문 일을 했다.

군대 가기 전 대림에서 나온 Citi 100을 타고 조선일보 총무 생활을 했고, 제대하고도 한 동안 총무생활을 했다.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문지면 내용을 내 머리 속에 입력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고 방송이라야 오후 6시부터 방송되던 시절이었다. 정보가 흔치 않던 시절 각 신문사마다 월간지 및 주간지 발행이 활발했었다.

그 후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판매팀에서 판촉사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했다. 그리고 국민일보 문서선교사로서 5년 정도 전국적으로 다니며 홍보활동을 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문지면 내용을 내 머리 속에 입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이신문 읽기

는 내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고 지식 축적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정보를 구하고 지식 쌓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든다. 우후죽순처럼 방송에서 영상이 넘쳐나고 인터넷을 떠도는 정보는 홍수를 이룬다.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정보를 선별하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럼에도 나는 몇 가지 종이신문을 구독하며 숙제를 하는 아이처럼 꾸준히 읽어내고 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도 신문읽기는 내공을 기르는 수련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런 내 나름의 노력들의 결실로 현재 굿뉴스울산 편집장의 직을 4년째 감당해오고 있다. 굿뉴스울산이 작은 매체임에도 남다른 부분이 있다. 발행인의 숨겨진 노력도 아직은 감춰진 보화처럼 묻혀 있다.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낼 시간임을 느끼며 원고를 준비해 오고 있다.

다윗이 거느린 식솔들만 3000여 명에 이르렀다. 사울 왕의 핍박으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이 더 미치지 못해 안심했지만 곧 그에게 더 큰 환란이 닥쳤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 적장의 장수가 되어 전투에 나섰으니 이 진퇴양난을 어찌 할 것인가.

다윗이 전쟁터의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자신들을 칠 것이라는

블레셋 내부의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 다윗은 겨우 고국과의 전투의 대열에서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설상가상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들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됐다.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과 가축을 모조리 끌고 간 황무지를 보고 악독한 사람들이 다윗의 목을 베라는 긴박한 순간을 연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600 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전을 벌였다. 피곤에 지쳐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200명에게 소유물을 맡기고 나머지는 발 빠르게 나아갔다. 마침 병 걸려 버려진 이집트 청소년 하나를 만났다. 며칠 허기진 그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잠시 휴식하게 했다. 다윗은 곧 그를 채근했다. 그 아이는 다윗에게 목숨만 살려주면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윗은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대로 내달려 적진에 도착했다. 그리고 전광석화 같은 칼날로 하루사이에 완전히 적을 초토화 시키고 아내와 자녀들과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아말렉이 노략한 금은보화와 양떼 소떼 가축들까지 덤으로 얻게 됐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윗이 덤으로 얻은 모든 것과 양떼와 소떼를 앞에 몰고 가자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했다.

다윗이 브솔 시내에서 피곤해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되돌아왔다. 그러자 어떤 악한 무리들이 이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거칠게 제안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전투에 참여했던 소유물을 지켰든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전리품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선물로 돌렸다. 그때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은 죽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은 전리품을 배분해 준 유대 지도자들의 천거에 의해 유대의 왕으로 등극했다. 다윗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시간·재능·축복을 약한 이웃에게 눈을 돌려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훈하고 있다.



고래문화마을 백담공원 연꽃.

베테랑(veteran)을 떠나보내며

대봉제일교회 이기만 은퇴집사 87년 삶의 여정

6.25 참전·월남참전군인 등으로 국가유공자 지위

유족들, 대구보훈병원 장례식·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대구보훈병원의 정문 간판에서 베테랑(veteran)이라는 철자(綴字)를 읽어낸다. 우리가 흔히 ‘탁월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 베테랑의 또 다른 뜻은 참전군인(參戰軍人)이다. 이곳에 굿뉴스울산 발행인 이금희 목사의 부친 이기만 집사(대봉제일교회)가 입원해 심방을 갔다. 그 분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위로 참관해 직업군인이 됐고, 파월군인으로 월남전의 전투현장을 누볐으며, 전방부대의 부대장을 거쳐 예비역 중령으로 예편했다.

그 분은 군무에 전념하면서도 국방대학원에서 수학한 이력으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여 영남대학교 교수도 지냈고, 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종종 방문했던 대구 대명동 자택에는 국가유공자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집 안에는 월남에 근무할 당시의 자잘한 생활소품들 중에 화랑담배와 손때 묻은 지폐와 동전들도 눈에 띄었다. 보훈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우편으로 부쳐져 왔고, 거실의 장식장 안에는 훈장증과 기념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파월참전군인회 대구지회 모임’이라는 플래카드 글씨가 도드라져 있던 기념사진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유력인사들도 같이 있었다. 주월사령관을 지냈던 채명신 장군과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해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장을 지냈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 88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박세직 전 의원 등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전장을 달렸던’ 사진속의 베테랑들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베테랑들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보다 별세한 사람 숫자가 더 많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 세상을 갈무리하는 고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월을 이기는 장수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입춘이 지나고 찾아갔던 대구보훈병원에서 쇠약한 모습의 노구를 이끌고 병마와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던 부친은 산소 호흡기를 차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금희 목사는 부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아버지,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어요?”라고 말하자 겨우 눈만 깜빡이며 긍정의 뜻을 표현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의 것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 잡으세요.”하면서 베테랑에게 마지막 병상 설교(病床說敎)를 전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감추며 울산에 되돌아왔다.

베테랑은 낙엽 지듯 황혼이 이슬 듯 끝내 이 세상에 이별을 고했다. 천상병 시인의 표현대로 하늘에 소풍을 떠난 거였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기만 예비역 중령은 주후 2017년 3월 6일 저녁 세상에 황혼이 질 무렵 87세의 생애 마침표를 찍었다. 유족들은 대구보훈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3월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고인을 안장했다.

박정관 기자(2017.3.12)

잠자리 한 쌍



비 갠 하늘 아래
허공을 날다

사뿐히 내려앉은
잠자리 한 쌍

둘의 사랑을
몰래 훑쳐보니

은밀한 사랑
화려한 사랑

지으신 이의
배려로다.

영화 “암살” 관람후기

암울한 시절 절대절망과 부조리를 암살하고
후대에 희망과 광명의 빛을 선물하다

‘타짜’, ‘도둑들’로 유명한 최동훈 감독의 최신영화 암살을 보고 왔다. 이 영화는 일제치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활동을 펼쳤던 무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후대에 희망의 빛 한 자락을 남기기 위해 악랄하기 그지없는 적의 수뇌부 요인과 매국노를 암살하는 것이 골자다. 무명의 독립군들의 활약, 그들 간의 배신과 갈등, 시대의 암울함에 ‘탕탕탕’ 총알을 발사해 명중시키는 속 시원한 영화인데 시종일관 긴박한 장면이 연출된다. 흑백사진 한 장에 담긴 독립군의 눈빛을 모티브삼아 시작한 영화는 9년간의 준비 끝에 크랭크인 됐다.

영화는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상해의 임시정부를 비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조진웅), 폭탄 전문가 황덕삼(최덕문) 등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 작전에 지목한다. 김구(김홍파)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정재)은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암살단의 타깃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이경영). 한편,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이 암살단의 뒤를 쫓는다. 친일파 암살 작

전을 둘러싼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펼쳐진다.

전지현은 기존의 선입견을 단박에 허무는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으로 나와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여배우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정재는 임시정부 경무국장 염석진으로 분해 이중적인 캐릭터의 고뇌를 진지하게 펼쳐보인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극의 흐름에 큰 비중이라 캐스팅에 고민이 많았던 실존인물인 임시정부 주석 김구 역에는 김홍파가 맡아서 독립활동의 정신적인 지주임을 유감없이 연기했다. 또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도 캐스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승우가 쾌히 승낙하고 멋진 카메오로 우정 출연했다.

어려웠던 것은 시대배경에 적합한 장소와 무대세트를 마련하는 거였다. 1930년대의 정성과 상하이를 그대로 재현해 내기 위해서 중국의 10대 세트장인 상하이 처든, 성창, 라오싱 세트장에서 한 달여간 로케이션 촬영을 했으며, 컴퓨터그래픽(CG)으로 마무리를 했다. 또 고증을 거친 의상들만 총 4,500여벌이나 준비됐고, 그 당시의 차량들이 미국 포드차 위주로 생산됐기에 그 차량들을 정비하고 촬영장에서 사용할 때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준비된 영화는 180억이 투자됐고, 5개월간의 촬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영화는 대하드라마로 묵직하게 펼쳐지지만 않는다. 최동훈 감독은 지혜롭다. 묵직한 그 이야기를 설렘의 소설이 독자를 빨아들이듯 관객들을 금세 영화의 현장으로 삼켜버린다. 스토리의 전개는 유속 빠른 물길 같아 흥미진진하고, 빈틈없이 착착 들어맞는 퍼즐처럼 배우

들의 연기와 대사는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에이 뭐 이래 하며 버릴 장면 하나 없다. 무명의 독립군 흑백사진 한 장에서 영감 받아 9년 만에 탄생한 영화 “암살”은 ‘예술의 힘을 느끼게 하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최 감독은 “암살”이라는 훌륭한 대하드라마와 대서사시를 엮어내면서도 과거를 탓하기만 하지도 않고, 장밋빛 미래만 비추지 않는다. 역사의 현장에서 치열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조국을 위한 헌신이 나의 것이라고 외친 사람들의 기록을 담았다. 그들은 후대에 잊혀진 사람들이었지만 영화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다. 독립투사들의 나이테에 갇힌 시간을 반추하게 만드는 최동훈 감독이 그래서 멋지다. 출연배우들과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민들레

아날로그의 낭만이 그리운 디지털시대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춘하추동 사계절을 살고 있는 모친과 함께 같이 살던 아음동 집에 한 때 ‘007 퀵서비스’ 간판을 달았었다. 생활정보지에 모집광고를 냈더니 그것을 보고 찾아온 오토바이 라이더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 창립멤버가 됐다. 그래서 근 일 년을 오토바이 위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보낸 적이 있었다. 퀵서비스는 급한 서류를 보내거나 수화물을 부치거나 찾아주고, 바쁜 현대인의 삶에 긴급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그때 울산 퀵서비스 등 몇몇 업체들과 그 외 자생적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난립해 가격경쟁이 치열했다. 수도권에서 유행했고 보편화됐던 퀵서비스가 울산에도 활성화되던 무렵 삐삐가 유행했다.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리던 빨간색 공중전화에서 전화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던 공중전화로 바뀔 무렵 각 가정마다 거의 전화기가 보급돼 있었다. 집 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삐삐의 사용자 번호를 누르면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됐다.

삼성전자의 011로 시작하는 애니콜 휴대폰이 막 보급되던 그때 전화기 부피가 손바닥만큼 컸고, 그보다 작은 시티폰이라는 단말기도 있었다. 시티폰은 휴대폰보다 작았지만 공급업체에서 전봇대에 송수신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인근에 있어야 전파가 잡히고 거리가 떨어지

면 수신 감도가 떨어져 사용하기에 불편했다.

그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로 양분된 국산 휴대폰 업체의 발전은 새로운 기록의 경연장처럼 신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팬택이라는 업체는 한 때 업계 2위 자리도 넘보기도 했지만 경영난 속에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혁명에 비하면 옛날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 기술의 토대 위에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말 전설적인 DJ로서 구수한 목소리의 이종환의 ‘별이 빛나던 밤에’를 등하교하던 만원 버스에서 들었다. 그 무렵 동창생들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손 편지를 전하며 사춘기 불타는 청춘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고, 공중전화로 몰래 통화하기도 했다. 집안의 대소사나 길흉사를 전보로나 전하던 아날로그의 감수성이 물씬 풍기던 그때 젊은이들은 통기타를 통기며 포크송을 불렀고, 유행하던 팝송가사를 외우기도 했다.

박인희 노래가사처럼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던’ 친구들과끼리 1박 2일짜리 반짝 캠핑이 유행하기도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존 웨인의 서부극이 활개를 치며 인기를 끌었고, 특유의 괴성을 지르며 밧줄을 타며 밀림을 누비던 타잔도 꽤 오랜 기간 인기리에 방영됐다.

세월이 지나고 근자에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기기가 주변에서 넘쳐난다. 몇 년간 신문 편집장을 하면서 사진을 수없이 찍었지만 인화해서 액자에 담은 사진은 손에 꼽을 만큼이다.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터넷카페나 SNS에 올려두면 저장이 될 뿐 아니라 아무 때나 찾아 쓸 수가 있어 편리하다.

필자는 아날로그적 시대를 지나오며 느낌의 미학과 낭만 가득한 감수성을 누려왔고, 지금은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의 엄청난 혜택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집집마다 연탄을 때고 덜컹거리는 비둘기호를 타던 시절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 시절의 추억이 향수처럼 그리운 것이 비단 필자만의 느낌일까. 가을의 끝자락,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은 감들이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박정관 기자(2016. 11. 28.)

자동차 극장의 낭만(浪漫)

어린 시절 친구들과 연날리거나 말타기를 하고 다방구 놀이와 구슬치기나 자치기 정도를 할 무렵 어느 날 여천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슬라이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영상기에서 흘러나온 빛이 스크린에 영상으로 재현되는 장면은 당시 내게는 깜짝 놀랄 문화충격이었다. 그 시절에는 돈 드는 놀이를 할 수가 없었고, 따로 문화를 향유할 만한 여유도 없었다.

톱으로 나무를 켜 굵은 철사 한 가닥 덧대 똑딱똑딱 썰매 밑에 박아 얼음을 지켰고, 눈밭에서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고,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구워 먹었다. 개울가에 지렁이를 캐 미끼로 준비하고 명촌 다리나 장생포에 가서 대납시를 드리우면 던지기가 무섭게 꼬시래기가 엄청 잡혔다. 낚시하다 배가 고파 샤니와 삼립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물 한 컵을 들이키면 그 맛이 바로 꿀맛이었다. 그 낚시의 손맛은 지금 생각해도 잊지 못할 짜릿한 여운을 남긴다.

동네 친구 집에 어느 날 텔레비전 수상기가 설치되고 옥상에 커다란 안테나가 설치됐다. 그 친구 집에서 ‘마루치 아라치’, ‘로보트 태권브이’ 등의 만화 영화를 동네 꼬맹이들과 함께 엄마가 찾아 올 때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 텔레비전에서 김일 선수의 레슬링이 나오는 날이면 마을은 잔치가 벌어질 정도였다.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에

게 밀리다가 김일 선수가 나와서 머리를 힘껏 뒤로 젖혀 상대방 이마에 박치기를 가하면 상대는 단방에 벌러덩 나가떨어지곤 했다.

삶에 지친 가난한 국민들을 달래는 길에 스포츠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방편이 없어서 옛날에는 프로레슬링과 권투가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가 생중계되면 전 국민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냈고,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귀국하면 영웅대접을 받고 카퍼레이드를 펼쳐주곤 했다.

어느덧 각 가정마다 거의 텔레비전이 보급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상순과 최불암이 나오는 ‘수사반장’을 지켜보느라고 시간가는 줄을 몰랐고, 나시찬이 출연한 ‘전우’도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타잔 시리즈’의 인기도 천정부지였다. 텔레비전으로나마 문화를 향유하던 그때 주말의 명화에서 세계 각국의 영화를 시청할 수 있었고, 그것은 여린 감수성의 대지에 내리는 촉촉한 문화의 단비세례였다.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진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스크린으로 접하는 영상문화였다. 필자의 청소년기를 지날 무렵 극장가의 돌풍은 허리케인처럼 드셨다. 지금 성남동·옥교동 주변의 ‘젊음의 거리’에 시민극장, 천도극장, 태화극장이 경쟁하며 세계 각국의 영화를 퍼 날랐고, 극장은 상종가의 인기를 구가했다. 각 학교마다 단체관람도 많았었다. 고교시절에는 인디애나 존스를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이제 극장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기존 극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해 자

동차 극장을 찾는 마니아들도 있다. 울산은 두 곳이 운영되다가 이제 정자에 한 곳만 남았다. 어둠이 커튼처럼 내리고 밤이 이슬해지면 자동차 극장으로 차량불빛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출입구 매표소에서부터 라이트를 끄고, 지정 주파수에 채널을 고정하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시켜야 한다.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매점에서 오징어·컵라면·커피나 음료수와 과자류를 준비해도 좋다. 그리고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가 연기한 영화의 세계로 침병 다이빙하면 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진 추억의 기록이 될 것이다. 휘영청 달이 뜨고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아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영화는 필시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할 것이 틀림없다.

박정관 기자

여름의 끝을 잡고 낚시여행

필자가 '여름의 끝을 잡고 낚시여행'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으니 어디 크루즈선이라도 타고 멋진 섬 여행을 다녀왔거나 최소한 낚싯배를 빌려 고기잡이를 했다고 여긴다면 빗나간 예측이 된다. 혹 수십 센티미터를 넘는 월척이라도 잡는다고 생각해도 빗나간 적중이 되니 이제 본격적으로 단출한 낚시여행의 영업비밀(?)을 밝힐 시간이다. 단출하다고 하는 것은 장대낚시 10,000원에 미끼 3,000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고, 가깝기로는 승용차로 한 시간도 안 되는 울산 인근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낚시여행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주전해변에서 망상어와 놀래기 등을 많이 잡았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며 테트라포드(tetrapod)를 새로 추가 설치하고부터 전에 만큼 입질을 하지 않았다. 예전 처음 잡았던 망상어는 횡감으로 쓰지 않는 것을 잘 몰랐다. 그래서 낚시를 마치고 귀가해 도마에 올려놓고 손질을 한다고 하는데 배를 가르고 깜짝 놀랐게 됐다. 자그마치 43마리의 새끼들이 들어 있었다. 완태생(完胎生) 물고기 망성어(望星魚)는 흔히 망상어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 뜻이 '별을 그리워하는 물고기'라는 것도 그때 알고 미안해했던 적이 있었다. 뱃속에 새끼들이 그리 많이 들어 있으니 미끼를 보자마자 넙죽 집어삼키는 것은 당연지사, 장대낚시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던 것이다.

드라이브 삼아 해변을 찾다가 멸치축제로 유명한 기장군 대변항에도 여러 차례 낚시여행을 다녀왔다. 작은 연육교를 지나 해동 용궁사가 바라보이는 곳에서면 월드컵 등대가 보인다. 그곳에서 멸치축제가 펼쳐졌던 연안 전경을 쪽 휘둘러보며 낚싯대를 드리운다. 그 순간 수천 수만의 멸치 떼들이 무리지어 쏘다니며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하는데 블랙이글의 비행장면 만큼 장관을 연출한다. 그 장면은 올림픽의 싱크로나이즈 수영선수들 만큼 역동적이고, 손연재의 율동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종횡무진이다. 그렇게 쪼그만 멸치들이 무리지어 펼치는 환상적인 모습이라니, 흔쾌히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오토바이를 타던 시절, 처용의 전설로 유명한 처용암을 지나 용연의 끝자락을 파고들었다. 그곳 여름밤의 철썩이는 파도와 인근 공장의 불빛이 담긴 바닷가는 멋진 수채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었다. 이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용연은 공단이 활성화 됐고, 완전히 변모했다. 바닷가에도 철책으로 막아버려 출입금지가 됐는데 알음 알음 낚시꾼들은 왕래가 잦았다.

승용차를 타고 공장 후문 길을 따라 선착장에 닿으니 미포조선이 건너편에 손닿을 듯 가까웠다. 제주해역의 자라돔이 예까지 진출했고, 손바닥보다 큰 감성돔이 수시로 잡혔다. 팔뚝만한 숭어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작은 어선이 한 순간 다가오더니 선착장에 해녀들을 하선시켰는데, 명게가 망태기마다 배불뚝이처럼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처럼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넓은 품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 가지 반갑고도 안타까운 것은 바닷가 길고양이들이었다. 열댓마리가 낚시꾼들이 타고 온 차 밑에서 흠어져 대기하고 있다가 메가리나 물고기를 던져주면 쏜살같이 달려와 덥석 물고 부리나케 먹어치웠다. 어미는 새끼에게 번번이 양보하면서도 다른 무리와는 양갈지게 맞서서 먹이를 확보했다. 모성애로 인해 비쩍 굶은 어미는 바다의 품처럼 넓은 가슴을 지니고 있었다. 넓은 품 바다의 민낯을 그대로 쏙 빼담은 가룩한 고양이라니 낚시여행의 행운 같은 만남이었다. 동물보호 단체와 배려로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박정관 기자



봉계한우축제 꽃밭

울산대교 전망대를 다녀오며

현대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울산대교는 5천억 원이 투입됐고, 세계에서 3번째의 단경 간 현수교이다. 주탑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기술력을 인정받는바 그 거리가 1,2km의 난공사였다. 현장근로자들의 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대장정이 끝났고, 일 년 전 울산대교 개통식에서는 시민개방행사도 아울러 가졌다.

차량들이 지나다니기 전에 이루어진 시민개방행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완공을 기념하며 다리 위에서 행사를 가지고 합성을 질렀다. 자전거 라이더는 자전거를 메고 다리 한 가운데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손자를 데리고 나온 어르신들, 친구·연인·마을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리를 건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 버스로 탑승시켜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굿뉴스울산에서도 이금희 발행인과 박정관 편집장이 취재현장을 지키며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했다. 그 날 기념식 후 김기현 울산시장과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버스 편으로 동행해 울산대교 전망대를 탐방했다. 그때 갈까말까를 망설이다 불참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울산대교 전망대를 탐방했을 때 주차장이 협소했고, 4층 야

외전망대 시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카페 등 편의시설도 입주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구청 뒤편에 꽤 넓은 주차장을 완공했고, CAFE THE VIEW가 단장을 끝내고 분주히 방문객을 맞고 있다. 옥상의 야외전망대도 완공해 사진 찍기에 걸맞은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6월부터 야간개방이 이루어져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오후 7시30분 전망대 광장에서 가수 소찬휘와 변진섭, 걸그룹 '퀸비즈' 등이 출연한 빛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총 사업비 59억원이 투입된 울산대교 전망대는 동구 방어동 산 410번지 일원에 지상 4층, 높이 63m로 건립됐다. 당초 울산대교 전망대는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가 홍보관을 지어 울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시와 동구청의 요청으로 전망대로 변경됐다. 그로 인해 투입 예산도 확대됐는데 홍보관 건립 계획 시 울산하버브릿지(주)가 부담키로 했던 23억 원에 울산시 예산 36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어제 방문했던 울산대교전망대는 밤늦은 시각에도 활기가 넘쳤다. 3층 전망대와 4층 옥외전망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버스가 한 번씩 도착하면 제법 많이 붐볐다. 불과 일 년 사이에 홍보가 많이 돼 '이제 번듯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쪼록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명소가 되길 희구한다. 박정관 기자(2016. 8. 7.)

축복과 믿음의 여정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아브람은 순종했고, 길고긴 믿음의 여정을 나섰다. 아브람이 떠나야 하는 이유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과 결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우상의 도시에서 파멸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기 전에 그의 고향과 피붙이 혈연과의 완전 단절을 통해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걸음 믿음의 여정으로 천국의 계단을 밟아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과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몸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간관계에 파탄을 불러왔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분리되어 떠나야 했다.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그는 단독으로 믿음으로 결행한다.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를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신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을 그를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순종으로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됐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 때로는 태산같이 덮치려는 환경에 좌절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 얻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믿음의 결론은 전적인 순종이었다. 그가 바보같이 순종하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자 크리스천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그 후손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기독교의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했던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신성종 목사는 화려한 프로필과 업적을 뒤로 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나섰다. 그가 꿈과 환상을 체험하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복음전파였다. 그래서 그는 해외선교사를 자청해서 자진해

서 복음의 메신저가 됐던 것이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와 같은 순교자였다. 두 번째로 스펔전·무디·빌 브라이트 같은 복음전도자였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교회를 건축했거나 주일학교나 봉사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한편 복음전파와 선교를 명분으로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챙긴 사람들은 뒷자리로 밀려있었다고 한다. 맨 나중은 마지막에 회심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편 강도와 살인마 김대두가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 회개했기에 구원받아 천국의 끝자리라도 차지한 것이다.

신성종 목사가 묘사한 지옥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지옥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니라.” 그곳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가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예수님도 “불로써 조금 치듯 함을 당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전하지 않았던가.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선교초기와 일제식민시대를 거치고, 전후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 오로지 기도와 봉사에 전념했고, 적은 물질이지만 아낌없이 주를 위해 봉헌했다. 이제 그 열매를 영육 간 풍성히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소임은 무엇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기치를 힘차게 휘날리자. 하나님의 천국수첩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게 하자.

박정관 기자

일천번제 축복의 주인공 장현서 장로 人-interview

솔로몬이 받은 복은 지혜를 받아 성전건축을 한 것이고,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의 명성은 전무후무하지 않은가.
나도 건강이 주어지는 대로 가일층 주의 일에 힘쓸 것이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경북기독신문의 취재기자로 일할 때 ‘일천번제의 축복의 비결을 터득하라’는 장현서 장로의 특집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 때 기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군부대에 동행해 헌당예배에서 장현서 장로가 감사패를 받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 현장에서 그가 은창교회라는 군인교회에 2천만 원을 봉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작년에는 정자교회에서 은목교회 초청위로예배를 드린 후 풍성한 만찬으로 은퇴목회자를 섬긴 것을 취재하게 됐는데 식사를 마친 은목들이 목욕까지 하러간다면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던 장면이 생생히 떠오른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심양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장현서 장로를 4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 인터뷰했다.

40대에 서울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던 그는 어느 날 거래처의 도산으로 연쇄부도가 났다.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정말 앞길이 막막했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일천번제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면서 1차로 30억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 후 일천번제를 마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돼 2차 자녀결혼, 3차 교회건축, 4차 해외사업장 확장까지 응답받게 되었고, 5차는 간증집회 다닌 교회마다 일천번제 동참자가 늘어나길 기도하고 있다. 장현서 장로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자신이 체험한 일천번제의 축복의 비결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그간 그가 다녀왔던 집회일정과 간증영상이 차고 넘치며, 신문에 기고한 칼럼부터 사진자료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Question: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예수님을 모를 때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지금은 영혼구원이다.

Question: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미신을 신봉해 시주하고 절까지 지어주었다. 그러나 부도가 났을 때 모든 친구들이 떠났다. 그런 어느 날 거래처 회장이 ‘뭣이 모여 놀러가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부도난 것을 말할 수 없어 선약이 있다고 둘러댔다. 다음 날 방송 화면에 약속 장소에 태풍이 몰아쳐 그 회장과 일행이 급류에 휩쓸려간 뉴스를 접하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만약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분명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Question: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부흥되는 교회 이유 있고, 축복받는 성도 비결 있다. 진성으로 믿지

마라.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Question: 사업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단 하나의 비결은 1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1원이 없으면 절대 100만 원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물질의 주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도났을 때 차비 20원을 아끼려 걸어가면서도 현금은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 믿으면서 일천번제를 시작할 때 만 원을 현금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5만 원을 작정해 하고 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천국창고에 심으니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Question: 작년에 사업의 큰 고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고민했다. 기도도 엄청 많이 했다. 작년 6월 30일에 20억이 입금되지 않았다. 또 8월 30일에도 20억이 입금되지 않았다. 게다가 10월 30일에도 20억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심하고 있을 때 작년 8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지미카터 대통령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됐다. 지미카터는 조지아주 감리교회에서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대통령이 됐을 때도 백악관 근처의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특별교사로 봉사했고, 퇴임해서 계속 교사로 섬겼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다. 그런 그에게 암이 발병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후 그의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마련이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은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 용서해 주

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하시며 무한한 용서를 말하지 않았는가.

Question: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받은 복은 지혜를 받아 성전건축을 한 것이고,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의 명성은 전무후무하지 않은가. 나도 건강이 주어지는 대로 가일층 주의 일에 힘쓸 것이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인터뷰 이금희 발행인 / 글 박정관 기자



서덕출 조각공원, 봄편지

이사랑 목사를 응원하며

새해 벽두 1월 1일을 기해 전국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통일 촛불기도회가 개최됐다. 포항에서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주찬양교회로 정해졌고, 의미 있는 통일촛불기도회로 치러졌다. 이 날의 기획은 언론인 홀리클럽 회원들의 노력이 컸다. 참고로 말하자면 언론인 홀리클럽은 기독교계의 좋은 소식을 취재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며 전파하는 단체인데, 12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상가건물에 월세를 주고 있는 30평의 작은 교회인데 포항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통일촛불기도회가 작은 이곳에서 치러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주찬양교회를 담임하는 이사랑 목사는 20여 년 전부터 매년 중국선교를 감당해왔다. 준비해간 선교비와 옷, 학용품, 선물 등을 조선족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중 일제치하 때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젊은 시절 깡패였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됐던 김익두 목사의 손녀와 증손자도 만나게 됐다. 당시 김익두 목사의 부흥집회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병자치유를 비롯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암울한 시절 사람들은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공산당의 손에 김익두 목사는 순교했다. 종교를 아편이라 교육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후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목사의 도움으로 증손자는 무사히 귀국했고, 현재 주찬

양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이처럼 이 목사는 중국선교를 하면서 자연스레 탈북민과 만나게 됐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포항에서 12년 동안 탈북민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감당해야 했다.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수돗물이 끊기기 일쑤고, 전기도 수시로 단전될 만큼 어려워졌다. 물질고 낯선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취직이 어려웠고, 그나마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대리운전,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수없이 다녔고, 베개에 닿기만 해도 잠에 꿀아떨어지곤 했다고 한다.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올 초 통일촛불기도회를 주찬양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들었고, 탈북민들에게 통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기에 흔쾌히 허락했다고 한다. 이 기도회에서 탈북민의 간증을 듣고 북한의 인권유린과 처참한 실상을 더 잘 알게 된 참석자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탈북민들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통일’ 임에도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뉘우쳤다.

이 기사가 언론인 홀리클럽을 통해 국민일보와 포항지역 교계뉴스와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래서 주찬양교회는 얼마 전 남서울교회(화종부 담임목사)에서 후원하는 성전이전 지원금 수 천만 원을 받게 됐고, 탈북민들과 가까운 북구 창포동으로 이전했다. 지역교계에서도 십

시일반의 정성을 보냈고, 탈북민멘토협의회는 의료봉사와 후원금으로 탈북민들을 도와왔는데 더 큰 헌신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놀라운 것은 탈북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새성전 청소는 물론 이삿짐을 전부 자원하여 날랐고,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 “이제 창포동 새성전은 탈북민의 사랑방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돼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사랑 목사는 탈북민이 데려온 4살 여아 에스터를 지금껏 친딸처럼 키워왔다. 이제 고교생이 된 에스터의 애절한 기도가 잊히지 않고 귓전에 맴돈다. “탈북민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잘 정착하여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게 해 주소서”

이금희 발행인(2015. 9. 16.)



슬도 소리체험관

이명박 前 대통령 초청, 제39차 극동포럼 현장스케치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한 제 39차 극동포럼
각계 오피니언 리더 초빙해 현안해결 모색해왔고
극동방송 5개 지사 연합해 경주현대호텔서 열려

새해 벽두에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개봉해보니 1월 22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제39차 극동포럼의 강사로 이명박 前 대통령을 강사로 초빙하는 내용이었다. 천년고도의 경주를 자주 방문하게 되지만 이날의 의미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었다. 전직대통령은 의전부터 달랐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참석 여부와 함께 10여 차례 통화와 안내 문자를 받았고, 당일에는 미리 준비해 둔 신분증을 패찰하고 입장했다.

대한민국에서 퇴임한 대통령들의 갈무리가 석양의 황혼처럼 멋지게 장식되면 좋으련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친인척 비리로 얼룩지기도 했던바 우리도 이제는 퇴임대통령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누릴 때도 됐다. 이번 극동포럼은 정치에서 한 발 벗어난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 前 대통령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됐다.

연단에 오른 이명박 前 대통령은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어 펼치며 소명(召命)이란 제목의 강연을 시작했다. “나는 포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6.25전쟁이 끝나고 가난한 시절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물자를 받고 성장했기에 가난의 의미를 안다. 그때 부모들은 가난해도 자식들에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시켰고, 그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됐다. 이후 나는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했고, 서울시장을 거쳐,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살아오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기에 후회는 별로 없다. 사람들은 나를 토목학과 출신으로 알지만 사실 나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 통치를 한다기보다 ‘국가경영’의 개념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통치가 권위적이라면 경영은 쌍방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대한민국은 갈등이 너무 깊다. 남 탓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탓부터 하고 남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화합이 필요한 때다”라고 역설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1920대 미국의 대공황처럼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고가 지구촌을 덮쳤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끼리 위기타개를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한 회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고, 어느 나라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나라의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G7을 하자 G14를 하자고 할 때 G20을 제안했고, 미국에서 G20을 개최한 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G20을 개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G20

을 개최하고 내린 결론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래된 고속도로를 다시 깔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키고 돈이 돌게 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 건설을 통해 홍수예방과 재해방지와 아울러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투자가 목적이었다. 해외에서는 칭찬하는 이 일이 국내에서는 비난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미국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캠프데이비스에 초청받게 됐다. ‘피곤하지 않느냐’는 부시대통령의 질문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피곤할 것이 무엇이겠는가’고 서로 웃은 적이 있다. 또 부시대통령이 카트를 몰고 갈 때 ‘나도 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대신 운전대를 잡게 된 일화도 소개했다. 특별히 그곳에 마련된 교회당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부시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됐고, 정상회담은 물 흐르듯이 진행됐고, 미국의 우방국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전화하게 된 일화도 들려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으로 하바드에 들어갔고 그 대학신문의 편집장이 될 만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사 똑 부러지게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서들이 적어둔 원고 밀쳐두고 대신 다른 인사말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문하며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당선됐지만 그런 당신이 자랑스럽다. 그랬

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며 아주 고맙게 여기며 감사했다고 한다. 외교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만 때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들이 통할 때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궁금해서 “부시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자신은 공화당인데 어떻게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물었다고 한다. 그때 이 대통령은 “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뿐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추구하고,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의논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당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교회 중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 권사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많이 오신 줄 안다. 네 탓으로 나무라기 전에 내 탓으로 돌리면 해결이 쉬울 것이다. 나도 장로의 직분이지만 소망교회를 섬길 때 차량안내를 3년간이나 했다. 섬기는 리더십이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강연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00여 명의 모든 참석자가 일어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곧이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 전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포럼의 모든 순서를 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제 39차 극동포럼은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행사로 기획됐고, 대구·부산·창원·울산·포항 5개 극동방송 지사가 연합해 주

최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모든 참석자들이 만찬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식전행사로 포항어린이 전속합창단의 흥겨운 노래와 춤의 향연이 펼쳐졌고, 각 지역별 포럼회장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

태화강 낙조(落照)

노을이 빛는 일몰의 스케치
스마트 폰으로 남긴다.

태양의 마지막 호흡,
노을빛으로 남는다.

저리도 찬연하게
부서지다니

문득 부끄러움을 깨닫는다.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현장스케치

主後 2014년 12월 3일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현장을 다녀왔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교회'라는 슬로건처럼 김문훈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부흥과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진행형임을 증거하고 계신다. 덕천동교회는 3대 김문훈 담임목사가 부임하고 포도원교회로 개명하여 2004년 1200명 좌석의 화명성전을 봉헌하였다. 그 후 4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지하 5층, 교육관 지상 10층 연건평 9500평, 주차장 1500평(총 11000평)규모의 새로운 성전건축 역사를 기록했다. 불과 10년 만에 한번에 4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드림센터를 또 봉헌해 올리니 기적의 현장에 다름없지 않은가. 이 날 포도원교회는 곽두영, 이병우 2명의 신임장로를 비롯하여 72명의 장립집사와 147명의 권사에게 영광스러운 신임직분자로 임명했다.

포도원교회는 지난 9월 28일 드림센터에 이사하여 이 날의 봉헌식을 기다려왔다. 모든 성도들에게 드림센터가 익숙해질 무렵 계절은 순환을 맞아 이미 겨울로 들어서 있다. 하나로마트에 취재차량을 주차하고 택시에 오르니 채 5분도 안 돼 웅장한 예배당이 눈에 들어온다. 차에서 정문에 내리면 에벤에셀 기념비 같이 큰 돌에 '오직 예수'라고 적혀있고 입당한 날 2014. 9. 28이 숫자로 박혀있다. 다음세대에 기념으

로 남겨질 또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다.

이 날 식전행사로는 김문훈 목사와 축하내빈들의 테이프커팅식을 비롯하여 성탄트리 점등식과 새 성전을 상징하는 드림키 전달식이 있었다. 또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쌀 200포와 고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성전입구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했다.

김문훈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이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며 하늘로 상달됐다. 전광식 고신대 총장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설교를 통해 "조각배같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불 밝히는 등대로 영원히 든든히 서있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다. 2부 입당감사 시간에는 건축위원장 이정선 장로의 건축보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성도 여러분들이 수종들어 이룬 역사"라 평가하며 "대형아파트 옆에 건축했지만 한 건의 민원이 없었고, 55일 만에 일사천리로 설계가 진행됐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대장정을 마쳤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보고했다.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서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CBS사장 이재천 장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차례로 축하의 인사말을 남겼고 성도들은 박수로 일일이 답례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는 이 날 서울에서 직접 봉헌식에 참여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전입당과 임직자들에게 축하한다. 온라인 미디어설교를 통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김문

훈 목사와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처럼 개혁주의 교회의 모범이 돼 달라”고 축사를 했다.

축하패 증정시간에는 성벽건설 신남수 장립집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개입찰을 거쳐 성벽건설에 건축이 맡겨졌을 때 신 사장은 비신자였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본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장립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레건축사무소 윤인준 사장에게는 표창패가 전달됐고, 건축위원장 이정선 장로와 건축본부장 최상진 장로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서울에 사는 86세 김성음 권사는 김문훈 목사의 설교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아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했는데 고령이어서 당일 참석은 하지는 못했다. 김 권사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됐다.

3부 임직감사 시간에는 당회장 김문훈 목사의 진행으로 임직 받는 직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서약을 받았다. 모든 직분자들은 “예”로 답하며 영광의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어 장로와 장립집사들에게 안수례와 악수례를 시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포했다. 노회장 김현규 목사의 권면, 고신대 외국인 에리사니아 외 유학생들의 ‘Thank you Lord’가 축가로 들려졌다. 당회장 김문훈 목사는 임직자들을 대표한 이병우 장로에게 기념패를 증정했고, 구도형 장립집사가 임직자들을 대표해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 황재관 구청장, 김도읍, 박민식 국회의원 등의 내빈소개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예배의 마지막은 증경총회장 제4영도교회 조궁천 원로목사가 맡아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

백년지성(百年知性) 김형석 교수의 강연을 듣다

백년지성 국내1세대 철학자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의 세미나에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울산극동방송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주최했고, 4월 6일 저녁 태화교회 4층 ‘꿈꾸는 땅’에서 열렸다. 김 교수의 강연은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두 시간을 넘게 이어졌다. 98세의 고령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노익장의 자랑하는 선연하고 분명한 음성이었다.

그는 교리에 대해 말했다. “연세대 초청 설교에서 장로교 목회자는 예정설을 강조하고, 감리교 목회자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니 학생들이 헛갈려 질문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종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살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가톨릭은 교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제자 된 삶의 실천이다. 교리에 사로잡히니 스승 중 한 사람이었던 유명한 목회자도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에 사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독교연맹을 만들더라. 또 한 사람은 신학교 총장이 됐는데 그 한 사람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는 14세에 건강을 상실하고 위기를 겪었다. 병간호에 애쓰던 부모와 의사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어린 김형석은 눈앞의 동

네공동묘지를 바라보며 죽음이 두렵다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해 주시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 년이 지나자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 기도의 내용처럼 김형석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 받았다.

그는 생전 동아일보를 설립하고 경성방송과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을 존경했다. 그가 중앙정보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였다. 인촌선생은 그에게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다.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비방하는 사람도 멀리 하라. 편 가르기 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등용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장관들을 가져 정치를 했지만 비서진들의 기고만장과 인의 장막을 쳐서 충고를 무시해 버렸기에 나중에 실패하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촌 선생에게 “왜 찾아와서 충고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인촌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서들이 막아서서 못 만나게 하는데 어찌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연 후 ‘현 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인사를 잘해야 하고, 소통에 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꺾을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도 누가 되든 지도자를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촌 선생의 교훈을 새겨들었던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교무처장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두 번이나 천거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는 교수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65세에 정년을 마치고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다. 반면 학교의 이름을 팔아먹던 사람들은 정년 후 은퇴하면 잊히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김태길 전 서울대 교수와 안병욱 전 숭실대 교수와 함께 철학자의 시선으로 수필을 발표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여태 40여 권을 저술한 그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이 당대 최고의 6만부의 베스트셀러를 훨씬 능가하는 기록도 남겼다. 전후 한국인들의 황폐했던 상황과 상처 입은 마음에 실존주의 철학적 수필이 가슴에 와 닿아 교과서처럼 읽히게 됐던 이유일 것이다.

그의 외조모가 세 달이나 김일성 젖동냥도 해주었지만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에 가족들이 희생되자 그는 단신으로 월남했다. 세 살 많았던 윤동주와 같은 반 중학교 동기였고, 조만식 선생의 교훈도 직접 들었던 노 철학자는 그 정권을 실존으로 경험했기에 공산주의만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두 시간의 강연이 이어지는 동안 칼럼 10편을 넘게 쓸 수 있는 주제들이 별무리처럼 꼬리를 물고 펼쳐졌다.

박정관 기자(2017. 4. 17.)

은혜와 열정의 비전메이커 김문훈 목사, 금요철야집회

48년간 이어온 은혜의 지성소 감림산기도원
여름 산상집회 열리는 금요철야집회 현장서
라합의 담대한 믿음과 가족구원 간증전해

혼절하리만치 강렬한 태양빛이 수직낙하하듯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 쏘이는 8월, 이에 사람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물로 침병 뛰어들다. 또 산과 계곡을 찾아 나서 시원하다고 여겨지는 곳곳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며 고단한 일상을 잠시 잊는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은혜의 지성소를 찾아 피서를 겸한 '비움과 채움'의 영성쌍기에 골몰한다. 지난 시간 잘못들을 과감하게 비우고, 새로운 은혜의 씨앗을 마음창고에 채우는 것이다.

지난 8월 5일 금요철야시간에 포도원교회를 담임하는 김문훈 목사가 감림산기도원 베엘성전에 강사로 등단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펀전처럼 천둥번개같이 쏟아내는 메시지에 성도들은 행복한 영적세례를 또 한 번 경험했다.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그의 주옥같은 메시지에 참석자들은 팡 터지는 웃음을 자아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간이 어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밤은 깊어갔고, 드디어 집회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는 고신대 재학시절 무명이었고, 중병에 걸려 '꺼져가는 촛불'로 명명됐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기도의 동아줄뿐이었고, 그는 그 끈을 닦도록 문질러 마침내 하나님의 치유와 마주하는 경험을 했다. 그 후 그는 300명에 불과했던 포도원교회 덕천성전에 부임하여 1,100석의 화명성전을 건축하고, 곧이어 드림센터를 봉헌했다. 현재 그는 7천 명의 포도원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심정으로 지구촌을 두루 다니며 "전능자의 위로의 손수건만이 인생들의 눈물과 땀을 닦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문훈 목사는 15년 동안 방송출연을 하면서 초단위로 진행되는 방송현장의 팽팽한 긴장감을 즐긴다고 했다. 말 한마디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는 현장을 겪다보니 어지간한 일에 놀라는 일없는 배짱이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현장의 경험들을 녹여 풀어내는 말씀의 이야기보따리에 청중들은 넋을 놓고 빠져 들어갔다.

그는 수천 년 전 성경의 서사를 청중에게 전달함에 있어 마치 성도들이 성경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다. 그는 성경의 문자적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환치해 날것 그대로의 물고기처럼 펄쩍펄쩍 튀게 만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고 가슴에 절절히 새겨지도록 돕는데,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은사로 그만의 전매특허처럼 독특하다. 그래서 그가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

이 날 그는 여호수아 2장의 본문으로 아웃사이더이며 성벽 위라는 위태로운 곳에 살고 있던 라합에 관해 설교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미천한 신분과 지리적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으며, 정보습득에 빠르고 그 정보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리고 라합은 군사전문가 뺨칠 정도의 노련한 전술전략을 명민하게 발휘했다. 그리고 붉은 줄 하나를 증표삼아 온 가족의 구원을 이뤄낸 믿음의 여인이었다. 마침내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었다. 믿음의 전당이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와 더불어 유일하게 라합만 여인으로 이름이 등재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공정이 빚어낸 그녀의 담대한 믿음이 낳은 결실이다.”

한편 포도원엔젤스팀(문숙배 단장) 9명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위십찬양을 선보였다. 평소 포도원교회의 각종 봉사로 섬기고 있는 팀원들은 그동안 같고 닮은 위십찬양을 하나님께 봉헌해 참석한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6. 8. 6.)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긍정에너지

우울한 사람은 매사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언사를 일삼는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현재 비관적 상황을 보고 있어도 그 속에서 희망의 무지개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비관을 낙관으로 반전시키며, 좌절과 절망의 언어를 희망과 감사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지난 주 이런 사람들과 단체를 면전에서 만났다.

이 단체의 대장을 설명하려면 서울광염교회 빼놓을 수 없고, 우연히 읽게 됐던 <감자탕교회 이야기>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 단체의 정서를 십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염교회의 이름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에서 착안해 지은 이름이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조현삼 목사는 어느 날 성도 한 분의 요청으로 그 분을 상담하게 되었다.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1억 원 상당의 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헌물로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성도는 2500만 원 짜리 전세를 얻었는데 그것조차 교회에 현금으로 드린다고 했다. 꼭 현금으로 바치고 싶다고 간곡한 청을 거듭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 목사는 교회 재정담당자들과 상의한 후 그것을 그분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집사님, 이제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교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생활이 어려우신데 이곳에서 나오는 월세는 집사님의 생활비로 쓰시고, 이 거처도 집사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축복해주었다고 한다. 이 교회는 통장에 100만 원 만 남기고 재정을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교회 정서로 교회는 아직도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간판이 감자탕 간판에 가려서 감자탕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조직되었다. 끔찍한 재난의 현장에서 봉사를 나왔던 서울광엽교회 조현삼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유해신 사무처장이 현장에서 만든 단체이다. 봉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로 활동하는 특성상 평소에는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무실은 따로 두지 않고 단장 조현삼 목사가 시무하는 광엽교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상근 유급직원은 한 사람도 없다. 단장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뜨기만 해도 지역교회에서 재정과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연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이 침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봉사단은 당일 밤 10시에 출발해 익일 새벽 3시에 울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파riba게트 상가를 빌려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차곡차곡 채워나갔고, 갑작스런 수재를 당한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컵라면과 생수와 빵, 삼각 김밥과 핫반, 커피믹스와 티백 등 필요한 구호품을

을 이틀 동안 전달했다. 사실 태화강변을 끼고 울산지역교회도 침수피해를 당한 곳이 많았고, 울산기독교연합회는 경주 쪽 지진피해를 당한 교회를 방문해 복구의 손길을 베풀었다고 한다.

마침 복구청의 요청으로 대영교회가 150여 명의 봉사자들을 이끌고 태화시장 캠프를 찾아 봉사단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봉사자들은 이재민들에게 가스레인지 130대를 나누어주었고, 필요한 물품을 배급했다. 곧이어 태화교회도 태화동주민센터에서 국밥을 만들어 수재민을 도왔다. 비단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각종 종교단체들의 활약도 빛을 발했다. 정부와 민·관·군이 자원봉사자들과 그들로 구성된 단체와 하나 되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현장이었다. 현재 봉사단은 허리케인 매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티에 날아가 제레미시에서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관 기자(2016.10.13.)

홍진영의 멋진 무대매너 (2016 울산고래축제)

작년 울산고래축제의 폐막식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한 가수는 윤수일이었다. 윤수일은 울산장생포 출신가수로서 어릴 때 혼혈이었다고 친구들에게 엄청 구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생포 연안을 배회하며 끊임없이 기타줄을 튕기었다. 파도처럼 가슴에 파고드는 설움과 뼈저린 고독을 곱씹으며 그는 노래에 인생을 걸었고, 마침내 성공했다. 울산고래 생태체험관 옆 작은 연안공원에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모델이었던 로이체프먼 앤드루스의 동상이 있고, 바로 곁에 윤수일의 자작곡 '환상의 섬'의 노래비가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김수희가 부르는 '남행열차'와 윤수일이 불렀던 '아파트'를 어찌 잊겠는가. 군인들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찻잔사이로 주고받았던 연인간의 애절한 사연을 목이 터져라 불렀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라 아파트는 삶의 터전이자 문화일 것이다. 그러나 윤수일이 불렀던 아파트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였고, 너와 나의 아지트이자 이상향(理想郷, utopia)이었다. 그 노래를 수천 번 부르고 나면 제대날짜가 코앞에 와 있던 군대생활이었다.

작년 울산고래축제의 개막식 무대의 피날레는 박현빈이 장식했다. 박현빈은 '오빠만 믿어'를 비롯한 '사방사방' 등 그의 인기곡을 파도처럼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부르며 무대를 달구었다. 그는 아쉬워하는 가운데 앵콜송을 부르고 떠났다. 축제의 현장에서 만난 연예인에게 눈길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는 뽐뽐한 지방공연 일정을 분망하게 소화하느라 지난 4월 29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다. 다행히 병원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회복됐다고 한다.

2016년 올해 울산고래축제 개막식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5대양을 누비는 고래는 바다의 왕이며 동시에 강력한 힘의 상징이다. 지금 우리 울산의 경제가 좀 어렵지만 고래의 기상으로 나가면 힘찬 경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 축제를 맘껏 즐기고 그 에너지를 충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곧이어 서동욱 남구청장이 큰 소리로 "고래의 숨결 살아 숨 쉬는 울산남구장생포에서 2016년 울산고래축제 개막을 선언한다"고 선포하자 축포가 터지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 날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간간이 흩뿌려지던 빗줄기에도 무대 좌석을 꽉 채운 시민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빗발이 조금 거세지자 요동하며 일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다행히 빗발은 5월 하순의 기후와 맞물려 참을만했고, 차츰차츰 잦아들었다. 그때 개막식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가수 홍진영이 등장했다.

홍진영은 '사랑의 배터리'를 비롯한 귀에 익숙한 노래를 풀어놓으며

관중을 사로잡았고, 이내 열기가 더해졌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어린 꼬마관객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돌진해버린 것이다. 흥진 영이 말로 얼레고 달래도 잘 안 되자 아이 엄마를 불렀고, 관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앉은 채 기념사진을 찍어 객석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꼬맹이들이 약속한 듯 무대 앞으로 나갔고, 부모들도 덩달아 무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린 아이들도 얼떨결에 초대가수의 품에 안겨 엄마 아빠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엄지를 척하고 치켜세울 멋진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앵콜송 ‘엄지 척’을 관객들과 함께 흥겹게 부르고 아쉬운 무대와 축제현장을 뒤로하고 돌아갔다.

박정관 기자

한가위에 찾아든 불청객

(울산제일일보 원고)

민족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느닷없이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12일 저녁 7시 44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5.1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울산에 살고 있는 필자는 신문사 사람들과 웅촌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단골로 자주 가는 식당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한산해 일행들과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었고,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던 가운데 굉음과 함께 전해지는 강진을 온 몸의 진동으로 느낄 수 있었다.

군 복무 시절 사격 연습하던 탱크에서 발사하던 포탄의 포격소리처럼 요란했다. 일행들과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마주쳤고, 순간 심상치 않다는 기운을 직감했다. 강진의 여파로 일행들은 목소리 톤이 높아져 어떻게 된 일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필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인아주머니가 시청하는 TV 앞에 코를 박았다. 2층에서 샤워를 하던 주인아저씨는 “다리가 휘청거려 앞으로 넘어질 뻔 했다”며 부리나케 씻고 내려와 흥분된 목소리를 내질렀다.

잠시 후 속보가 흘러나오는데 갑작스런 재난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다시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휴대폰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어 국민안

전처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막 도착하고 뉴스를 통해서 지진의 전모를 파악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녁 8시 32분에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강진이 엑스레이 광선처럼 전신을 훑고 지나갔음을 느꼈다.

부리나케 식당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급하게 승용차에 올라탔다. 라디오에서 뉴스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계에 살고 있는 일행의 고등학생 딸이 “책꽂이 위의 책들이 떨어졌다”고 했다. 신문사가 있는 우정동 인근으로 진입하자 아파트에서 놀란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차량들의 긴 꼬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급하게 호계 자택으로 귀가하던 일행은 “중구청을 지났는데 거기서부터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호계 지역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딸의 소식을 아울러 전했다. 신문사에 복귀해 TV를 켜니 저녁뉴스 전에 급하게 발생한 지진 소식에 뉴스브리핑을 하느라 진행자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마침 김기현 울산시장이 TV조선과 전화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어서 귀를 기울였다.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긴급현안을 보고 받던 김 시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혁신도시에 본사를 옮겨 첨단기기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밤을 새면서 상황을 파악해 시민 안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TV에서는 영상자료와 사진이 확보돼 지진의 피해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을 관측한 이래로 이번처럼 정확하게 지진의 실체를 느낄 수 없었던 터라 그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측이 불허되는 영역이라고 한다. 이번 재난은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하라는 자연의 준엄한 경고였다. 사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 천재지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원고청탁을 받으면 보통 그 날 밤이나 최소한 다음 날 아침에 원고를 적어 바로 송고해왔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차일피일 미루어졌는데 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에서 시발해 포항·김천·울산·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감지된 지진이라는 불청객을 주제로 글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은 한가위를 앞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선물한 것만은 확실하다.

박정관 기자(2016. 9. 13.)

울산 포항 고속도로 완전개통의 의미

울산 포항 간 30분에 맞닿는 거리로 근접

울산·경주·포항 지역 간 해오름동맹으로

아시아 넘어서는 국제적 허브도시로 도약 기대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는 총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2009년 6월에 착공해 2016년 6월 30일부로 완전개통하게 됐다. 작년 연말 부분 개통하였으나 중간지점의 동경주에서 국도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졌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국도로 아닌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7km거리의 양북1터널 구간이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래서 어제 개통식을 마치고 오늘자로 완전히 뚫린 고속도로를 굿뉴스울산 취재차량으로 시원하게 내달려 보았다.

오늘 오후 경주에서 국도를 타고 포항에 도착한 후 홈플러스 포항점에서 쇼핑을 하고 죽도시장에서 포항물회를 먹었다. 영일대를 한 바퀴 휘돌아 국도를 타고 오다가 대구IC를 지나며 남포항의 입간판을 따라 계속 내달렸다. 그리고 남포항IC에서 울산까지 내달린 시간은 30분 조금 지나는 시간이다. 사이사이 많은 터널이 산재해 있는 난공사를 치러낸 근로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7km에 이르는 양북1터널을 닿았다. 양북1터널은 5분 정도 내달려야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는 외동휴게소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

었다.

2013년 3월 대구 광주는 사상적 배경과 정서의 차이와 원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이름을 따와 '달빛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로·교통, 경제·산업, 환경·생태, 문화·체육·관광, 일반협력 등 총 5개 분야에 협약을 맺었다. 더 불어 시립예술단 교류공연,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작가교류, 광주 대구 달빛투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의 의미는 물류의 순환이 원활해져 울산·경주·포항 지역의 기업체들이 물류비와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게 됐고, 울산 126만 명, 포항 52만 명, 경주 26만 명의 인구수로 2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로서 해오름 동맹의 협약을 긴밀히 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관광벨트로써의 입지는 서로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도시의 업무도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공유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각 시장들이 서로 협약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사이에 두고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울산과 포항이 상생하고 협력을 강화해 민족중흥에 가일층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모세대들의 헌신과 눈물이 씨앗이 돼 이제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나무로 자라난 두 도시가 문화도시 경주를 얼싸안으며 경제와 문화발전의 기치를 더더욱 휘날리길 희구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동해남부권 지역이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해
오름을 이끌어 왔던 것처럼 미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중심축이 될
것이다. 포항의 철강산업, 경주의 문화산업, 울산의 자동차 등 완제품
까지 아우르는 초광역권 경제 동맹이다”라고 말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새로운 고속도로의 완전개통과 함께 새로운 동
해안시대와 신해양시대를 맞게 됐고, 동해안권 자치단체가 하나의 동
맹을 형성하면서 환동해권 진출 등 국제적 도약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
대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는 이제 환동해권으로 물
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는 허브도시가 될 것을 믿으며 적
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관 기자



영일대해수욕장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식 현장스케치

1980년대 후반 필자가 울산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남동 구도
심의 옛 중앙호텔 골목길을 휘돌아 지나고, 시계탑 사거리를 거쳐 주
리원 백화점까지 다녔었다. 시민극장과 천도극장이 있는 성남동 일
대는 취권으로 주연배우로 자리 잡은 성룡의 무협영화와 폴리스스토
리로 이어지는 경찰 영화가 대세였고, 주윤발 장국영이 주연했던 영웅
본색도 그 무렵의 영화판을 달구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했던 인디애나 존스는 울산고에서 단체관람을 하
기도 했었다. 이런 성남동과 옥교동은 당시에도 젊은 학생들에게 놀기
좋고 먹거리가 즐비한 물 좋은 명당으로 인식됐다. 주리원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모드니 백화점이 생기기도 전부터 울산
을 당당하게 주름잡는 백화점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과거의
이름으로 흘러가 버렸다.

울산의 산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뉴코아아울렛(舊 주리원 백
화점) 앞 무대에 2016년 11월 11일 저녁 6시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
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줄 잇는 천 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날
특설무대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김기현 울산시장 등 각계의 내빈들
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큰애기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축사와 흥겨운 축하무대가 이어져 참석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

래시를 터뜨렸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은 지난해 행자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중구청이 당선되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 야시장은 중앙전통시장 사주문 입구에서 뉴코아아울렛까지 170m 1구간, 보세거리 입구에서 중앙시장 오거리 110m 2구간, 농협 옥교동 지점 앞에서 중앙시장 오거리 110m 3구간 등 3개구간에서 운영된다. 이들 구간에는 지난 8월 선정심사와 품평회 등을 통해 선정된 39개(식품 37개, 상품 2개) 품목 가운데 입점을 결정한 36개소(식품 35개, 상품 1개)가 들어와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청은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옥교공영주차장을 580면으로 118면 증축하고, 올 연말까지 237면의 문화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또 구석구석 쓰레기 통을 배치해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조리장과 식자재 보관 및 냉동고 활용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도 한다. 나아가 매대당 소화기 비치 및 소방훈련 등을 통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외에도 연단위 계약과 1가구 1매대, 3자 임대불가, 실명제 실시로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는 한편, 불친절, 위생관리 미이행 등의 경우 퇴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판매교육 등을 모두 마쳤다.

이 날 행사를 진행했던 사회자의 말대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치이고, 홈쇼핑에 손님을 빼앗기며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개장으로 손님 찾아 가게는 매출 오르고, 손님은 다양

한 먹거리를 즐기고, 기존 상권에도 활력을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상설야시장으로 인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예전처럼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굿뉴스울산 박정관 편집장(중구뉴스 기자)



재난현장의 언론과 빛나는 영웅들

거친 풍량을 칼날 삼고 드센 빗발을 방패삼아 진군했던 태풍 ‘차바’의 기습작전에 한반도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은 수해방비대책에 허를 찔렸고, 태화강의 범람에 강 인근의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다. 시청자가 제보한 태화시장 건물 위에서 찍은 영상에는 성난 물결이 거칠게 질주하며 상가 천장까지 뒤덮었고, 아이들 장난감처럼 차량들이 둥둥 떠밀려가는 장면과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됐었다.

반천의 현대아파트도 대암담에서 쏟아지던 물과 폭우로 순식간에 팔 팔 불어난 수량은 900여 대의 차량 침수를 가져왔고, 단전 단수 사태를 불렀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던 아파트 주민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에서 다 벌어지나.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상 속에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마치 폭포처럼 들이붓듯 쏟아지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처럼 취재기자들이 발 빠르게 도착해 현장상황을 미처 다 못 담아 내더라도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대보급으로 제보를 받아 거의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이 가능해졌다. 평온한 삶속에 예고 없던 재난이 들이닥칠 때 뉴스와 속보를 통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긴박한 순간의 뉴스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에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 언론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빛을 발하며, 언론은 빛과 소금처럼 요긴한 것이 된다.

필자는 마치 갓 전쟁을 치러낸 폐허의 도시 같고, 블록버스터 영화 속 무대세트처럼 을씨년스럽던 고향 울산의 재난현장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현장을 가감 없이 생생히 담아냈던 언론들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고, 후속대책들이 잇달아 그나마 위안이 됐다.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수해현장을 찾아와 배풀었던 온정은 그나마 실의에 빠졌던 이재민들을 위로하고도 남았다.

정부를 비롯한 울산시와 민관군 할 것 없이 총동원 되다시피 투입돼 재난의 현장을 일상으로 되돌려준 노력도 수재민들에게는 고마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시민들이 보여준 의젓한 행동은 귀감이 되고,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감동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필자의 인근에 사는 한 분은 태화시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로 119나 112나 전부 복새통을 이뤄 출동하지 못한다고 했다. 차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네비게이션을 떼서 10여 분 유리창을 타격해도 깨어지지 않았으며, 물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이제 1~2분이면 차량 안에서 목숨을 잃

어버릴 판이었다. 바로 그때 시장의 식육점 아저씨가 벽돌을 들고 와 유리창을 깨고 거센 물살을 헤치며 잡아끌어 상가 2층으로 겨우 대피했다고 했다.

지난 13일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던 태화관광 고속버스 사고 현장에서 일선교사 한 사람이 보여준 행동 또한 우리 사회가 그래도 희망사회임을 보여주었다. 때마침 강원도 동해에서 창원 부모님 집에 가던 소현섭 묵호고등학교 교사(30·윤리담당)가 불타는 고속버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승객 4명을 긴급 구조했고, 자신의 승용차로 울산의 병원까지 부상자들을 직접 이송했다. 울산이 초행길이었음에도 그는 윤리교사의 윤리를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긴박한 순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베푸는 재빠른 구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견인하는 위대한 능력이며, 선량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선행위가 된다.

굿뉴스울산 박정관 편집장(중구뉴스 기자)

울산항만선교회 선원휴게소 개축 감사예배

파란만장한 바다 환경과 씨름하는 선원들

영육간의 쉼터 제공할 선원휴게소 개축

강요한 선교사 전임사역자로 임명받다.

시나브로 공활한 하늘에 가을이 가득 들어 차 있는바 고래마을 장생포를 바라보고 달리던 취재차량이 6부두 입간판 아래 멈추어 섰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말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밀수·마약반입·질병전파·밀항 등 기밀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촬영 때문에 다시 서류 한 장을 작성하고 임시출입증을 패찰하고 오늘 목적지인 선원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울산대교를 오가는 차량들이 코앞에서 보이며, 광활한 부두에는 입항한 대형선박들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고, 태화강 하구와 맞닿은 항구 건너편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이 두 눈에 들어왔다. 부두 끝자락에 가면 있다는 안내자의 말대로 선원휴게소 2층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9월 23일 오전 11시 울산항만선교회 선원휴게소 개축 감사예배 및 전임선교사 임명예배를 드렸다.

장생포교회를 담임하는 박창식 목사(울산항만선교회 회장)의 사회

로 시작된 예배는 묵도, 507장 찬송, 김영용 목사(이사, 세계로교회)의 기도, 권완용 장로(부회장, 강남교회)의 성경봉독, 김만출 장로(은광교회)와 장생포교회 청년회의 특송, 이영춘 목사(이사장, 한울교회)의 설교, 정연하 장로(회계, 울산은혜교회)의 경과보고, 임명장수여, 축사, 이석배 목사(총무, 주님의 숲 교회)의 인사 및 광고, 323장 찬송, 김명준 목사(자문위원, 주전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영춘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본문을 배경으로 ‘선교와 향만선교회’라는 제목으로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향만선교회에서 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울산항에는 하루 천 명의 선원들이 들어온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크나큰 영광이다. 오늘 이 자리가 복음전파의 더 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정연하 장로는 경과보고에서 울산항만선교회의 창립배경과 그간의 활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20여 분 간 브리핑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계 각국의 선원들이 이곳을 찾아와 휴식을 취한다. 그들이 편하게 쉬도록 안마기를 비치해두었고, 게임기와 당구대 등을 마련했다. 또 영화감상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 현재 30여 개국의 선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7개국으로 번역된 4영리 자료를 활용해 전도하고 있다. 또 이발봉사 및 신앙상담 등을 통해 고단한 삶의 위안이 되어주고 있다.”

이성택 목사(울산기독교연합회장, 서현교회)는 “국내에서 하는 복음

전파를 전도라 하고 해외에서 하는 복음전파를 선교라 한다. 오늘 여기 와 보니 울산항만선교회는 안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해외선교가 되니 이 일이 귀하다. 우리가 이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오늘 임명받은 강요한 전임선교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고 축사했다.

양성태 목사(울산사랑실천운동 사무총장, 태화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을 축복한다. 우리가 더욱 이 일에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자.”고 축사했다.

조규상 장로(울산장로총연합회장, 울산성광교회)는 “울산항만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외국선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국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사역자이다.”라고 축사하며 격려했다.

장생포교회 박창식 목사는 인사말에서 “어느 날 선원들이 급하게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을 만나러 갈 때 두려운 상황이었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그들을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향만선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긴박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지 않은가.”라고 직접 겪은 일화를 들려줬다. 또 “땅 끝에서 와 정박하고 있는 세계선교 현장이 되는 황금어장 울산항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마음으로만 품어온 세계선교 사역의

꿈을 울산항만선교회와 동참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함께 써가자"고 역설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모든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1층으로 이동해 선원휴게소 입구에서 이 날의 행사를 기념하는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바닷바람을 버티고 서 있는 선원휴게소에서 더 많은 구원의 결실이 맺히길 기도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6. 9. 23.)



울산 방어진 슬도항 등대

제3울산교회 김두삼 목사 위임감사예배

1월 22일 주일 오후 7시 북구 화봉동에 소재한 제3울산교회에서 김두삼 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위임국장 김광수 목사(품은교회)의 집례로 시작된 예배는 29장 성도여 다함께 찬송, 정성일 목사(왕성교회)의 기도, 김용건 목사의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성경봉독(농소제일교회), 호산나중창단 찬양,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설교로 진행됐다. 2부 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의 기도, 서약 및 공포, 배영한 목사(중산교회)의 권면으로 이어졌다. 3부에서는 축하 및 답례시간으로 진행돼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를 합창한 후 이우탁 목사(화봉교회)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갈무리했다.

고신교단 중경총회장 정근두 목사는 '좋은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물세례라는 의식이 필요 없었지만 물세례 받는 신자들을 대신했다. 우상숭배와 음란의 패역한 백성을 멸절하려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심판을 거두셨다. 이처럼 좋은 목회자는 첫째 목회자와 성도들을 동일시하는,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운명공동체가 돼야 한다. 둘째 왕·선지자·제사장처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쳐야 한다. 베드로처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옥재부 목사(북울산교회)는 권면에서 "나는 11번의 항암치료를 받

았다. 샤워를 하면서 물살이 살갓에 닿을 때 온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듯 통증을 겪는다. 그때 하나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네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지금의 고통처럼 아픈 것이다’라 하셔서 깜짝 놀랐다’는 일화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사소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남영 목사(서원교회)는 “김두삼 목사와는 고신대학교에서 알게 돼 30년지기다. 컴퓨터도 잘하고 성품도 좋다고 울산교회에 내가 추천했다. 이삿짐도 날라주었고, 목사안수 받을 때는 내가 사진도 직접 찍었다. 김 목사와 같이 목회하며 나보다 먼저 개척하고 교회도 더 크고, 성도도 더 많아도 질투대신 기분이 좋았다. 큰 짐 질 때는 무거워도 그 게 축복이다. 위임에는 책임도 따르지만 축복도 크다”며 축사했다.

김성민 목사(광영교회)는 “김두삼 목사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이 건전한 고신교단의 목회자다. 신앙관이 뚜렷한 정통성을 겸비했는데 오늘 제3울산교회에서 위임받으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요즘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다. 그러나 김두삼 목사는 삶과 정신이 건전한 목회자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담임목사를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받았다”고 축사했다.

김두삼 목사에게 교우들을 대표한 김광줄 장로가 위임축하의 뜻을

담은 순금열쇠를 전달했고, 고신대 동기생들의 축하노래에 이어 오케스트라 앙상블은 존 번연이 지은 ‘나 같은 죄인살리신’을 축하연주로 선물했다. 김두삼 목사는 “먼저 위임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저에게 ‘우리교회 목사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힘내세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요’라는 교우들에게 감사한다. 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7. 2. 7.)



울산 언양의 찬타배 레스토랑 전경

장생포 원조 고래빵

장생포가 포경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울산은 포경산업의 전진기지로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돈이 넘쳐났다. 심지어 동네 개들도 천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인심도 더없이 넉넉했다. 한창 때는 2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고 장생포 초등학교는 2천명의 재학생들로 운동장이 북적거렸다. 장생포 초등학교 출신 동창생들은 시내 중학교에도 더러 입학했지만 용연의 처용암으로 넘어가는 석유화학공단 초입의 대현중학교로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부곡에서 장생포까지는 거리가 멀어 그 당시 스쿨버스가 등·하교 때마다 교정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동창생들은 까까머리에 교복 차림새로 서로 먼저 타려고 앞 다투어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던 장생포가 1986년 포경이 금지되면서부터는 사정이 전혀 판판으로 달라졌다. 동네 전체가 쇠락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때맞추어 주민들은 시내로 대거 빠져 나갔고, 아파트 붐이 한창일 때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래문화마을이 울산항만 공사 뒤편에 터를 잡아 70~80년대 당시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 재현해놓고 옛날의 흔적을 일러주고 있다.

포경 금지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장생포가 고래의 기치를 내건 덕분

에 되살아났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장생포가 고래문화특구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울산’ 하면 ‘고래도시’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고래축제를 비롯해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 등 짙짙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답답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던 무렵 필자는 장생포마을의 어느 평범한 주부가 대박을 터뜨린 일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다. 그 취재 뒷이야기를 잠시 옮겨보기로 한다.

장생포에 고래문화특구 개발 붐이 일어나기 전 최향감 여사(‘원조 고래빵’ 사장)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그녀가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입구의 매표소 매점에 입찰을 거쳐 들어가게 되었다. 실로 우연한 기회였다. 그곳에서 고래인형과 잡화 등을 팔던 최 사장은 어느 날 여기서 고래빵을 구워 팔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평범한 주부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러 군데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2008년, 울산과학대 교수를 통해 고래빵에 대한 레시피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여기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해 특허를 냈고, 고래빵을 만드는 기계까지 독자적으로 주문해서 만들었다. 최 사장이 개발한 ‘원조 고래빵’은 고래문화특구 조성 붐을 타고 차츰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원조 고래빵’은 고래축제 때나 주말이면 긴 줄을 서야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전

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택배로 주문이 들어올 만큼 인지도가 올라갔다. 최 사장은 내친김에 지역의 정서를 십분 활용한 끝에 ‘처용빵’에 이어 ‘용기빵’도 개발해 특허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녀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입구 매점에서 7년간이나 고래빵을 만들어 팔았지만 재입점의 기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이 곳의 매점은 3년마다 입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었다. 입찰에서 밀린 최 사장은 가까운 곳에서 점포를 얻어 보려고 했지만 빈 가게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일 년간이나 월세를 주면서 원조 고래빵을 구워낼 수밖에 없었다. 최 사장이 가까스로 근처에서 다시 가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의 일이었다. 최 사장은 “이제 원조 고래빵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타 공인의 지역 특산품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근자에는 경쟁상품이 생겼다. 남구청에서 개발해 시판하려는 고래만주와 고래문화마을 안의 또 다른 고래빵이 경쟁 무대에 뛰어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원조 고래빵 최 사장은 최근 지역방송국의 갑작스러운 인터뷰에도 응해야 했다. 필자는 경주의 황남빵과 경주빵, 천안의 호두과자처럼 장생포 특산 고래빵도 맛과 함께 다양성까지 갖춘다면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래빵도 ‘다양성’이라는 인프라를 갖추는 가운데 다 같이 발전하는 ‘상생’의 앞날을 회구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박정관 굿뉴스 울산 편집장, 중구뉴스 기자

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 토요일예배 현장스케치

(사)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는 센터건립과
울산에 있는 6천 여 명의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자가 더 늘어나도록 기도해오고 있다.

(사)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회장 남현관 안수집사) 따끈한 취재 기사를 막 작성하려고 커피믹스 한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을 열어젖힌다. 아까 학성공원 끝자락에 붙은 담벼락에 취재차량을 주차하는데 세찬 비바람에 후두둑 떨어진 낙엽들이 차량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우산을 펼쳐 선교회 쉼터로 향하는데 발밑에서 흥건히 고인 물에 뚱뚱하게 떨어지는 낙엽이 짓밟혔다. 시나브로 이렇게 소리 없이 가을은 기척을 알리고 있으며, 추석연휴가 맞물렸음에도 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예배의 현장을 사모하며 찾아왔다. 28일 발행되는 굿뉴스울산 21호 기획특집 기사로 시각장애인 쉼터 탐방기사가 나갈 예정이다. 일전에 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가 여름수련회를 양남교회에서 가졌는데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다.

그래서 선교회 쉼터에서 고여림 간사와 윤광계 권사로부터 선교회의 더 깊고 내밀한 사정을 취재하게 됐다. 그 자리에서 “간증설교를 한 번 듣고 싶다”고 제안한바 오늘 예배에서 이금희 목사는 굿뉴스울산의 창

간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본지의 요청에는 항상 우선순위로 섬겨왔던 위너스워십 찬양팀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추석연휴를 이어가는 새벽녘부터 제법 많은 비가 이어졌으며 선교회 쉼터의 주차장은 빈자리가 없었다. 차량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시각장애인들을 실어 날랐고, 주차안내자들은 우산으로 성도들을 안내했다. 벌써 도착해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찬양소리가 빗속을 뚫고 천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큼 거룩한 곳이 없지 않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의 현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남현관 안수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예배는 사도신경, 82장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워십찬양, 설교, 헌금, 축도의 순서로 이어졌다. 임승철 집사는 기도에서 “오늘도 이 쉼터에 나와 예배드리 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소서.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쉼터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울산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게 하소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 주시고,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했다. 전근자 집사는 신앙고백의 심정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고여림 간사가 봉독한 누가복음 7장 9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이금희 목사가 ‘경계를 넘어서서’ 라는 제목의 간증설교를 시작했다. 이 목사

는 맨주먹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태준 회장과 이랜드그룹의 창업주 박성수 회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불퇴전의 믿음을 소유했고, 그것은 기적으로 실현됐듯이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 도전장을 던질 것을 주문했다. 또 중도 실명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도미해 부시대통령의 장애인인권차관보까지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의 신앙과 삶을 전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문서 선교의 사명으로 허락하신 굿뉴스울산의 창간에 얹힌 일화와 4년간의 여정에 대해 간증했다.

김은희 단장이 이끄는 위너스워십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선율에 맞춰 세 사람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하모니의 천상의 춤사위를 선보였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정성들인 춤동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를 빛낸 워십찬양팀에게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든 순서에 따라 예배를 마치고 단체촬영으로 기념하는 사진을 남겼다. 어느 곳 같으면 금방 촬영이 끝나지만 이 곳 선교회에는 기념사진을 찍는 순서가 유난히 오래 걸렸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사소한 하나의 동작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눈이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2부에는 주방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정갈하게 하나씩 하나씩 놓여졌다.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식탁을 보조하는 도우미로 나서서 금세 오찬 세팅을 끝냈고, 모두들 맛난 음식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

다. 우연히 선교회에 봉사하러 왔다가 복음을 접한 한 학생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장학금까지 받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편 (사)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는 센터건립과 울산에 있는 6천 여 명의 회원들을 위해서, 또 봉사차량의 기증과 물심양면으로 섬길 봉사자가 더 늘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오고 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

새해를 맞으며

2017 새해에는

요셉같이 고난이기는 승리를 누리며
다윗같이 왕의 면류관 씌움을 받고
다니엘같이 나라 민족 구하며,
바울같이 쓰이는 축복을 주소서.

주의 일에 헌신봉사하며
여태껏 흘린 눈물과 땀
지극정성 지성감전을
주께서 헤아려 주소서.

텔런트 이광기 집사 간증집회

동울산순복음교회(성기찬 담임목사)는 2016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동구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부흥성회를 열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강사를 모시고 이웃초청집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했다. 텔런트 이광기 집사와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담임)와 양성태 목사(태화교회)가 각각 강사로 나섰다.

본지는 이금희 발행인과 박정관 편집장·배기용 사진부장이 취재팀으로 동행해 주일저녁 집회현장을 찾았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안내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성전에 들어서자 이미 찬양의 선율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성기찬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성회는 신앙고백, 기적의 하나님 찬양, 대표기도, 광고, 강사소개, 권점식 목사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강숙은 권사는 대표기도에서 “동울산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성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이 기회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귀하게 쓰시는 이광기 집사를 보내주시니 간증하는 입술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 간증의 체험을 공유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간구했다.

강사로 나선 이광기 집사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첫마디는 큰 아들 석규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하늘에서 큰 아들을 데려갔는데 경황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는 아들의 옷자락을 쥐고 5일 동안 구슬프게 울어댔다. 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교회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전해도 당시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매스컴에서 석규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는 울분을 참기 힘들었고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들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에 수없는 원망을 퍼부었다. 교회에서 찾아와 예배를 인도해주었지만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외출하기만 하면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석규에 대해 말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그는 아이가 생각나서 슬픔을 억누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못가고, 병원에도 못가고, 결혼식장과 돌잔치도 가기가 힘들었다. 해가 바뀌고 입학시즌이 되자 살아있다면 이제 막 입학할 석규에 대한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그때마침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났고, TV·신문 등 온갖 매스컴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그러나 아이 생각 때문에 그런 TV·신문조차 멀리했다.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이 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즐거운 방송만 골라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정애리 권사의 전화를 받게 됐다. “이광기씨, 저 정애리예요. TV를 보니 아이 장례식에 십자가가 있던데 크리스천

이시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봐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문자를 보내주며 격려해주었다.

석규는 아쉽게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이의 보험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아이의 생명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때 정애리 권사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 전화를 했다. “권사님, 우리 아이의 귀한 생명보험금으로 아이티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월드비전을 소개받고 석규의 생명보험금을 그곳에 기부했다. 그런데 월드비전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이 선생님, 지금 아이티의 현지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석규의 보험금을 기부한 내용을 언론에 한번만 내주시면 더 많은 후원자가 생길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허락했더니 이 내용이 조선일보에 기사로 실렸다.

이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져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에서도 연락이 왔다. “지금 아이티를 위한 긴급모금 생방송중입니다. 이 선생님이 직접 아이티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영상을 찍어 방송으로 내보내면 많은 후원금이 답지할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내와 딸아이가 만류했다. 위험한 현지에서 혹시 아빠까지 잃을까봐 염려해서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아이티 현장에서 그는 석규가 생전 그렸던 그림이 그

려진 티셔츠와 옷가지를 나누어주었고, 아이들을 돌봤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 잃은 8살 아이 한 명을 만났다. 자신은 아이를 잃었고, 그 아이는 부모를 잃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 꼭 부둥켜안으며 체온을 확인했다. 꼭 한번만 석규의 체온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듯 아이의 몸은 따뜻했다.

그 아이는 나중에 그의 양자가 됐다. 그 후 텔런트 이광기 집사는 지금까지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를 비롯한 자선활동과 기부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집회의 현장에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 “석규가 하늘나라로 가서 눈물로 맺은 꽃이 되어 나는 지구촌의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됐다. 나눔이 생명이고, 남의 눈물 닦을 때 어느새 내 슬픔이 치유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광기 집사님이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통과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이 생명나는 법칙을 이 집사님을 통해 발견했다.”고 말했다. 은혜로운 간증의 꽃다발을 선물로 받아든 참석자들은 텔런트 이광기 집사와 기념촬영을 함께 했다.

박정관 기자

굿뉴스울산 기독교신문 장현서 이사장 취임예배

재창간의 정신으로 새로 비상하는 도약 기대

교계의 좋은 소식전하는 ‘굿뉴스’가 되라 축사

신임 장현서 이사장 취임 인사말 통해

“정론직필의 정론지로 거듭나도록” 당부

지난 5일 순식간에 일어난 태화강 범람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방송·언론에서 울산은 단번에 핫이슈가 돼버렸고, 영상 속의 태풍 차바가 활취고 지나간 수마(水魔)의 흔적은 끔찍했다. 이번 태풍과 폭우의 기습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너무 재빠르고 예상 밖이었다. 집중호우에 비해 배수가 느린 도시특성이 태화강을 차고 넘치게 했다. 주택가를 내몰아친 범람하는 물들을 보며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장탄식만 쏟아낼 뿐이었다. 도심은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고 건물들이 단단해서 차라리 지난번처럼 지진을 무서워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는데 허를 찔렸다. 그럼에도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처럼 태양이 찬연하게 지상의 사람들을 위무(慰撫)하며 대명천지를 선사한다. 어차피 지난 일, 냇을 잃고 주저앉기보다 힘내어 복구에 혼신을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굿뉴스울산 기독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이사장 취임예배를 준비

하기 위해 초대장을 만들어 발행인과 직접 전했고, 곳곳에 초대문자를 보냈다. 10월 6일 서울산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취임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김두삼 목사(제3울산교회 담임, 논설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장병섭 포항취재본부장 대표기도, 성경봉독, 워십찬양, 설교, 봉헌과 워십찬양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취임식은 추대패 전달, 취임사, 축사, 축하연주로 이어졌고, 김정호 목사(울산북부교회, 고문)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택 목사(울산해비타트 이사장, 서현교회)는 누가복음 2:10~14절을 본문으로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의 설교에서 “어제 울산에 물난리가 나서 전국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좋은 소식이 굿뉴스니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 굿뉴스울산은 울산의 교계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당부한다. 또, 장현서 장로님이 신임 이사장이 됐으니 굿뉴스울산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문이 되라”고 축언(祝言)했다.

덕하교회 김형태 목사는 축사(祝辭)에서 “장현서 장로님이 새 이사장으로 추대됐으니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기를 바란다”는 짧지만 핵심이 담긴 축사를 남겼다. 울산극동방송 강필성 지사장은 “굿뉴스울산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계의 유익한 여론을 형성해 주길 바란다. 또 크리스천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굿뉴스울산이 덕망 있고 훌륭하신 이사장님을 추대하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울산 땅을 든든히 지키고, 교계의 기쁜 소

식을 전하는 큰 나무가 되어 달라. 오늘 장현서 장로님의 이사장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린다”고 축사했다.

울산광역매일 정종식 편집국장은 축사에서 “신문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으로서 가까이서 굿뉴스울산을 3년 여 지켜보게 되었다. 굿뉴스울산이 작은 매체였음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신임 이사장을 추대하니 가일층 발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기독교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애가 기본정신인 줄 알고 있다. 이런 가치를 담아 신문을 발행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신임 이사장님을 추대하니 재도약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재창간의 버금가는 비약적인 도약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현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명함에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직함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너는 주님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영광 돌린 제목이 있는가?’ 자문자답하게 되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고,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노년에도 해비타트 봉사로 섬겼던 지미카터 대통령처럼 아름다운 갈무리를 꿈꾸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소명이 아닌가”라고 믿음의 소회를 피력했다.

이날 준비찬양과 반주를 도왔던 에벤에셀 찬양팀이 활기찬 예배를 도왔고, 창간초기부터 물심양면 본지를 섬겨왔던 김은희 굿뉴스 워십 단장은 ‘죽으면 죽으리라’를 강형미 마하나임 워십단장은 ‘그렇게 살아가리’ 워십으로 축무(祝舞)를 선보였다. 샌드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김상식 목사는 심금을 울리는 색소폰 선율의 ‘사명’을 예배당 가득 흠뻑했다. 이 날 행사에는 경북매일 김규동 기자와 장병섭 장로가 언론인홀리클럽 회원 자격으로 방문해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서울산순복음교회(이희창 목사)는 행사를 위한 장소와 편의를 제공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6. 10. 6.)



울산 용연 여름낚시

김문훈 목사 울산 남구청 특강

제173회 남구한마음대학 강연이 11월 9일 오후 2시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강사는 ‘CTS TV밀레니엄 특강’과 ‘CBS와 워특강’ 등 활발한 방송출연과 “쓰임 받는 사람의 축복” “하나님의 본심” 등 십 여 권의 저서를 발간한 부산포도원교회 담임 김문훈 목사가 나섰다. 그는 〈베스트컨디션〉이라는 주제로 목회현장의 스케치와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풍경을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풀어놓았다. 1시간 3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강당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필휘지로 그려지고 촌철살인으로 묘사되는 그의 말솜씨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며, 좋아서 무릎을 치며 공감의 박장대소를 이어갔다.

그의 미덕은 성경속의 용어를 이 시대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일상적 언어로 환치해 표현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묶여져 있는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교회의 담장의 경계를 넘어선, 비신자들도 알아듣기 쉬운 정확한 용어로 콕 찌어주니 사람들은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그의 스토리텔링에 반하게 된다. 그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형편 등 세상살이가 척박할 이런 때일수록 베스트컨디션을 잘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또 “목마른 사람처럼 일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하고, 부정적인 뼈딱한 시선보다는 긍정으로 풀어나가고, 활화산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

“이왕할거면 남이 해줄까 쳐다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언제라도 해야 처리할거면 지금하고, 힘차게 감당하다보니 어느새 성취돼 있더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의했다. “어느 기업체 사장님은 내 강의를 듣고 메모했다가 직원들에게 그대로 교육하니 통하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지독하게 추구했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욕심이다.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 그는 최선의 열정을 쏟고 있으며, 그런 노력으로 현재 그가 담임하는 포도원교회는 재적이 2만 5천 명에 이르며, 일 년 동안 3천 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욕심이다.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막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때를 맞게 된다”고 했다.

그 다음은 배움에 대한 욕심이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실천할 때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다.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보통 교수들이 30강의면 밀천이 드러난다. 나 자신도 15년 동안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오후 2시 남구청 특강을 하러 오기 전 새벽기도회 3회를 인도하고, 1200명의 노인대학 강의를 마치고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강의를 마치고 또 다른 일정 속으로 분망한 걸음걸이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는 “아, 강의를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며 기분 좋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박정관 기자(2016. 11. 9.)

새터민들의 신앙과 자립 돕는 예사랑교회 탐방후기

새터민 지원센터에 관심과 기도 당부

북한선교에 큰 족적을 남겨 달라 축사

20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일선교대학 1기를 수료한 김철호 목사. 그는 곧바로 중국접경지역 내지를 탐방하면서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지만 그동안 북한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작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북한선교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번에 그는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들의 예배공동체 예사랑교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울산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대학교의 외래교수, 울산기독교연합회, 나눔과 기쁨 사역 및 각종 단체를 섬기며 목회현장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활동 또한 왕성하게 펼쳐왔다.

김철호 목사는 새터민교회는 여건상 초기자립이 어렵다며 새터민 전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울산에는 600여 명의 새터민이 거주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는 새터민들의 도우미로서의 일반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둘째는 ‘이미 이루어진 통일’ 이요 ‘통일의 마중물’ 인 새터민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자원봉사자들로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

고 있다.

김 목사는 현재 YMCA 강당을 예사랑교회로 빌려 쓰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매주일 예배를 드려오다가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 창립예배를 드리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기하성 부산지방회에서 주관한 창립예배는 문준서 목사(금빛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사도신경, 찬송 320장, 기도,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성경봉독, 특송, 설교, 창립서약 및 선포, 권면, 축사, 축하연주, 광고, 축도순으로 이어졌다.

최성구 목사(순복음명륜교회)는 대표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협력자,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정구영 목사(순복음서면교회)는 설교에서 “부산 영도에 새터민교회가 있다.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주의 좋은 쓰임 받는 축복을 원하지만 주님이 복음 주셔야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심장으로 양을 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것이 정도다. 온갖 세미나를 다녀봐도 결국 주님의 말씀이 왕도이다. 그 말씀으로 양무리를 잘 목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근 목사(순복음안락교회 원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꼭 찬탈북민에게 김일성사상은 그들에게 종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폭탄에 녹아지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또 사랑으로 충만해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공희철 목사(순복음부산교회)는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 받아 새터민 사역을 맡았으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복지선교 및 학원선교를 해왔으니 그것이 밑거름 돼 지금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길 바란다. 가족들도 함께 협력해 달라. 시편 107편에 나오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부흥성장을 꼭 이루라”고 축사했다.

김경호 목사는 축사를 통해 “첫째 김철호 목사는 미남이며,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바 이번에 창립에 감사한다. 둘째 울산YMCA에 예사랑교회를 설립할 수 있어 감사한다. 셋째 예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며 북한선교에 큰 족적을 남길 줄 믿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목사는 “1922년 구소련이 공산권 된 지 69년 만에 공산주의를 탈피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 되고, 2400만 북한을 대표하는 탈북민교회가 뚜렷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며 선교단체와 협력하면 북한선교 70년을 즈음하는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 북한의 분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호 목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20년 전부터 기도한 것이 이제 응답됐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복음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다. 북한선교학교를 일 년 서너 차례 개최할 것이며 북한 내지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

들에게 감사하며 울산의 600여 새터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인터뷰 자리에서 김 목사는 “북한과는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새터민들이 잘 정착하도록 새터민 지원센터를 열 계획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정된 정착을 하도록 취업 및 창업지도,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을 실시할 것이다. 새터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받는 것만 아니라 나눔의 실천도 교육할 것이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



울산대교 전망대 옥상에서 찍은 울산대교 모습

민들레의 이름으로

박정관 作詩

콘크리트 벽 아래 흙 한줌에
생명의 전율로 너는 핀다.

겨울 지났단 기상캐스터
알림 없이도

분망한 사람들 응원가
한 소절 없어도

콘크리트 벽 아래 흙 한줌에
생명을 담보로
너는 핀다.

짓밟힘 한 번에 끝날 생애
낮의 더위 밤의 추위
아랑곳없이

순수의 절정으로
민들레의 이름으로
너는 핀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신문과 관계된 일을 수십 년 하면서도 기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었고, 굳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다 20대 초반에 신학생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방황도 했지만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기에 더더구나 기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잘 알고 있던 여 목회자 한 분이 “꿈에 기자가 되더라”고 전해서 그 얘기를 듣고 “턱도 없는 일”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분의 꿈이 현실이 돼 버렸으니 참 신기한 일이다. 5년 전 중구청에서 발행하는 중구뉴스 기자 모집광고를 보고 서류접수를 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기이했다.

중구뉴스에 합격하여 기자증을 들고 있는 나에게 각종 방송사가 서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인터뷰를 하는 장면 때문이었다. 한편 나는 중구뉴스 기자로 있을 때 지역신문에 칼럼기고요청을 받고 글을 써 보냈다. 그 후 “굿뉴스메모”라는 칼럼과 기명칼럼으로 지역신문 두 곳에 기고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다섯 명의 사람을 필진으로 두 신문사에 소개하기도 했다.

굿뉴스울산 창간 초기 발행인 및 편집인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이름

이 기록된 A4용지 한 장을 들고 발행인과 내가 동분서주할 때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까’ 하는 주변의 눈초리를 느꼈다.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 취재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내실도 많이 다졌다. 한편 지금까지 쭉욱 돌아가는 사정을 헤아려보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

굿뉴스울산의 편집장으로서 취재현장에서 취재하며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물론 사진부장이 현장취재를 거들며 고급한 사진을 찍어줘도 월급주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진을 겸하여 찍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삼성갤럭시 카메라로 수 만장의 컷을 남겼다. 그것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했다.

이제 예전 필름카메라를 쓸 때처럼 인화해서 사진을 앨범에 남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다. 그동안 몇 년간 썼던 갤럭시 카메라의 렌즈가 닳았고, 판매가 중단됐다. 그래서 부득이 일전에 소니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리고 카메라 작동법도 익힐 겸 현장사진을 닳기 위해 고래문화특구를 찾았다. 입춘을 전후한 장생포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 이번 지면편집에도 반영했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쳤고, 히딩크 감독의 환상적인 전술과 태극전사들의 투혼이 빚어낸 결과가 꿈같은 4강 진출이었다. 경기장의 태극전사를 응원하던 관중석 위로 물결치듯 대형태극기가 스르르 지나갔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선명한 문구의 글씨도 스포트

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꿈꾸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간다. 인생의 복잡다단, 파란만장한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간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흘러내리듯,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듯, 저녁노을로 태양이 이울 듯, 나뭇잎이 떨어져 낙엽이 되듯 그렇게 시간은 스쳐 지난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꾸는 자가 되어야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꾸는 자의 언어는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되고 거짓말처럼 허탄하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희망의 말로 긍정적인 인생의 에너지를 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박정관 편집장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 본 울산대교 야경

기회의 화살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 가뭄이 심해 거북이 등딱처럼 갈라진 땅에는 샘물조차 찾을 수 없고, 물 근원이 끊겼지만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퍼센트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비가 올 때 까지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우스운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끈질긴 사람 앞에 당할 재주는 없는 것이다.

청도 소싸움 축제의 현장을 탐방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같이 동행한 친구는 경품에 응모한다고 안내하는 도우미들과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당첨될까?” 하며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친구는 곳곳하게 응모권을 서너 장 받아들고 왔다. 경기장 안의 소싸움은 두 마리씩 대전이 이어졌는데 빨리 결판날 때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구경꾼 입장에서는 싱거울 수 있지만 ‘안 되겠구나’ 싶으니 바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소들은 30분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해설자는 기막힌 설명을 사족처럼 덧붙였는데 정말 그대로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두 마리의 소가 힘을 겨루다가 지치면 ‘불알’과 ‘헛바닥’이 축 늘어진다고 했다. 정말 경기를 치르는 동안 해설자의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소들이 맞대응한 채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만

큼 애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끈기가 센 놈이 이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 청도경찰서장이 뽑을 차례에 주유상품권이 친구가 뽑은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30만 원 경품을 받은 친구에게 엄청 편잔을 들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의 화살들이 날아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이, 귀찮아’ 하며 피해버린다. 또 ‘안 될거야’ 하면서 회피한다. 그때 친구의 실낱같은 희망과 끈기가 좋은 결과를 불러들였던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의 중매를 썼다고 한다. 여자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고, 노총각은 미혼이었다. 그래서 간단한 식사대접을 받고 프로필과 함께 소개를 하고 연락처를 건넸다. 서로 연락처를 건네받은 두 사람은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보통 분위기 있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데서 만나는 것이 좋을 텐데 두 사람은 평범한 식당에서 조금 소란한 가운데 만났다고 한다.

그래도 남자는 관심이 있는 눈치였는데 여자 쪽은 아예 연락두절이 됐다. 몇 차례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 소개한 입장에서 인격적인 상처까지 됐다고 한다. 중매한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말로 거절을 표하거나 문자 한 통만 남겼어도 족하지 않은가. 그런 모난 성격이면 관계의 형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획

하나 추가하면 ‘남’이 된다. 많은 선남선녀가 결혼하지만 또 상당한 숫자가 이혼하며 헤어지는 현실이다. 쿠피드의 화살이 심장을 적중하면 그것은 좋은 징조가 된다.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잣대가 많으면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없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비롯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좌불안석을 동시에 보게 된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든든하게 서려면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정체성에 흔들림 없어야 한다. 그런 다음 힘주어 말했을 때 멋있는 지도자가 된다. 기회의 화살을 잡으려고 이합집산으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 불리는 꿈이 확실해야 한다. 아울러 꿈을 이루는 꾀, 조직연대의 끈, 끈기라 불리는 깡을 두루 겸비해야 한다. 기회의 화살은 준비된 자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명중할 것이 분명하다.

박정관 기자

글·사진·동영상, 현대판 신언서판(身言書判)

중국 당나라에서 관리들을 채용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중요시했다고 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신수가 흰해야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보다.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은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절에 말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의 구변이야말로 탁월한 증거수단이었다. 또 먹을 머금어 붓끝으로 쓰던 글씨야말로 내재된 속사람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력이 뒤따른다. 이것은 우리 전통과 관습에 뿌리내려 선비들의 자격을 논하는 근거도 되었다.

첨단기기가 확산되어 실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우리 사회에서 글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도구가 됐다. 저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진, 성장한 딸의 페이스북 폭로성 글로 인해서 낙마했다. 후보의 과거사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딸의 글이 방송과 인터넷을 타고 천리마처럼 달려 폭풍처럼 휘몰아쳐 한방에 혹 가버렸다.

한편 스마트 기기로 녹음까지 자유자재로 되는 현실에서 글은 말과 결합해 파급력이 메가톤급이다. 각국의 정보를 담당하는 안보기관에서 테러분자들의 선동하는 글을 삭제하고 동영상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로 치부하고 꿈적

않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야 필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엇그제 발표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글·사진·동영상이 패키지 상품처럼 하나로 단단히 묶여져 있고, 현대판 신언서판으로 대체된 느낌이다. 정보기관이 선점하고 독점해 '그들만의 리그'로 누리던 혜택들은 많은 부분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알 수 없었던 고급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전개되고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색 한 번이면 바로 정보가 툭하고 튀어나와 학벌위조, 성형유무, 신분 세탁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순식간에 별거벗듯 온 세상에 까발려진다.

일전에 모 연예인과 영화감독의 사생활이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고, 그들은 도피용 해외여행중이다. 또 모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마약 때문이었다. 처음 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누범(累犯)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행한 파국을 불러들였다. 해외 원정도박, 음주운전, 마약복용, 사기사건 등 유명인일수록 범죄의 뒀에 걸리면 후폭풍이 엄청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많지 않다. 술 먹으면서 "취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내뱉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유혹이 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능사다.

내가 쓴 글은 기록이 되어 남겨진다. 미래 위의 글씨처럼 쉽게 잊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영롱한 별처럼 빛날지도 모른다. 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역사의 흔적이 된다. 한 번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나눌
과 섬김으로 선용하고 재능기부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꽃 피우는 데 쓸
일이다. 그것은 훗날에 좋은 추억거리로 남겨지고 축복의 이름으로 불
려질 것이다.

박정관 기자(2016. 6. 30.)



오디나무

뜻미당

잘린 오디나무서
새순 돋아 오르다.
기적 같은 생명력
느껴워
응원의 박수.

그 루터기만 남은
오디나무
왜 잘랐느냐
햇도 않고
잔혹하다
원망도 없이

묵묵한 순응
사람보다 나은 네게서
순명(順命)을 배우네.

찾아가는 서비스 (발행인 칼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
교회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우정시장과 태화시장도 침수피해를 겪
었다. 그 날 불일을 보기 위해 성남프라자에 가 있었는데 그곳의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있었지만 피해가 이리
클 줄은 몰랐다. 태화·우정시장에 전국의 봉사단체에서 찾아왔고, 지
자체와 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된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는 상인들의 피해를 모두 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출현하고, 부딪힐 때는 정신없어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털썩 주저앉고 마는 참담함이다. 이 곳의 재난
소식을 듣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는 10여 명의 인원이 밤에 출
발해 새벽 3시에 태화시장 파riba게트 상점을 빌려 임시구조소를 만
들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펌프로 침수된 곳에 물을 빼내주고, 방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3천만 원 상당의 생수, 햇반, 라면 등의 구호물품을
배급했다.

한편 봉사단은 아이티의 태풍 피해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기 위해 다
음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울산기독교연합회에서는 바

통을 이어받지 못했다. 지역교회에도 침수피해를 겪은 곳이 제법 됐기 때문이다. 울산과 경주 경계의 내와교회는 침탑이 주저앉고 담장이 무너져 교회를 눈앞에 두고도 담임목사는 승합차량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경주시에서 붉은 줄을 매달고 지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풍성한 울산교회는 반천 현대아파트 지하에 있는데 3일 동안이나 물에 잠겨있었다. 지하 주차장부터 먼저 물을 빼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차량 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울산기독교연합회가 이런 곳을 돌보느라 여력이 없을 때 북구청 관계자의 요청을 듣고 대영교회가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투입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장화를 신고 침수된 상점의 청소를 도왔고, 구호소에서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두 달이 지나고 성탄절 하루 전인 24일 대영교회는 다시 태화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조운 담임목사를 비롯한 800여명 교인들은 각자 3~5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데이’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의 취지는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상인들은 이런 십시일반의 품앗이 정성에 감동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사실 작은 교회들이 동원돼 이런 행사를 벌여도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교회 한 곳에서 움직이면 피해 입은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벤트가 되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세월호 사건을 겪은 안산지역의 시장에도 서울의 대형교회 한 곳이 벌써 이런 행사를 꾸준히 벌여왔다. 처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전국에서 위로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 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교인들이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자 이제 방문 날짜에 맞추어 방문 현수막을 걸고 반갑게 맞고 있다고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후의 고객감동을 미리 앞당겨 조치를 취하자는 뜻에서 한 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됐다. 한 해의 끝에 서보면 나는 얼마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한 사람이었나를 돌아보게 된다. 빈손의 인생이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 결국 사랑의 실천만이 유의미한 작품이 되어 남으리라.

이금희 발행인(2016. 12. 26.)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 여운을 남긴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만면의 미소인데 뒤돌아서서는 후안무치의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다닌다. 하다하다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면 천연덕스럽게 시미치를 딱 잡아뜯는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다. 부아가 치밀어 올라도 마음 가라앉히고 흥어처럼 삭힐 수밖에 없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담과 저주가 옹으면 당사자는 쇠망해질 것이다. 그 반대라면 저주한 사람은 자기 머리에 저주를 쌓은 만큼 폭삭 망하고 말 것이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새겨 반성문을 쓰고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살아가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줄 아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만다.

자그마한 신문 굿뉴스울산을 창간해 편집장을 맡아오면서 방금 언급한 이런 경우를 책 한 권 너끈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겪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오만방자했다. “그 따위 신문을 왜 이 곳에 갖다 두느냐”고 호통을 쳤던 사람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다. 그렇지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담을 퍼부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남을 비방할 때 검지손가락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지적한다. 그러나 권총 모양새를 띤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엄지손가락은 자연스레 하늘의 절대자를 향해 가리킨다. 절대자는 권력자라고 좌우되지 않고, 돈 많고 인물 좋다고 봐주지 않는다. 그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보호받지만 악한 자는 안개처럼 없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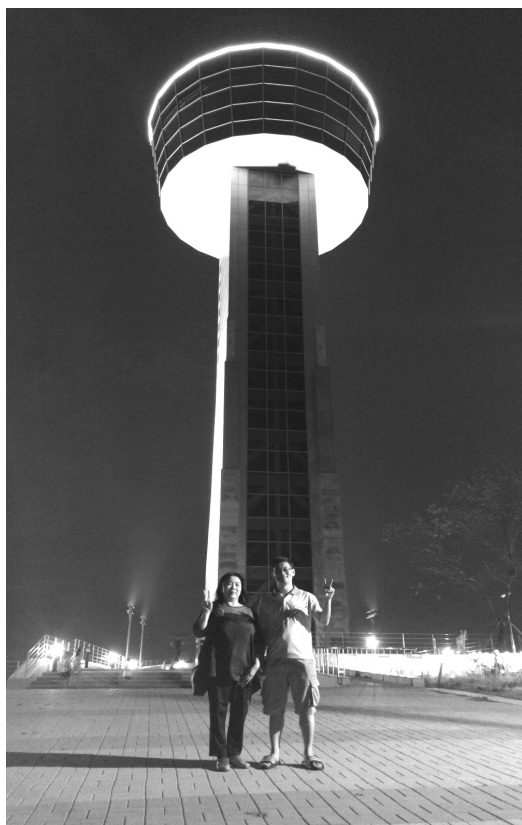
취재요청이 와서 찾아가면 자기들끼리는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대체 왜 불렀는지 모를 만큼 종 부리듯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본다. 그리고는 사진은 수십 장을 보내준다. 그럴 때 당장 지워버리고 싶지만 꼭 눌러 참고 단신기사로는 처리해준다. 최소한의 서비스도 없이 자판기 커피 한잔도 아까와 하는 사람도 보았다. 그래도 짧은 인터뷰를 하고 기사는 내보냈다.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해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면서도 축복이라고 외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어찌할 것인가.

반면 어떤 사람은 남의 필요에 상당히 민감한 축수를 가졌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선제대응을 한다. 마치 젖먹이 아이의 필요를 엄마가 척척 알아서 해주듯 편안하고 다정하게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런 사람은 선천적인 모성애를 가졌기에 자상한 말로 위로해주고 파스하게 손잡아 준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지만 역천자(逆天者)는 망하는 것이 고금의 진리이지 않은가.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말 없는 섬김의 실천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늘 남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 주려고 애쓰고, 타인의 얼굴의 미소가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임을 알 수 있었다. 무릇 남을 먼저 챙기고 대접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박정관 기자(2017. 1. 27.)



울산대교전망대 야경(언약의교회 이금희 목사,
기독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

사랑 후에 남은 상처

필자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잉꼬부부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네 남편과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느냐” 물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부인은 대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럴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 후에 남은 상처’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고, 하늘이 땅으로 꺼진 느낌일 것이다. 그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며, 켜켜이 쌓인 추억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과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필자가 잘 알던 사람 중에는 이런 부부도 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던 중,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 심각한 중년의 위기를 맞게 됐다. ‘병’이라는 닥친 침입자의 공격으로 그 가정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이다. 두 부부는 그들 앞에 들이닥친 난관을 극복하고자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 얼마 후 부인이 타계하고 말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얼마 뒤 남편은 재혼했다. 자녀들도 나이가 차자 각자 결혼해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런 사례는 '사랑 후에 남은 상처'가 비교적 잘 정리된 경우이다.

성산 장기려 박사는 춘원(春園)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모델로 유명하다. 춘원이 그를 가리켜 "성인이 아니면 바보"라고 말했다고 할 만큼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해방 후 평양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5남매를 북한에 남겨 두고 차남만 데리고 월남했다. 그는 북한에 두고 온 부인을 너무 사랑했고 살아생전 꼭 재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돌보며 재혼하지 않는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1991년 미국의 조카로부터 '북의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는 꿈같은 소식과 함께 40년 만에 부인의 편지와 가족사진을 받았다. 그는 부인과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만남을 앞두고 운명을 달리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특별방북을 제안 받았지만 자신만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에게 '사랑 후에 남은 상처'는 민족적인 비극과 맞물려 있었고,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무릇 사랑의 성채(城砦)가 견고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매일 서로 감사와 양보의 흙을 짓이겨 이해와 협조, 희생과 섬김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벽돌을 튼실하게 잘 쌓아 올려야 보람찬 인생이 된다.

사랑 후에 남는 상처를 걱정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의 고백을 미리 넉넉하게 말해보자. 내가 왜 그때 사랑한다는 한 마디를 하

지 않았던가. 일생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보자. "사랑하는 그대여, 어찌 그대가 내게로 와 나의 사랑이 되었다 말인가. 어찌 그리 많은 사람 중에 나와 인연의 끈이 닿아 '내 사랑하는 이여' 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게 하는가."

박정관 기자(2017. 4. 25.)

찬연한 일몰

쉴쉴하고 애잔하다.
빈손으로 가는 길...

창조주를 불러는 지혜
그것만이 정답이다.



목회자 이중직 논란에 대한 소회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는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됐다. 이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으로 입국한 그는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내리교회 창립에 관여했다. 그는 청년들을 모아 교육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고종 황제가 이름과 현판을 하사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 배재학당(현 배재고등학교)이다.

그의 딸 레베카도 이화학당(현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또 본국 선교부와 협력해 언더우드·게일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번역에도 몰두했다. 그러나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상황은 비관적이어서 “주여, 이 땅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백성들은 가난과 무지로 연명하듯 살았고, 술과 노름 등으로 삶은 피폐하고 비참했다.

그 당시 권력은 수구파와 개화파로 나뉘어졌고, 명성왕후 시해사건과 고종의 아관파천 등 민족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마침내 일제의 잔혹한 칼날에 대한제국은 무릎 꿇고 말았다.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만주와 상해 하얼빈 등 타국을 전전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이런 민족의 파란의 시기에 개신교의 영향력은 선진교육과 의술, 나눔과 섬김으로 핵폭발 같은 파급력으로 민초들의 삶을 파고들었다. 3·1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개신교 출신일 정도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도 기여했다. 그 후 광복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교파별로 지역을 나누어 안배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곳은 감리교회가 대다수이며, 경상도 지역에는 장로교단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침례교단의 수가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는 침례교단이 그처럼 많지는 않다. 일제식민시절 선교사들이 처음 교육할 때 한 명의 신학생을 앉혀놓고 수업했다고 한다. 그 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수많은 신학대학교가 들어섰다.

교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신학생을 필요로 했고,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세워졌고, 전국 대도시마다 지역 분교가 들어섰다. 신학교에서 양성한 목회자는 맨발의 소명자가 되어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켰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도들을 양육했다. 선교사의 유산을 물려받은 지 130년 만에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이 넘는 신자 수에 6만의 교회와 세계선교 2위를 자랑하게 됐다.

가난한 시절 부모세대들은 신앙의 힘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 결과 자녀세대들은 학벌과 재력을 받았고, 모두

자가용과 집 한 채 이상은 소유하게 됐고, 대부분 한두 번 이상의 해외 여행으로 건문을 넓혔고, 의식주 문제를 넘어 뱃살과 미용 등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종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동서고금의 통계수치다.

근자에 한국교회도 목회자들이 택시운전과 택배,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나서는 ‘목회자 이중직 허용방안’이 핫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바 이런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풀타임으로 섬기는 전임 사역자에 비해서 파트타임 사역자는 아무래도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에게 서너 명의 보좌관을 붙여주고 1000만 원이 상회하는 월급을 주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레위인이 구별돼 성전의 일을 거들고,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로 제한해 구별한 것은 거룩한 소명을 받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성직자로 구별됐다면 세상의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물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손해 보았던가.

그 그물을 내려놓은 손이 성령께 붙들렸을 때 앓은뱅이를 잡아 일으키자 별떡 일어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크게 쓰임 받았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사역자로 베드로의 이름은 칭송받고 있지 않는가. 박정관 기자(2016. 8. 21.)

검색의 시대 (발행인 칼럼)

조금 전 인도에 있는 여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문자를 보냈더니 즉시 답글이 도착한다. 예전에는 비싼 국제전화를 사용하던지 우편으로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동영상조차 순식간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인터넷의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가치의 틀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에는 항공기 자동항법장치, 원전설비 원격가동, 군사용 무기체계의 운용 등 전문가 집단에서 활용했고, 기업의 사무직에서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다루었다. 애초 컴퓨터의 태동도 군사적인 용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발전한 인터넷의 영향은 개인사용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사람이 타고 다닐 자동차도 흔하지 않은 마당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국책사업을 벌이니 타당한 일인가”라며 야당정치인들과 지성인들이 반발이 심했다. 그럼에도 박대통령이 반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현장의 경험과 선견지명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한 ‘정보화 고속도로의 건설’ 또 한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든 배경이 됐다. 삼성과 LG에서 생산하는 국산 휴대폰이 지구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스마트 폰이 없는 아이는 없을 정도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의 시대가 공작새의 날개처럼 펼쳐지니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적으면 수초 만에 해답이 나온다. 이런 인터넷 환경은 일면식도 없던 낯선 타인을 친구로 맺어주고, 정보공유를 통해 지식을 늘리고 다양한 삶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남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참견하는 스토키가 돼 사회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감한 정치적 의견이나 이슈에 과도하게 댓글을 달아 논쟁의 화산을 폭발시키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자 마침내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발효됐다.

나도 몇 년 간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교회카페에 글과 사진과 동영상 수없이 올려놓았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올려놓았는지 몰라 게시판을 검색해야 될 만큼의 분량을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억울한 사정을 글로 적고 사진 등을 게시하고 싶어도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적은 것이라도 한 번 게시한 저작물은 나의 손을 벗어나 업체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엎질러진 물을 담지 못하듯이 게시하는 순간 나의 품을 벗어나는 것

이다. 그래서 나는 사진 한 장 올리고 글 하나를 쓰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둔다. 지금 나의 발언이 맞고, 내 입장이 옳다하더라도 그 당시의 진실은 신의 한 수가 아닌 다음에야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에 가보니 봄꽃 6천만 송이가 심겨져있었다.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작약 등 10여종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바람에 향기를 날리며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도 꽃처럼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공유하면 우리의 터전이 향기 나는 공동체가 될 것은 자명하다. 탐사보도로 파헤치고 엄정하게 따지는 것은 저널리스트들의 몫으로 남겨놓아도 좋지 않겠는가.

이금희 발행인(2016. 5. 12.)

아름다운 카리스마 - 굿뉴스워십단장 김은희 집사

2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할 때마다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나 눈시울이 붉어진다. 불교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나는 결혼과 동시에 크리스천인 남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었는데 처음 접한 교회란 곳은 나에겐 재미라곤 전혀 없는 곳, 그저 삭막하고 딱딱하기만 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사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심지어는 남편과 부모님까지 속여 가며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추는 걸 좋아했던 나는 교회 대신 노래방이며 춤을 출수 있는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러던 95년 11월, 아픔을 무릅쓰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첫아들을 출산했지만 기쁨도 잠시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무사히 순산한 아기는 3일 만에 패혈증과 저칼슘증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주사바늘과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다. 심지어 의사의 입에서 마음의 준비까지 하라는 너무나도 야속한 말까지 들었다. 말 그대로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수없는 원망을 퍼부었지만... 마침내 눈물조차 메달라버렸다. 그때는 혹시 그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나도 같이 죽어버려야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잠도 못자고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잠시 졸았나보다. 꿈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전해진 봉투를 받았다. 그 봉투의 앞면에 십자가가 보였고 그 순간 왠지 모를 강한 희망이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켰다. 그날부터 나는 무엇에 홀린듯이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건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20일째 되던 날이었는가?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침 들어보는 찬송이었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귀가에 들려왔고 내 눈에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은 너무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기적같이 아들을 살려주셨다. 하지만 사람은 간사하다는 말이 맞았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선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는 초라하고 더욱더 작아졌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며 진지하게 나를 살피보게 되었다. 나에게 교회란 곳은 즐거움이란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던 2003년 2월 무렵,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 태화교회 워십팀의 찬양 초청집회가 열렸다. 그때 난생처음 워십이란걸 보았는데, 한마디로 그건 나에게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그래, 저거라면 내가 유일하게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어.’ 단숨에 날 사로잡아 버린 그 생각은 워십 단기대학이란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시간이 지나자 우연히 그 소문을 듣게 된 교회의 부름으로 워십단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신기한건 그때부터 내 삶의 궤적은 180도

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상 음악이 좋아 차 안엔 언제나 가요로 나의 귀를 즐겁게 했었는데,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가요가 아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또 세상 춤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워십에만 온신경이 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가끔씩 남편에게 편잔처럼 듣는 소리가 있다. 워십에 너무 빠진 워십매니아라고.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6시간 7시간은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맘만은 세상 춤을 출 때와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랄까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먼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를 단련하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벌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한지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랜 시간동안 워십을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감에 있어 힘든 것도 많았고 시련과 고통도 많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쁨의 춤을 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내게 주님은 온양교회 위너스워십팀(winners worship team) 단장이란 존귀함으로 세워주셨다. 또 다른 3곳의 교회에서도 부족한 나를 통해 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학원수강을 병행하며, 사역에의 부름에 응하며, 보강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힘들고 지쳐 링겔까지 맞아가며 감당하고 있다. 수강을 통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할 때 얼마나 뿌듯

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무익하며 너무나도 부족한 뿐인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건 그런 주님을 나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의 평생 빛진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갈 것이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김은희 굿뉴스워십단장(온양교회 집사)



음천향 갤러리 벽화

건강이 주는 축복

우연히 여성 목회자 한 분을 만나서 그 분의 근황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한다. 그 분은 양남에 설립한 기도원에서 매년 여름마다 외부 목회자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올해는 집회를 취소해야하나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이미 잡힌 집회일정이니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주간의 집회일정을 치르느라 몸이 많이 지쳤을 때 희한한 에피소드 하나가 생겼다고 한다. 그 분은 양남의 기도원 제법 넓은 텃밭에 고추며 배추, 무, 파를 비롯한 농작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산자락에 위치한 그곳에 노루가 내려왔다고 한다. 아마 배가 고파 농작물 몇 줌을 몰래 뽑아 먹고 돌아가려고 한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들 중 뽀미가 쏜살같이 튀어나가더니 노루의 불알을 짹 물어버렸다. 노루의 목이 급소인데 뽀미는 키가 작으니 노루의 다른 급소를 물어버린 것이다. 노루가 힘을 잃고 비틀거리며 버둥거릴 때 뽀미가 노루의 목을 확 물더니 그대로 기절시켰다고 한다. 그 분은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 육식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여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원기가 소성되었다고 한다. 뽀미는 사냥개 출신 부모의 피를 받아 야성의 습성이 있어서 단번의 기습공격으로 전리품을 획득했다.

한편 필자의 지인 중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지난여름 갑자기 뇌출혈을 당해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한 체험담을 들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이 나이면 감당하겠지’ 했는데 운전 중에 정수리 쪽에서 피가 흘러 캄캄 놀라 병원에 달려갔다고 했다. 서너 달의 입원치료 끝에 깨달은 것은 ‘건강에는 장수가 없다’는 것과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정을 소화하고, 입에 맞는 음식보다 몸에 좋은 건강식을 더더욱 선호하게 됐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은 뇌출혈이 안에서 발생해 입원 치료하는 가운데도 진료가 힘이 들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음에도 그나마 다행히 무사히 퇴원하게 됐다고 한다. 그 사람도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인생은 각자 개개인의 추구하는 멋과 맛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

필자의 모친을 면회하러 요양병원에 가보면 이런 멋과 맛도 그곳에서는 사치임을 알게 된다. 그곳의 기준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구순이 넘은 나이에든 그나마 요양병원 1층 로비까지 나갈 수 있는 할머니의 건강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로비 앞 출입구에서 방문객들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애잔한 눈빛을 던지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더니 ‘오래 살면 뭐하누’ 하면서 짐짓 아닌체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하면 빙그레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필자의 모친은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다친 이래로 침대에서 거의 24시간을 맞고 보낸다. 환자 본인이 직접 1층 로비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수 누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임을 알게 됐다. 모친을

되려 가면 처음에 반가운 눈빛으로 환영을 해도 애잔한 눈빛을 던지고 도망치듯 되돌아 나오는 것이 자식의 안타까운 발걸음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애오라지 헌신했던 부모세대들이 노년에 건강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래본다. “인생, 까짓것 뭐 별 거 있나?” 하는 사람에게 필자는 건강우선주의를 추천해 주고 싶다.

박정관 기자(2016. 10. 19.)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탐방후기

인생의 길 위를 질주하던 자동차 역사를 한 눈에,
천년고도 경주 보문단지 천혜의 풍광을 감상하며,
3년간 공들여 수집한 세계의 명차 관람하는 기회!

지난 달 제주여행에서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을 관람하며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곳은 제주도라는 천혜의 입지조건과 애초 설계부터 기획에 상당한 공을 들인 표가 드러났다. 들어가는 매표소 입구부터 자동차 전면부 모양으로 해뒀 친근감을 두었고, 야외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로 담벼락에 자동차 휠을 유리벽면 안에 연대별로 쭉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작은 목장을 마련해 10여 마리의 사슴에게 공짜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점에 들러 커피와 빵 핫도그를 사먹으며 담소하게 해뒀다. 빵맛은 아주 좋았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슴들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순한 얼굴로 다가와 받아먹었다. 낯선 경험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다. 야외전시장에는 현대자동차의 포니픽업과 서부시대의 말에 앉아가는 사람 모형이 있고, 캐딜락 엘도라도, 모리스, 뷰익을 전시해 뒀 자연스레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본관 오르는 언덕 끝에는 서부영화 시대의 영웅 존 웨인과 그의 애마

를 손님을 맞았다. 본관에는 세계의 명차 90여 대가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구경하는데 시간가는 줄 몰랐다. 기념품 판매 매장에는 수십 만 원 호가하는 아이들의 무선조작 모형미니카와 세계명차를 재현한 미니카들이 즐비하게 전시돼 있었다. 또 어린이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면허시험장이 축소된 모양으로 구비돼 부모들과 실제 시승할 수 있게 기획돼 있었다.

천년고도 경주에도 지난 3월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이 개관했다. 이곳은 보문호수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이 장점이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벤츠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명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역사를 자랑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영화나 사진에서 접했던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그 시대의 정서가 담긴 명차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층에는 시간에 따른 자동차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명차들과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발전해온 스포츠카와 레이싱대회에서 속도경쟁을 벌였던 날렵한 차들이 “당장한 번 시동 걸고 올라타 봐!”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마침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마친 이재웅 관장은 우리를 환대하며 박정희 대통령 의전 차량이었던 크라이슬러 뉴요커 앞에서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과 국가재건 당시 지방순찰 때 이 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3층 전시장에는 영화 속 올드카들이 진열 됐는데 차량들의 뒤 배경으로 보문호수가 한 눈에 들어와 분위기가 색다르다. 미국 영화 ‘백 투

더 퓨처’ 촬영당시 사용했던 단 한 대뿐인 양쪽 문이 날개처럼 열리는 차는 도색도 하지 않은 만들 당시 모습 그대로였다. 3층 전시 공간의 커피숍엔 사진 찍기 좋게 차량들이 배치돼 특이한 스타일에 관객들이 좋아했다. 국내 최초의 시발차, 현대자동차의 첫 야심작 포니와 국민정차 티코와 소나타 차량도 구경할 수 있었다.

천년이라는 세월의 나이테가 더해진 경주를 방문한다면 역사유적지 탐방과 아울러 보문단지의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을 찾아도 좋을 것이다. 자동차를 수집하는 데만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 이곳에서 130년 전통의 자동차 역사를 섭렵하며 추억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는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와 수입차만 들여오는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명차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정관 기자

고래바다여행선 승선후기

(울산광역시매일 원고)

벽화로 유명해진 신화마을 인근에 살면서 여천국민학교를 다닌 나는 형이 가르쳐주는 한글을 땅바닥에 쓰곤 했다. 받아쓰기가 틀리면 꿀밤을 맞았고, 바르게 맞히면 칭찬을 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던 백구를 가축시장에 판다고 집을 나섰다. 큰누나와 국민학교에 다니던 작은누나와 형이 울고 불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백구가 팔린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거친 바람과 함께 쏘아 하면 서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기 때문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한 아버지는 부두에서 하역을 했는데 근로자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부양이 힘들었을 것이다. 강아지를 사와서 성견이 됐을 때 팔면 가족들의 끼니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을 것이 틀림없다. 그 무렵 부두를 드나드는 열차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오가며 기적을 올리곤 했다.

내가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집토끼도 제법 길렀었다. 그리고 그 녀석들 먹이를 주는 것은 항상 형과 나의 몫이었다. 형과 함께 토끼풀을 구하러 한국비료를 지나 부두 근처의 쌍용양회 굴뚝이 치솟아 있는 대한알루미늄까지 다녀오곤 했다. 그 무렵 부두를 드나드는 열차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오가며 기적을 올리곤 했다.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더불어 낚연가였다.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나는 ‘부친 위독 급래요’라는 전보 내용을 너무 선연(鮮然)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환갑을 바로 앞두고 돌아가셨다. 남편을 여윈 어머니는 ‘나는 이제 어찌 살라고 먼저 갔느냐’고 절규했다. 그 세월이 벌써 30년 전의 과거의 시간으로 아스라이 흘러갔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됐으며, 그 자녀들이 결혼해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옛이야기가 길어지는 까닭은 장생포를 오가는 길목마다 과거의 추억이 깃든 현장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이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마다 흘러간 시간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이제 강아지가 성견이 되더라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고, 집토끼를 키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때 아버지 세대들이 누리지 못했던 혜택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다. 부친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더라면 현재의 좋은 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을, 그것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옛그제 장생포에서 고래바다여행선을 탔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고래탐사는 실패했다. 이를 뒤 일요일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두 차례 연속으로 수백 마리 돌고래 무리들의 해상 퍼레이드를 구경했다니 내심 부러웠다. 어린이날에도 많은 돌고래들이 나타났다니 그 날 승선했던 어린 친구들에게는 분명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지리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고래바다여행선도 위축돼 탑승객이 채 100명도 안됐지만 한편으로 안전교육은 엄청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작년

에는 메르스 여파로 국내의 관광산업이 휘청졌지만 고래바다여행선은 이제 제법 알려져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자리가 없다. 이번 주 시작되는 울산장미축제가 다음 주 시작되는 울산고래축제와 맞물리는 기간이라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와 더불어 번성한 장생포는 국제포경위원회(國際捕鯨委員會)의 규제협약으로 포경이 금지되자 급속도로 쇠락해갔다. 그러나 울산은 심혈을 기울여 고래도시의 기치를 선택했고, 마침내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로 거듭났으며, 지금까지 완벽할 만큼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장생포에 도착하면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 곁에는 친구처럼 항상 고래바다여행선이 승객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다.

박정관 기자(2016. 5. 17.)

굿뉴스울산 24호 편집후기 -힘겹게, 버겁게, 어렵게

굿뉴스울산을 창간하고 처음에 열 번이나 찍겠나 싶었다. 그랬는데 벌써 스물네 번째다. 이번 24호 발행을 앞두고 미국에 이민 가셨던 이영후 장로 초청집회를 울산지역 교회에 소개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급하게 연락받고 사실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 보통 교회에서 최소한 서너 달 전부터 준비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기도하며 준비한다. 전도지와 초대장을 새로 만들어 전도대상자를 만나 선물을 전하며 참석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원해야한다. 그래야 겨우 서너 명 아는 사람을 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대부분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인의 친절한 안내와 더불어 교인들이 호칭하는 VIP라는 말도 내심 싫지 않고 강사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는데 불과 보름 만에 이영후 장로 초청 간증집회가 2월 5일 두 곳의 교회에서 진행됐다. 굿뉴스울산 이금희 발행인과 실무진으로 그 일을 담당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보조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했고, 도움을 받았다. 먼저 미국 시카고에서 먼 길 다녀가신 이영후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가교 역할을 했던 서정형 대표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촬영으로 협찬한 창우영상, 굿뉴스울산과 함께 기획했고 협찬한 사람들, 또 집회에 함께 했던 모든 참석자들에게도 감사한다. 힘겹게, 버

겉게, 어렵게 어떤 일을 감당하면 사실 그 일의 추진과 진행과정에서야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일을 끝맺음에서야 비로소 실무진들은 뿌듯한 보람과 만나게 된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제안할 때 전화 한 통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하고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일이 만들어진다. 또 애초에 의도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바랬던 기대보다 결과가 잘 나올 수도, 못 나올 수도 있다. 편집장으로 업무를 볼 때 되도록이면 긴 호흡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가령 인터뷰 기사 하나를 만들려면 대상자를 물색, 섭외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쓴다. 그것을 인터넷 기사로 올리고 차후에 신문발행 때 지면에 반영한다. 그런 자료를 당사자가 허락한다면 다음에 책을 출간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개인적인 역사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2년 전 100세수를 했던 방지일 목사님을 울산 지역 초청집회에서 뵈고, 사진을 찍었다. 그때 사진과 10분짜리 동영상은 엄청난 사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현장에서 내가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책을 발간할 때 쓰인다면 그 현장의 수고는 충분히 보상받고 남는다.

힘겹게, 버겁게, 어렵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고 동참을 꺼린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이 나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럼에도 나는 힘겹게, 어렵게, 버겁게 살아가고자 한다. 짐채만한 거친 파도가 덮쳐야 윈드서핑의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고,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서른 살까지는 이것저것 해보고, 이리저리 요령대로 살아온 측면도 있다. 방황도 좌절도 겪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정면 승부

할 것은 마지막 호흡할 수 있는 1할을 제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바라는 것을 손에 쥌 수 있다. 진검승부를 자꾸 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힘겹게, 버겁게, 어렵게 또 하나의 굿뉴스울산을 발행하며 감사의 말을 남긴다. 부지런히 신문을 배부해야하는 중인데 오늘 더 박차를 가해야한다. 바야흐로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고, 봄꽃들이 향연을 펼칠 준비를 끝마쳤다. 그림자처럼 2월 중순의 시간이 스쳐지나간다.

박정관 기자(2017. 2. 15.)



장생포(울산대교 전망대가 보인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구국기도회

설교자, 사도바울 같은 애국심과 신앙의 담대한 결단 강조

김기현 울산시장,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 축사

박맹우 국회의원, 성도들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구국기도회가 14일 주일 오후 3시 서현교회에서 열렸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성회의 사회는 이성택 목사(울산기독교연합회장, 서현교회)가 맡아 묵도, 신앙고백,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김영동 목사(울기연 부회장), 울산장로합창단 특송, 장활욱 목사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성경봉독, 설교, 헌금기도, 특별기도와 합심기도, 축사, 광고,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를 맡은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대구 대명교회)는 봉독한 성경본문을 받들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A.D. 62년 가택 연금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는 그를 위해 빌립보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기쁜 소식과 아울러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듣게 된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염려하며 적은 서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광복 71주년을 맞는 한국사회도 갈등과 분열로 점철돼 있고, 나라 민족을 걱정하기보다 개인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

리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대한의 독립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소원도 독립이다’는 말은 귀감이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모인 이런 성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이 있어야 할 것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야 리얼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울산장로합창단 30여 명의 단원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주기도문을 비롯한 두 편의 노래를 특송으로 봉헌했고, 서현중창단 20여 명의 중창단은 헌금송으로 섬겼다. 특별기도 순서에서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진영식 목사(울기연 부회장)가, 한국교회연합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전종문 장로(울기연 부총무)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이슬람·신천지 등 이단 대처를 위해서 조규상 장로(장로총연합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합심기도는 김형태 목사(울기연 차기회장)가 인도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축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바란다. 광복절을 맞아 반만년 역사에서 눈물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웃하고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온 선조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근대와 현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10위의 경제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압

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대다수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미스바성회를 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블레셋은 패망하고 기쁨에 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모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이 우리 민족의 8·15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최근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거는 일본은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중국은 제국주의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약소국가로서 우리의 자세는 의연해야 한다.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합심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는다.”

3선의 울산시장을 거친 박맹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8·15구국기도회가 우리 서현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선택 목사님의 동생으로 불릴 만큼 친한 장창수 목사님의 설교를 새겨듣는 시간이었다. 개인·가정·사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염원했던 8.15광복을 맞았고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통일한국은 성취하지 못했다. 처절한 굶주림과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통일의 기쁨을 맞아 진정한 광복을 맞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으면 조국 근대화의 성지역할을 했던 울산의 번영과 조국의 번성이 함께 따라 올 것이다. 이를 위해 구국기도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기독교연합회와 울산장로총연합회가 주최한 이 날 구국기도회는 서현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했고, 울산CTS, 울산CBS, 문화신문 울산의 빛이 후원했고, 울산극동방송은 행사현장의 실황을 생중계했다.

이금희 발행인, 박정관 기자(2016. 8. 15.)



태화강설치미술제 난민을 표현한 살리 코스쿤 作品

나사렛 예수 부활사건

단언컨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기록을 빌리면 나사렛 예수는 세 번의 부활의 표적을 보였다고 증언한다. 먼저 회당장 아이로의 12살 어린 소녀의 경우다. 그 아이가 병약해져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전갈을 넣었지만 예수님의 도착 전에 어린 딸은 죽어버렸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끝났다”고 했다. 장례가 진행돼 떠돌고 통곡할 그때 나사렛 예수는 죽음의 현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잡고 말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명령어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아이는 부활의 증거가 됐다. 그 다음은 과부의 외아들의 경우다. 그 당시 남편 없는 과부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했고,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정황에서 독자(獨子)마저 잃은 과부는 정신이 빠지고 넋이 나갔다. 나사렛 예수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죽음을 위한 장례행렬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죽은 청년에게 명령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선언과 동시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

그 다음은 나사로의 경우다.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마리아는 예루살렘 길목의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가는 길

에 접대를 잘한 사람들이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점차 위중해졌다. 두 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람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에게 기별을 넣었다. 최대한 빨리 오셔서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일정을 늦추셨다. 늦게 도착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지 않으셨다고 섭섭한 마음을 표실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 굴에 안장하고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굴 입구의 돌을 치웠다. 그때 나사렛 예수는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려드렸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큰 소리에 즉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를 직접 살리셨고, 종국에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인생에게 내린 저주와 죽음을 폐기하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헬에 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눈엣가시였다. 그들은 구세주를 무시하며 경멸하는 별명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유다 베들레헬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주후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교회를 통해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救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써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유대인들은 왕·예언자·제사장에게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 철철 흐르게 하는 예식으로 임직한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하기를 축하하며 빌었던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직분을 뜻하는 그리스도가 합성된 말인데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통치하고, 예언자로서 미래를 보여주며, 제사장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부활사건이다.

박정관 기자(2016. 3. 21.)



태화강전망대(뗏목 체험)

따뜻한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恩賜), 혹은 실력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신약성서 시대의 표현이다. 그 어원은 ‘카리스’라는 단어이며 은혜라는 뜻이다. 흔히 우리는 탁월한 언변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면 “그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하다”고 한다. 가령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남은 배로 330척의 일본군에 승전했을 때나 박정희 대통령이 맨주먹으로 산업화의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 2004년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몰락 직전에 처했을 때 박근혜 대표는 천막당사를 이끌고 국민들에게 읍소해 극전 반전을 이루었다. 그의 승부수는 예상외로 잘 적중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로 이명박 후보에게 졌을 때도 깨끗하게 승복해 2013년 2월 드디어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함으로 부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청와대에 승자가 되어 다시 입성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장점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김종필 총리를 시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냈고, 그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총리나 장관 등의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 전권을 위임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뛰어난 과학자나 경제에 해박한 석학들을 발굴해서 국내에 데려왔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베풀었다.

풀면서 과학발전과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잘 나가던 과학자나 경제학박사들이 개인적 명예와 영광을 뒤로한 채 귀국해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조국근대화와 부국강병의 기치에 열정을 불살랐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드러냈다. 물론 박정희 정권에서 독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근대화와 산업화의 눈부신 성과도 같이 주어졌다.

카리스마라면 첫 손에 꼽힐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최측근에게 살해당하고, 어머니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에게 저격당했으니 개인적으로는 겪게 된 엄청난 상실감은 말로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다. 조용했던 영애양은 그때부터 사람을 신뢰하는 일의 부질없음을 진작 알아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수첩에 이름 적힌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개연성이 짙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의 판단이 허락했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충고하고 조언해도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무참하게 박살내고 조롱하는 정도로 박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형편없는 실력은 아니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카리스마와 장점도 많지만 소통에 능하지 못했고, 인사실패가 패착의 요인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에 이어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려했던 소망은 이제 폐기처분될 위기를 맞았다. 어차피 대통령의 운명은 조기퇴진으로 정해지는 형국이다. 손바닥에서 모래알이 흘러내리듯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다만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길은 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필자의 소회이다. 지도자는 따뜻한 카리

스마로 국민들을 위무해야 마땅하지만 때로 국민들도 따뜻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박정관 기자(2016. 12. 7.)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꾸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가니.
인생의 복잡대단과 파란만장한
어떤 것에도 아랑곳없이
시간은 흘러가니.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흘러내리듯
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듯
저녁노을로 태양이 기울 듯
나뭇잎이 떨어져 낙엽이 되듯
시간은 스쳐 지나가니.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그럼에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여도
꿈의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섬김과 나눔의 자선행사 2題

만추가정에 단풍을 즐기던 사람들은 뚝 떨어진 기온에 옷깃을 여미고, 길가의 행인은 총총 걸음으로 바빠 지나간다. 태화강에도 살얼음이 어는 이즈음 겨울철새들도 어김없이 날아들어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모두 다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고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주부들은 김장준비에 일손이 분주하며, 나무들은 마지막 잎새를 떨구어내고 있다. 국가의 기반을 뒤흔든 최순실사태의 여파로 나라 안이 어수선하고, 온갖 매스컴에서 쏟아놓는 뉴스속보도 피로증후군에 시달릴 만큼 연이어진다. 필자는 안개에 갇힌 듯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이때가 정말 위기일발의 아슬아슬한 순간이라 여겨진다. 우리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정말 신의 존재 앞에 겸허해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한국생명사랑복지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세밑에 의미 있는 자선행사 현장 두 곳을 다녀왔다. 지난 11월 22일 울산구치소 재소자 추수감사절 위문집회 현장을 찾았다. 월드컵이 열렸던 문수구장 뒤편으로 차를 몰아 울산구치소에 도착했다. 미리 와 있는 위문공연 참석자들과 인사를 건네며 보안관계자들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기고 30여 명의 일행들은 2층 대강당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는 유달리 문이 많고, 탈주방지를 위해 두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 앞에는 참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비

록 더딜지라도 기회의 문을 긍정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어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직한 방법과 악감정으로 기회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필연적으로 후회하며 땅을 치게 된다. 우리 일행은 대강당에 모인 재소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색소폰 연주와 YWCA여성합창단의 중창과 워십선교단의 춤들이 이어졌다.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분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불렀다. 그날 약간 흐린 날씨였는데 대강당 유리창에 덧댄 창살에 햇살이 비추어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위문공연의 끝 무렵에 굳어있던 재소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깃들고 기분 좋은 표정이 돼 있었다. 나눔과 섬김의 작은 자선행위가 소외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또 지난 11월 24일에는 태화로터리 부근에 있는 드림요양병원에서 추수감사절 환우 위문집회가 열렸다. 1층 로비에 연로한 어르신들 20여 명이 모여들었고, 구치소 위문집회에 함께 했던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이곳에도 동참했다. 예쁜 한복 차림으로 음악의 선율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부채춤을 추고, 장고 춤을 추자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겨워했다. 그리고 80세의 장로님이 부는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어깨를 들쩍이며 함께 무대를 즐겼다. 필자가 구치소와 요양병원을 찾아가며 느꼈던 소회는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평범한 것들이 그 분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문제라는 것이다. 가령 구치소에서 재소자는 죄를 지은 이유로 격리되고 차단된다.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일정기간 수감을 하는 동안 외출금지와 면회도 제한된다. 이것은 인지상정에

반하는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작은 위문집회라도 그들은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철새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가족부양을 위해 소처럼 우직하게 일했고, 삶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찾아와 위로하며 손잡아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미소를 짓는다. 악수하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내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이금희 발행인(2016. 11. 27.)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시골 목회자의 어르신 사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상대로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회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귀수 오천침례교회 전도사(53)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던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해서 교회 문을 연데 이어 올 5월부터 토요일마다 30~4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 전도사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정 전도사는 설교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확실한 구원관을 심어 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간증형식으로 들려준다. 어르신들이 귀가할 때는 쌀 1kg씩과 콩나물을 선물하고 있다. 정 전도사가 어르신들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가량 전도를 했으나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정자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내 유미옥 사모를 본 후 지역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난주까지 보였는데 이번 주엔 보이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다. 그는 그 안타까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 올 4월 ‘실버처치 세미나’에 참석했고, 5월부터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 전도사는 불과 4개월 만에 복음으로 변화되

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지금 죽으면 교회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죄가 많아서...”, “죽어 봐야 알지...” 하던 어르신들이 요즘은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가지”하며 자신 있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정 전도사는 이런 어르신들을 보며 평일에도 교회와 300m 거리 내에 있는 노인정 4곳을 찾아다니며 어르신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매달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어르신 사역비는 다음 카페 ‘호산나’ 손정에 원장(월 20만원씩)과 목회자, 지인(매월 5천원~5만원씩)들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 전도사는 “설교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어 즐겁고,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후 “봉고차 한대만 있다면 더 많은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정 전도사는 다섯 살 때 울릉도 이웃집 누나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 10살 때 부모를 전도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침례(세례)를 받았다. 울릉도를 떠난 후에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사업용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할 때는 교통사고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출소와 함께 오천소망교회를 다니며 청년부 회장을 지냈다. 그 무렵 기도 중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기도(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터져 나옴)를 했고, 통일시대 북한에서 일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방언을 받고 현재 사모와 결혼을 했으며, 대전으로 화물차를 운전할 때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캠퍼스를 찾아 기도하곤 했다. 2008년 대전 침례신학대 입학 후에는 포항 장성동 갈보리교회에서 교

육전도사로 섬겼다. 그는 그곳 목사로부터 “룻이 신랑 보아스에게 마음과 몸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십일조 생활과 주일예배만 참석했던 자신을 크게 회개하고 몸까지 드릴 것을 결단한 후 졸업과 함께 지난해 5월 교회를 개척했다. 올 2월 신대원을 졸업한 그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반(2015. 8. 21.)



언약의 교회 십자가와 야경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탐험,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역사의 물줄기가 이스라엘을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때가 사무엘상의 배경이 된다. 대하드라마 같은 민족적인 역사의 서술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무명의 한 사람, 초라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간절한 서원기도는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영도자 사무엘을 낳게 만들었다. 사무엘의 시대에 나라의 기반은 약하지만 영적인 전성기를 이루고, 민족중흥을 이끌었다. 그래도 백성들은 주변 인접국가의 부흥 성장과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왕정 정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사무엘에게 줄기차게 “우리도 왕을 모시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서의 야웨를 버리는 일이라고 서운해 하시지만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을 허락하셨다.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맞서 진을 쳤다. 야베스 사람들은 “약조를 맺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전갈을 보내온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약조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베스 지도자

들은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이스라엘에 구원요청을 보내보고 답이 없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크게 분노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냈다. 전령들의 손에는 소를 잡아 각을 뜯고 고깃덩어리를 보내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소집됐다.

이튿날 사울은 군사를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 가며 기습공격을 펼쳤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몬사람들은 혼비백산 꿈무늬를 내뺨기에 바빴다. 돌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니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 사울 왕이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승전보를 전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왕으로서의 첫출발이었다. (삼상11:11~15)

이 전투로 목숨을 건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은인 중의 은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전투의 대승으로 사울 왕은 멋진 대관식을 치르고, 백성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하게 됐다. 이렇게 사울 왕의 첫출발은 순탄했으나 갈수록 그의 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자 사위를 삼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정예부대 3천 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다윗의 은신처를 추격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안으로는 백성에게 명망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쏟고, 밖으로는 적국들과 전투를 벌여야하니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사울 왕에게 딱 맞는 옷이었다. 내우외환의 의복을 입고 어찌 잘 될 것인가. 결국 블레셋과 벌어진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패전했다.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은 옷이 벗겨지고 침수됐다. 사울 왕의 머리는 잘린 채 블레셋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웃음거리가 됐다.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은 뱀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다. 이 소식을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전해 들었고, 힘센 장정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뱀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메고 돌아왔다. 그리고 화장한 뒤에 그 뼈를 아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한 뒤 7일을 금식하며 애곡했다.(삼상31:1~13)



흑등고래 엄마와 새끼

그리스도의 향기-울산시민교회 김창호 집사

불신자에서 하나님자녀로, 신용불량자(주민등록 말소자)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 남은 생애 실버복지사역을 꿈꾼다.

저는 2남2녀 중 장남으로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 했기에 주위에서 어머니에게 “조상대대로 모셔왔던 신을 모셔야 된다”는 친지들의 말에 순종하여 신을 모시게 되었고 무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저희들은 무력무력 자랐고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고에 다녔는데 고3때 실습을 나가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실습도중 사고로 손가락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대견스럽게도 잘 참고 견뎌 나아갔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족들 몰래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별수 없이 한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비록 몸은 다쳤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당당하게 교회로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의 도움 없이 신학공부를 마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정에도 목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저와 부모님은 동생을 무시하고 그리고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목회자로 세움 받았음에도 저는 친척의 길흉사를 담당하는 직무를 맡아 제사와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데 온힘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

하다 1997년 IMF때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에 큰 꿈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내 맘대로 계획했던 것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사업도 실패,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삼산동에서 제일 큰 립살롱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인맥이 넓다는 것을 안 친구는 전혀 경험 없는 저에게 직책을 주어 일하게 하였고 그것을 경험삼아 제 스스로 삼산동 중심에서 립살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동생은 아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동생부부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 지금도 그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수씨는 “아주버님, 김 목사는 매주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족들은 믿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말씀을 전하고 난 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하나 전도하지 못한 내가 정말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제수씨 말에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똑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 립살롱 경영한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다음해에 망해서 제 인생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려 저는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빚에 쫓겨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 스스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죽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부리나케 울산으

로 내려와 나를 찾았습니다. 2000년 9월 초로 기억합니다. 동생과 저는 오후 2시쯤 만나 밤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새벽쯤 되니 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형님을 만나지 않으면 형님을 잃어버린다고 하셔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힘들어 죽음의 길을 택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달려온 동생을 보니 속으로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동생이 “형님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그 목숨 자기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은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형님,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정말 싫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언젠가는 한번은 교회에 가볼게. 너도 목사인데 한번은 체면 살려줄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동생은 실망하다 이 말에 화색이 돌면서 제 입술로 교회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와도 좋으니 자기 따라 기도한번 하자”고 하여 손을 잡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동생은 새벽 첫 비행기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떠난 후부터 저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세상의 공포 속에서도 동생의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런 중에 제가 죽을 때쯤 교회 간다고 했던 것이 그해 12월12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교회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진로를 보게 되었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지 3년쯤 저는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돈 잃고 사람 잃더니 이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가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웬지 자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와서 저에게 “당신이 울산시민교회를 간다면 나도 교회를 따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목사님께 전하며 허락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에 새로운 직업으로 택시기사로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 일하라 성경공부하라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근무와 맞물려도 근무를 포기하고 예배와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은 번번히 못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생활 속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2007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2011년까지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 실버사역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09년 우연히 월요일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사무실에서 돈 1,000원과 빵 하나를 받아가는 노숙자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우연한 이런 모습을 순간 보면서 교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 매주 월요일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동안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보고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지요? 너희들은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냐고 물으면 빵 하나와 돈 1,000원을 준 것이 다냐?” ‘이럴 때 어떻게 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마음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결과 교회에다 요청하여 돈 2,000원과 빵 지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30분까지 다 모여서 찬양과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지급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결과 노숙자 2명과 믿지 않으신 소외받은 어르신 1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배가 6개월 동안 무덤덤했던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었고, 그 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신 분도 있었고, 17명 시작인원은 80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1)바르게 살아야한다는 교육(천국소망) 2)실버체조 및 웃음치료 3)찬양 4)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담임목사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사역을 하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과 본 교인 중 65세 어르신들과 함께 2011년 11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00명 정도(이웃교인, 본교인, 비신자들 포함)였다가 2012년에는 250명이 됐고, 이 사역은 3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013년 교회에서 본 교인들로 가정교회를 하라고 해서 실버목장으로 구성하여 타 교인을 제외한 본 교인들만 구성하여 실버목장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11회 호영남성시화한마음대회 성황리 막 내려

제11회 호·영남성시화한마음대회가 2017년 4월 28일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수영로교회에서 열린 이번 호·영남성시화한마음대회는 성시화운동의 1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성시화가 달려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큰 의미를 남겼다.

호·영남한마음성시화대회(지도자대회)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부산수영로교회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종교개혁 관점에서 바라본 성시화의 과제'를 주제로 막을 올렸다. 대회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호·영남 8개 광역 시·도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 400여명이 참석, 1부 예배, 2부 한마음대회, 3부 성시화운동 소개 및 오찬, 4부 재한UN기념공원 방문, 5부 성시화지도자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배는 박성규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기획단장) 인도, 찬양사역팀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영상 소개, 김용희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기도, 송기섭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성경봉독, 부산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어찌하여야' 찬양,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예장백석 총회장) 설

교,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찬양, 특별기도, 김익선 목사(익산성시화운동본부 회장)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종승 목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 안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에서 동서화합·국민통합·복음통일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각계 지도자를 위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부흥·사이비 이단대책을 위하여, 성시화운동의 변혁과 교회개혁·지역복음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조근식 목사(포항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사드로 인한 중국과 갈등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정식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른 신앙과 삶, 바른 신학의 기초위에 교단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연합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백승기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한마음대회는 호남대회장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대회사, 영남대회장 허원구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환영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축사, 해피앙상블 특송, 정찬석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홍보위원장) 내빈소개, '영호남이 손잡으니' 찬양, 대회기 이양,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 영·호남성시화한마음대회 개최지는 전북으로 결정됐다.

성시화지도자 포럼은 네이션스 찬양, 금창락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총무) 기도, 백승기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환영인사, CCM 가수 우미나 자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특송, 황승룡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호남신앙역사와 성시화' 특강, 최상림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대외협력단장) 부산성시화운동 소개, 하선규 권사(전 부산시의원) '성시화방향성' 특강, 질의응답, 조별토론, 감사와 총평, 찬양, 박석진 목사(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원호 포항목회자홀리클럽 회장과 성창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깊은 나눔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반

상처와 치유의 손

이금희 목사 신앙간증

내가 목회를 하기 전 500명 정도의 중형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부병이 발병했다. 내가 봐도 너무 끔직한 상황이었다. 어쩌면 눈코입만 빼고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보였다. 피부병이 심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고, 피부가 찢어질 듯 쓰리고, 가렵고, 아프고, 피가 알알이 맺혀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피와 고름이 줄줄 쏟아졌다. 냄새가 죽은 송장 썩는 것과 같았다.

정말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이 지나도 교회에 갈 수 없었다. 계속 교회를 빠지자 할머니 전도인이 심방을 와서 과일과 차를 대접하고 마주 앉았다. 내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며 위로는커녕 핀잔만 주고 돌아가니 속이 상했다. 나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왜 나만 모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내 자신이 한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고 저주받은 자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

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신명기 28:15)라는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국을 경영하는 집사님을 찾아갔다. 내 상태를 본 그 분은 “도대체 어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되물으며 약을 지어줬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 외 나올 수 있는 약은 다 가지고 와서 바르고 먹고 해도 일체의 차도가 없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아픔과 고통이 지옥 같은 마음뿐이었다. 괴로운 나날 속에 지쳐가는 내 몸과 맘, 텅 비어버린 생각, 감각 없는 모습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요 마치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모든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구에 가면 문동병 환자 치료하는 곳이 있으니 그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귀뜸해 줘 약을 한 달분씩 가득 받아와서 ‘이걸 먹고 나아지지’ 하면서 약 한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 약을 먹었는데 조금 후 녹지 않는 약을 그대로 토해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약이 안 받는가보다’ 생각하며 다음 날부터 다시 부지런히 챙겨먹었지만 이상하게 그때마다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약 조차 삼킬 수가 없구나. 나는 어찌지’ 하면서 성경책을 펼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어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현실로 보였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어느 누구도 없었고, 자신들의 처지가 죽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골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광복과 분열된 이스라엘의 재결합도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상 만물은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실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두시 무렵 내 귀에서 “딸아, 일어나서 세숫대야에 물을 붓고 네 손과 발을 담가라”라는 우레 같은 큰 호통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방안에 가득 찼다. 너무 놀라서 그 명령대로 벌떡 일어나 세숫대야에 물을 붓고 내 손과 발을 담그며 “하나님, 제가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고 불쌍한 처지인데 저를 용서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내 눈물은 땀과 뒤범벅이 된 채 세숫대야에 떨어졌다. 그 순간 “앗 뜨거!” 하면서 비명을 내질렀고, 내 손과 발을 보니 내 몸의 모든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깨끗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부리나케 약국 하는 집사님을 다시 찾아가 내 모습을 보여주기

“아니 무슨 약을 먹었고 무슨 병원에 다녀온 건지” 되물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려주며 치유의 기적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침 받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솟구치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세상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해답이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 신약과 구약으로 깨끗하게 치료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언약의 교회 이금희 목사(굿뉴스울산 발행인)

한 곳 차이

시내버스는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하루 시내버스광고 임대료는 40여만 원이다. 얼마 전 그 광고판에서 병원광고를 보게 됐는데 성형외과 광고였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곳 차이’ 사소한 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었다. 현대사에서 작은 차이가 큰 결정을 불러온 이런 예를 들어본다.

1950년 6.25 사변 발발 직전, 육군본부의 정보국 장교로 근무했던 김종필 전 총리는 전쟁이 일어날 낌새를 알아차렸다.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그는 즉각 보고했으나 현장 감각을 상실한 군 수뇌부는 밥상을 차버리듯 생명 같은 그 보고서를 팽개쳐버렸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낚시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이처럼 사소한 한 곳 차이로 현장 감각이 무뎈 탁상행정으로 실로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었고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했을 때 방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북한군은 속수무책이었고 6.25 사변에서 전세를 뒤집어엮은 결정타가 되었던 것이다.

일전에 리퍼트 미 대사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기습적인 테러에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순간이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지는 상황에서도 “I am okay!”라며 거듭 말했다. 괜찮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그의 말 한마디는 천금같이 귀한 값진 말이었다. 병원에서 수술 후 그는 말하지 말라는 의료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자에 전화통화를 하며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바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동병상련의 기이한 인연으로 서로를 위로했다는 후문이다. 박대통령과 리퍼트 대사 모두 조금만 더 상처가 깊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던 동일한 테러를 당했다. 같은 병원에 2시간 30분의 수술 시간도 희한하게 똑 같았으니 하늘의 도우심이 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리퍼트 대사의 입에서 이 말을 들으니 큰 종소리처럼 가슴에 울리며 파고들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고 대기업 가전제품을 선전했던 유명 텔런트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본다.

한 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놔다할 만큼 인기가 치솟았고, 그랬기에 행복할 줄 알았다. 젊음에, 미모에, 인기,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개개인의 삶의 좌표는 남이 함부로 헤아리지 못하는 한 곳 차이가 있는가 보다. 고질병에 점

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되고, 자살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보태면 남이 된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떼어내면 도로 남이 된다. 어느 젊은 목사에게 우편물이 배달됐는데 아무개 독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목사에 점 하나 빠지니 독사가 돼버린 사실 앞에 순간 영적 각성을 깨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낳으니 한 곳 차이로 모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희구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관 기자(2015. 3. 12)



울산대공원 가을스케치

한 회원의 언론인홀리클럽 태동과 관련한 간증

2002년 5월 23일 한 일간 신문사 사회부장으로 있을 당시 포항시청기자실에서 함께 시청을 출입하던 국민일보 김상조 기자님(現 경북일보 편집국장직대)의 권유로 김 기자님과 함께 제일교회(현 소망교회 자리)에서 열리는 포항목회자홀리클럽 창립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해 경북케이블방송사(現 현대HCN 경북방송)의 최대익 기자와 6개월간 '뉴스인 뉴스'를 진행해 왔으며, 그 프로에 홀리클럽 내용을 18분간에 걸쳐 내보낸 후 방송에 대한 열정을 잃고 방송출연을 중단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6개월간 경북케이블방송에 출연하게 하신 것으로 믿고 있다. 언론인홀리클럽 출범 해인 2003년 봄 경북기독신문 배운길 사장님, 이태승 총무국장님과 함께 한동대 총장실에서 김영길 총장님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소속 회사는 달랐지만, 경북기독신문을 돕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배운길 사장님으로부터 언론인홀리클럽의 필요성도 흘러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광야대학 한동대가 걸어 온 길을 '자치면'에 보도했다. 한동대는 말 그대로 광야대학이었다. 하나님의 대학이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대학이었다. 지방자치부장으로서 시의회를 출입하던 중 갑자기 문화부로 발령받아 문화부장을 맡게 됐다. 그해 5~6월 배운길 사장님의 권유로 배사장님과 함께 선린병원 원장실을 찾아 이진오 원장님으로부터 지구촌 홀리클럽의 역사와 포항 기관장홀리클럽의 창립 과정

을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찾아다니며 회원들을 가입시킨 이 원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언론인홀리클럽 창립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7월 말 양산 감림산기도원에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님 인도로 열리는 집회에 손상수 목사(산호교회)님의 권유로 참석할 수 있었다. 문화부로 자리를 옮겨 시간이 났던 시기였다. 그 집회 기간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지만, 기도원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후 8시가 넘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새벽 1~3시 사이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집회 하루를 앞둔 4일째 되던 날 집회였다. 성전 2층에서 찬양을 하다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어둠을 물리치며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기이했다. 태어나서 처음 본 환상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보여 달라고 했고, 곧이어 더 강렬하게 떠오르는 태양(지평선의 반쯤)을 볼 수 있었다. 어둠을 물리치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 빛(햇살)이 너무나 좋았다. 당시 벅찬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날 밤 2시간여의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포항에 도착 했지만,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귀가하지 않고 출석하던 교회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 오랫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다 귀가했다.

그 태양은 2010년 말 '쑥' '쑥' '쑥' 3단계로 하늘 한가운데로 떠오름을 볼 수 있었다. 그 태양은 살아 있었다. 안개와 구름이 물러갔다. 그간 방해세력들로 인해 잘못 알려진 언론인홀리클럽에 대한 오해들이 다 풀어지겠다는 마음과 언론인홀리클럽이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후 그간 방해 세력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언론인홀리클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알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달인 2003년 8월초 대도교회(부흥회)에서, 기쁨의교회(포항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8.15구국기도회), 팔복기도회(부흥회)에서 전광훈 목사님 초청 집회가 이어졌다. 이 모든 내용들을 상세히 보도할 수 있었다. 특히 '오순절 역사 재현되나란 제목의 예고 기사가 보도된 첫째 날 대도교회 집회에서 강단 앞으로 나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연로하신 목사님, 연로하신 장로님들의 모습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다.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흘러내렸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 보기는 처음이었다. 전광훈 목사님의 집회를 돕고 있는 한 여 집사님(의사 부인,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있음)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집사님은 서울서 이 집회를 위해 기도 중 환상을 보는데 바다가 있고 포항으로 생각되는 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지역을 다 태우더라고 했다. 그는 '포항의 복음화가 이뤄지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 10명이 있었고, 몸 뒤로 자를 감추고 있는 사람에게 "소녀도 참여시켜 달라고 했으나 거절 하더라"고 했다. 그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나중에 자를 감추고 있는 사람은 굳어져 동상이 되더라고 했다. 이 집사님은 간증 후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교회 뒤 좌석 쪽에 있던 나에게 오더니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 (환상에서 본 사람) "목사님 찾았어요"라고 외쳤고, 한참 나의 기도소리를 듣던 중 '소녀도 참여시켜 달라'고 했다.(그는 언론인이 아닌데...) 그때 포항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회장 김광웅) 주최로 북부교회(現 기쁨의교회)에서 전광훈 목사님 초청 8.15 구국기도회(광복절 기념 예배,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언론인홀리클럽을 결성하자고 배운길 경북기독교신문사장님께 전화를 했고, 배 사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다.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8월 15일 오후

7시 북부교회 선교복지관 예사랑(커피숍)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다. 발기인대회에는 10명이 참석했다. 많이 놀랐고 설레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의사 부인이 본 '환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언론인홀리클럽 창립일까지(15일간) 16차례의 준비위원이 열렸다. 모임은 새벽 시간 포항 중앙교회교회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회칙을 만들고, 창립일 예배 식순을 짜고...故 배호경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회원들은 대부분 전화로 언론인홀리클럽 가입을 약속받았으나, 일부 방송사는 방문을 통해 가입을 약속받았다. 특이했던 일은 한 언론사 방문에 앞서 전날 밤 아주 귀하게 느껴진 백사(몸속까지 투명함)와 뱀을 잡아 병속에 넣어 마개를 막았고 신기할 정도로 그 백사와 뱀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꿈에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날 한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아주 귀한 한 분과 또 한 분이 가입함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예비해 두고 있었다.

그로부터 보름만인 2003년 9월1일 언론인홀리클럽이 출범하던 날 밤, 꿈을 통해 기이한 두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무리를 시내산(6개월 후 우연히 CTS 기독교 TV 방송을 보다 그 산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의 시내산임을 알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으로 인도하는 두 장면이었다. 나 혼자만 살기로 했을 때, 이방인과 선교사 등 4명이 사는 장면과 목숨 걸고 사탄과 맞설 대적할 때 그 무리들이 모두 사는(구원)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영적전투는 힘겨웠으며, 사탄의 방해는 집요했다. 이후 수많은 장면들이 하루 후, 3일 후,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7년 후 등 그대로 됨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 재림도 볼 수 있었다. 방언도 선물로 받았다.

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해와 핍박이 있었다. 여러 차례 생명을 위협

받는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다. 이 회원님은 이 시대 언론을 통한 복음전파가 어렵,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급하신 모양이라고 했다. 그 간 상상을 초월한 방해와 핍박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 핍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다. 이 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다고 했다.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다.

이 회원님은 행여 '자랑하기 위해 간증하나'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간증으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자랑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할 뿐이라고 했다.



굿뉴스울산 창간 감사예배(2013. 1. 11, 휴먼시아 장로교회)



2013년 5월 21일 굿뉴스울산 5호(김문훈 목사 초청집회)



굿뉴스울산 창간 3주년 감사예배(2016. 1. 5, 아름다운침례교회)



장현서 이사장 취임예배(2016. 10. 6, 서울산순복음교회)



장혜리 집사 사랑의 음악회(2017. 4. 9 울산에바다농아교회)



언약의 교회 이금희 목사, 의류사업하던 시절



언약의 교회 정현섭 집사, 홍석호 집사, 이금희 목사, 박귀환 집사, 지훈이



언약의 교회 주일학생들. 주전에서 잡은 망상어의 뱃 속에
43마리의 새끼가 들어있었다.



언약의 교회 청년들과 부산 사직구장 조용기 목사 집회 참석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 모친 박영자 권사와 이금희 목사



언약의 교회 박정관 전도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이금희 목사



언약의 교회 박귀환 집사와 주일학교 학생들



굿뉴스울산 장현서 이사장과 이금희 목사,
박종화 목사 변애경 사모, 김은희 집사



2017. 4. 23. 이용식 집사 대흥교회 초청집회(김기현 울산시장, 이흥빈 목사, 뽀식이 이용식 집사, 이금희 목사)



2017. 4. 23. 홍수환 장로 울산대흥교회 해피데이 축제(세계챔피언 홍수환 선수와 이흥빈 목사, 이금희 목사, 기독교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



새끼 고양이가 미미가 굿뉴스울산 취재차량에 올라타고 왔다.
한달 기른 뒤 주홍가든에 분양됐다.